

생명샘 (living Stream)

Korean and English



Book 8 (2004)

White Young Jeon

Cambodia Reformed Faith Institutes

머릿말

목차

1.

기드온의 300명 용사 (삿7:1-25) 2005. 2.16

기드온 300명이 하나님의 전쟁을 어떻게 이겼는가를 보인 본문은 계속되는 우리의 영전 승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은 싸움의 진리들, 즉, 1) 하나님이 친히 싸우기에 반드시 이기며(22), 2) 하나님은 숫자가지고 일하지 않으시며 (2), 3)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7) 잘 알아야합니다. 특히 용사를 선별하는 3가지 기준을 보입니다. 첫째, 믿음있는 사람 - 32000명 중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라(3)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요구하심은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빌4:13)

그러기에 믿음은 주님에게 달라붙는 것으로 담대함이 있고 어떤 난관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깨어 있는 사람 - 300명을 선별할 때 무릎을 꿇고 물을 훔아 먹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자, 자기무장을 힘쓰는 자를 가리킵니다. (엡 5:16-17) 자기관리를 잘 하여 깨어있는 영적 근면자를 쓰십니다. 다윗은 시편 141편에서 원수의 압제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원수를 처리하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깨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입니다. 셋째, 순종하는 사람- 기드온 300명 용사는 향아리, 횃불, 나팔을 가지고 나아가 큰 군대를 무찌르려는 어리석은 방법을 무조건 따를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와 같습니다. 순종 일꾼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순종하면 주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승리 후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고 겸손을 유지 하는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영전에 쓰임받는 승리자가 됩시다.

Gideon's 300 warriors (Judges 7:1-25) 2005. 2.16

The text, which shows how the 300 Gideons won God's war, shows in detail how we can continue to win the war. Christians who participate in God's war must know the truths of the fight: 1) God Himself fights, so He must win (22), 2) God does not work with numbers, (2), 3) and God only hires prepared people. You must know well that (7) you are working through it. In particular, there are three criteria for selecting heroes. First, those who have faith - out of the 32,000, those who tremble in fear were told to go back (3). God requires those who have faith because this is a fight of faith and a fight that follows what is invisible to the eye. Paul told us to take up the shield of faith and that we can do all things by faith. (Philippians 4:13) Therefore, faith clings to the Lord, gives us courage, and allows us to win by trusting in the Lord in any difficulty. Second, when he was sorting out the 300 who were awake, he chose the one who got down on his knees and licked water. It refers to one who is awake and sacrifices his self-armed self. (Ephesians 5:16-17) He uses spiritually diligent people who take good care of themselves and are awake. In Psalm 141, when David was oppressed and suffering by his enemies, he cried out to God and waited for His answer. He wanted to use God's wisdom to deal with his enemies. Those who are truly awake are those who live before God. Third, obedient people - Gideon's 300 warriors could unconditionally follow the foolish method of going out with jars, torches, and trumpets to defeat a large army. It's like the conquering of Jericho. Obedience and consistency

brought victory. If you obey, the Lord will fight for you. Miracles happen when you obey. After victory, we made the conclusion that only God would receive the glory and remain humble. Let's become a winner who is used in battle.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삿8:1-35) 2005.2.23

사사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3가지 직분을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란 실체가 있다는 말인데 사사의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사사의 활동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그 사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드온 사사의 활동에서 우리는 하나님나라의 원리를 배웁니다. 다른 사사는 구원 후에도 친히 다스렸지만 기드온의 경우는 기드온도, 그의 아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친히 다스림을 구한 것이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23절) 첫째,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줄기찬 승리를 보이지만 여전히 한계성에 부딪혔습니다. 오렐과 스엠, 세나와 살문나를 죽임으로 하늘을 찌르는 승리를 거둔 기드온이었지만 가정생활에 처를 많이 두어 70인의 아들을 뚝으로 화근을 안은 것입니다. 기드온의 한계성입니다. 그의 아들의 다스림도 인격의 결함으로 한계성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 의 위치에 설 수 없습니다. 겸손일관하지 않으면 끝까지 쓰임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호홉이 끊어지면 수에 치지도 않는 인간을 왕으로 섬기려는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만이 친히 다스려야 합니다. 어떻게 다스립니까? (1) 높은 곳에서 다스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은 하나님 중심이며, 전체를 통제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고백입니다. 시편148 편에 삼라만상, 춘하추동, 하늘 별, 인간 의 신경 세포, 개인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게만 찬양하라고 호소합니다. 그는 모든 곳에 계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리힘이나, 말의 힘을 의지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오직 그를 경외하고 그의 인자를 사모하는 자를 반겨주십니다. (2) 성령을 통해 다스리십니다. 성령을 부으심으로 일하십니다. 성령은 다스리심의 수행자이십니다. 기드온의 모든 승리도 성령이 임 하심 으로 되었습니다. 창조의 영, 섭리의 영, 구원의 영, 교회의 영, 치료의 영, 성결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다스림에 민감합시다. (3) 신실한 일꾼을 통해 다스리십니다. 사사의 직분이 더러워지면 버리십니다. 고난을 통해 정결케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마5:8) 신실한 일꾼이 되어 나를 통해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아나니아,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됩시다.

A nation ruled by God (Judges 8:1-35) 2005.2.23

The office of judge can be said to be a shadow of Christ's three offices. A shadow means that there is substance, and the substance of the judge is Christ. Therefore, in the activities of the judges, we must see the work of Christ. Because Christ is the only judge. In particular, we learn the principles of the kingdom of God from the activities of Judge Gideon. The other judges ruled personally even after salvation, but in Gideon's case, it was notable that he sought rule not from Gideon or his son, but from God himself. (Verse 23) First, humans cannot become kings of the kingdom of God. Although Gideon showed steady victories, he still faced limitations. Although Gideon achieved a sky-high victory by killing Oreb, Shem, Shena, and Zalmunna, he brought trouble to his family life by having many wives and having 70 sons. This is Gideon's limitation. His son's rule also remained limited due to character flaws. Therefore, man is only a tool and cannot stand in the position of God. If he is not consistent and humble, he will not be used until the end. We must

overcome the temptation to serve as our king a human being who is not worth his while if he stops breathing. Second, only God must rule personally. How do you rule? (1) He rules from on high. The title “Our Father in Heaven” is a confession that God is centered and that He is th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who controls the whole. Psalm 148 calls on us to praise only the Almighty God who knows all things, the spring, summer, autumn and winter, the stars in the sky, human nerve cells, and the sitting and standing of each individual. He is everywhere, but He gives grace to the humble. He hates those who rely on the strength of their legs or words, but welcomes only those who fear Him and long for His lovingkindness. (2) He rules through the Holy Spirit. He works by pouring out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is the attendant of government. All of Gideon's victories were due to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He is the Spirit of Creation, the Spirit of Providence, the Spirit of Salvation, the Spirit of the Church, the Spirit of Healing, and the Spirit of Holiness. Let us be sensitive to the rule of the Holy Spirit. (3) He rules through faithful workers. When the office of judge becomes dirty, he abandons it. He continually works to purify Him through suffering. (Matthew 5:8) Let us become faithful workers like Ananias and Barnabas who allow God to work through us.

그 날에 받을 면류관 (딤후4:1-8) 2003.12.28

거진 교훈에 붙들린 사람은 내세 소망이 희미해지고, 준비된 면류관에 무관심 하게되는 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특징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커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커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3-4절)고 했습니다. 금년 마지막 주 일, 나를 위해 약속하신 면류관을 얻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결심이 생 겨지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이 어떤 것인 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8 절에 나오는 "의의 면류관"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면류관"이란 승리자에게 주어 지는 증표인 "상급"(reward)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 는 상급을 계시록에서 많이 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과실을 주며(2:1).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11).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며(17).민국을 다스리는 권세(26)와 새벽 별(28)을 주며. 흰 옷을 입혀주며 생명 책에 녹명되 며 천사 앞에 인정을 받고(3:5). 성전의 기둥이 되고(12). 내 보좌에 함께 앉 게 하는(21) 상급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긴 자에게 주어진 계 속되는 승리의 보상입니다.(요일2:12-13절) 또. "의"의 면류관이라 했습니다. 선한 싸움. 의의 싸움을 한 사람이 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의란 하나님의 속성 인데 이것은 인간에게 생각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을 때 얻습니 다. 그리고 이 의는 우리를 "온전한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 생명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란 말과 통합니다. 의가 없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고. 의가 없는 새로움은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 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처럼 그날의

상급을 바라보고 돌 탕에 맞으면서도 원수를 향 해"저희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있는 가요?
 최봉석목사님이 매를 맞을 때 "내 면류관에 별 하나가 더 붙었다"고 할
 수 있는가요? 신앙의 궤도를 수정하여 나를 위해 준비한 상급을 향해
 힘껏 달 려 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면류관을 어떻게 얻습니까? 첫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주어 집니다. (1-2) 성경을 가르치고 수고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항상. 범사에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일에 힘쓰는 종들에게 주어 집니다. 이것은 교역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일에 협력하여 수고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어 집니다. 5절에 보니 전도인의
 일을 다 하라고 했습니다. 마28: 19-20절에 충실하는 것이 주님의 상급을
 받는 길입니 다. 바울의 일생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다메섹의 회심이후 로마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런 속에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어떤 고난도 그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셋째.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어 집니다. 앞서 말한 증거사 역이 어려운
 것은 믿음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며 봉사하 면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받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전쟁과 같
 고 경주와 같기 때문에 긴장이 있어야 합니다. 관제와 같이 자신을
 부어드리지 않으면 끝까지 지킬 수 없는 일입니다. 나를 위해 준비된
 면류관을 바라보라.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내 것으로 삼기위해 자기
 은사를 가지고 말씀증거와 전도하는 일에 전력하는 성도가 되 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e crown you will receive on that day (2 Timothy 4:1-8) 2003.12.28

People who are caught up in the old teachings have dim hopes for the afterlife. Becoming indifferent to the crown prepared is a characteristic of the last days. “The time is coming when people will not endure sound doctrine, but will grow old and accumulate for themselves teachers after their own use, and will turn away from the truth and wander into fables” (verses 3-4). On this last Sunday of the year, I hope you will have the resolve to continue the race of faith to obtain the crown promised for you. First, we must think about what kind of crown the Lord has prepared for us. What does “the crown of righteousness” mean in verse 8? A “crown” is a “reward” that is a token given to the winner. So, Apostle John talks a lot in the Book of Revelation about the rewards given to those who overcome. The fruit of the tree of life is given to those who overcome (2:1). Not harmed by the second death (11). He gave them the hidden manna and the white stone (17). He gave them the authority to rule over the nation (26) and the morning star (28). He is clothed in white, his name is written in the book of life, and he is acknowledged before the angels (3:5). Become a pillar of the temple (12). He promised to give me a reward (21) by sitting with me on my throne. This is the reward of continued victory given to those who have already overcome (1 John 2:12-13). It was called the crown of “righteousness.” Good fight. This means that the one who fights a righteous fight receives the reward. Righteousness is an attribute of God, which cannot be conceived by humans and is obtained only by believing in the merits of Christ. And this righteousness is the power that makes us “perfectly righteous.” So, this righteousness is related to the words crown of life, crown that does not fade, and crown of glory. Life without righteousness is not life. This is because we cannot think of newness without righteousness.

Like Deacon Stephen, are we really capable of praying to our enemies, “Do not hold our sins against them” while looking at the day’s reward and being stoned? When Pastor Choi Bong-seok was beaten, could he say, “One more star was added to my crown?” I hope you will correct your course of faith and run with all your might toward the reward prepared for you. So how do you get that crown? First, it is given to the person who spreads the word. (1-2) This means that it is given to those who teach the Bible and work hard. always. It is given to servants who strive to rebuke, warn, and exhort in all things. This is given to ministers and to those who cooperate and work hard in the work. second. It is given to those who evangelize. In verse 5, it says to do all the work of an evangelist. Matthew 28: Being faithful to verse 19:20 is the way to receive rewards from the Lord. When you look at Paul's life, you can't tell how beautiful it is. We don't know how much suffering he had to endure after his conversion in Damascus before he could go to Rome. However, God accomplished His will through such circumstances. No hardship could block his path. third. It is given to those who keep the faith. The reason why the ministry of witness mentioned above is difficult is because it must be done while maintaining faith. As we evangelize and serve, we must focus on being governed by the Holy Spirit. There has to be tension because this is like a war and like a race. If you do not pour yourself out like a drink offering, you cannot keep it until the end. Look at the crown prepared for me. I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like Paul, you may become a saint who uses your gifts to do your best in witnessing and evangelizing the Word in order to claim the crown of righteousness as your own.

므나 비유(눅19:11-27) 2004.1.7 (수)

본문은 천국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가는 한 커인이 열 종에게 한 므나씩 나누어주고 돌아온 후 평가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서 우리는 하나님나라 백성이 두 사이에 끼여있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도 떠나 는 것이 더 좋으나 너희 유익을 위하여 지금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두 사이에 낀 영적 긴장을 보여줍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나라와 장차 올 하나님 나라 사 이에 낀 사람들로 살아갈 때 거기에 갈등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두 사이에 낀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충성된 자로 살게 될까요? 첫째. 충성된 종이 되려면 주인을 잘 알아야합니다. 므나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차이점은 전자가 모두 한 므나를 같이 받지만 후자는 각기 차이를 두 었습니다. 전자는 구원 후 그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후자는 받은 은사에 따라 열매를 남긴 삶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한 므나 받은 사람이 똑같이 주인과 그 뜻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자하는 우리들에게 구원하시고 은사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아 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싫어하는 원수와 악한 종은 모 두 주님을 인격적으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인색한 자, 불로소득을 노리는 자로 만 아는 것은 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여리고의 소경과 삭개오는 부르시는 분을 무엇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창조주요. 메 시야요. 구원주이심을 알고 믿었기에 한 므나로 충성된 삶을 살게된 것입니다. 둘째. 충성된 종이 되려면 착한 마음을 가져야합니다. 어디서부터 빗 나갔 는가요? 같은 주님. 같은 구원, 같은 왕. 같은 명령(장사하라)인데 왜 그런 차 이를

만들었나요? 그것은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정말 그는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며 즐거움으로 하게 하십니다. 착한 마음을 만들어주십니다. 충성된 자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일했습니다. 절대 성취력이 있는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날 착한 마음이 얼마나 무시되니까? 어리 석은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착한 마음은 성령이 일하는 발입니다.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날마다 마음을 기경하여 성령이 자유롭게 일하는 착한 마음을 지켜나갈 때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째. 충성된 종이 되려면 작은 일에 신실해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는 지극히 작은 일(a very small matter)에 신실할 때 주어 집니다. 받은 구원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여 여러 배나 남긴 자는 적은 일에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못 받았어도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전하려고 힘쓸 때. 넘치는 열매가 나타나 는 것입니다. 전도. 성경읽기, 기도. 교회모임은 모두 다 이런 일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안 부르면 누구를 부르나?"는 교만한 마음보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충성된 종이란 평가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Parable of the Minas (Luke 19:11-27) 2004.1.7 (Wed)

This text is one of the parables of heaven. The story is about a king who goes to a distant country to receive the throne, distributes one mina to each of his ten servants, and then evaluates them upon his return. Here we see the people of God's kingdom caught between two things. Paul also shows the spiritual

tension between the two, saying that it would be better for him to leave, but that he is here now for your own good. When we live as people caught between the kingdom of God that has already come and the kingdom of God that will come, there is conflict, drive, and dedication. How can we who are caught between the two live as faithful people? first. To be a faithful servant, you must know your master well. The difference between the mina parable and the talent parable is that in the former, both receive one mina, but in the latter, there is a difference. The former refers to the fruit after salvation, while the latter refers to a life that leaves fruit according to the gifts received. However, both the person who received one talent and the person who received one mina did not know the owner or its meaning. This means that for those of us who want to live faithful lives, it is important to know every day who our saver and gifter is. This is because the enemies and evil servants who hate the Lord do not know the Lord personally. Being seen only as a stingy person or someone looking for unearned income directly affects loyalty. So Paul, the blind man of Jericho, and Zacchaeus knew better than anything else the One who was calling. He is the Creator. It's Messiah. Because he knew and believed that he was the Savior, he lived a faithful life with only one pound. second. To be a faithful servant, you must have a good heart. Where did we go astray? Same Lord. Same salvation, same king. It's the same command (do business), but why was there such a difference? It was a matter of the heart. Indeed, he does not force us to do it, but with pleasure. He creates a good heart. Those who were faithful received the word and worked with a kind and good heart. We must bet our lives on His Word, which has absolute fulfillment. How much is a good heart ignored these days? Treats you like a fool. A good heart is the field where the Holy Spirit works. We live

a faithful life when we cultivate our hearts every day through repentance and faith and keep a good heart where the Holy Spirit works freely. Third. To be a faithful servant, you must be faithful in small things. The evaluation of a good and faithful servant is given when one is faithful in a very small matter. This is because those who worked diligently with the salvation they received and made a profit many times over were faithful in small things. How thankful are you that you were saved even if you did not receive anything else? When we try to share it with our neighbors. Overflowing fruit appears. Evangelize. Reading the Bible, praying. All church gatherings are like this. Rather than arrogantly thinking, “If you don’t call someone like me, who else will you call?”, you should accomplish small things with a humble heart, saying, “I’m so grateful that you called someone like me.” I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you will be evaluated as faithful servants.

통회하는 마음(시51:1-12) 2004.1.11(주)

새해를 어떤 일보다도 마음(영혼)에 초점을 두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죄와의 관계를 철저히 끊으려는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51편은 그런 목표에 이르는 정확한 방법을 보여주 기 때문에 귀한 말씀입니다. 왕이요. 장군이요. 문학가요. 선지 자로 통하는 다윗의 위대함은 그의 업적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나누지 않는 일치하는 마음을 가진 데 있습니다. (행13:22) 그런 사람이 무서운 죄를 범하여 절망가운데 있을 때 회개함으로 소 망을 회복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라는 한마디 말처럼 생명 넘치고, 은혜 넘치는 복된 마음은 통하는 마음(broken heart)에 있는 것을 보입니다. 이 마음을 갖기 위해 다윗은 어떠한 했습니까? 첫째.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기를 소원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죄를 범한 다윗을 찾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랑만이 우리를 덮어주며 치료하는 무한한 특효 약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맛은 사실상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랑은 성령의 부으심으로 임하도록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롬5:5) 둘째. 그는 죄와 싸우기를 소원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다윗은 죄 죄과, 죄악이 도말 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저지른 죄를 잘 알았습니다. 권력으로 남의 아내를 뺏는 간음과 이 죄를 가리우려고 저지른 살인은 의도성이 강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단의 책망을 받아 얼마나 잘 못되었는지를 알게되었습니다. 성령이 도우셨습니다.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이 형벌이 아니라 죄(sin)란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뼈가 꺾이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죄를 끊어버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통하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죄와의 싸움은 이론이 아니고 치열한 전쟁임을 안다웠은 그리스도의 피만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라는 부르짖음으로 마음의 정결을 원했습니다. 속제제사 도구인 우슬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킵니다. 그 피를 믿기만 하면 즉시 용서됨으로 우리는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소유합시다.

A contrite heart (Psalm 51:1-12) 2004.1.11 (week)

The reason we want to focus on our hearts (souls) more than anything else in the new year is that our hearts will completely break off the relationship with sin. In that sense, Psalm 51 is a precious verse because it shows the exact way to reach that goal. King. General. Literary song. The greatness of David, who is known as a prophet, lies not in his accomplishments but in having a heart that does not share the heart of God. (Acts 13:22) This is because today's text shows that such a person, when he committed a terrible sin and was in despair, recovered his hope through repentance. As verse 17 says, "The sacrifice that God seeks is a broken spirit, O God, you will not despise a broken and

contrite heart,” it shows that a blessed heart full of life and grace is in a broken heart. What did David have to do to have this heart? first. He longed to encounter God's love. In verse 1, he confessed, “Have mercy on me, O God, according to your lovingkindness; according to your abundant mercy, blot out my transgressions.” After being rebuked by Prophet Nathan who found David who had committed a sin, he immediately repented. That repentance began with seeking God’s love. This is because only this love is an infinitely effective medicine that covers and heals us. The taste of this love is actually nothing else than knowing God. Because God is love. No matter what position you are in, please seek the Lord’s love. This is because this amazing love is promised to come through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Romans 5:5) Second. He wanted to fight sin. Looking at verses 2-4. David so desperately wanted the guilt of sin and iniquity to be blotted out. So he knew very well the sin he had committed. Adultery, taking someone else's wife by way of power, and murder committed to cover up this sin were sins with strong intent. But when he was rebuked by Nathan, he realized how wrong he was. He was helped by the Holy Spirit. He knew that what he really had to fight against was not punishment, but sin. So he felt a bone-breaking pain for his sin. He made the decision to give up sin. This made me feel connected. David, who knew that the fight against sin was not a theory but a fierce battle, relied solely on the blood of Christ. He wanted to purify his heart by crying, “Purify me with hyssop.” Hyssop, the instrument of the incarnation offering, points to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Just by believing in that blood, we are immediately forgiven, so we can have a contrite heart. Let's own our hearts.

주께 쓰임 받는 사람 (눅19:28-40) 2004.1.21(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돈 많고, 명예, 지위, 학식, 세련된 인격 등을 생각하지만 믿은 후 우리는 신앙 좋은 사람을 꼽습니다. 신앙 좋다는 말은 주께 쓰임 받는 사람"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때에 쓰임 받은 제자들, 어린아이들. 말 못하는 나귀새끼 처럼 쓰임 받는 자가 가장 복 됩니다. 시기와 질투로 어두움에 쓰임받은 바리새인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 받고 계십니까?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첫째, 주님은 친히 준비된 것만을 쓰십니다. 나귀새끼를 준비하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창세 이래, 수많은 나귀가 있었지만 주님을 태운 나귀는 바로 이것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메시아 이심을 증거 하리라는 스가랴 예언(9:9)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님이 벌써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만 보냄 받았고, 엘리사가 나아만 문둥이에게만 보냄 받은 것처럼 주님의 이 일에 쓸 나귀를 친히 준비하신 이레(준비하시는)의 하나님이십니다. 준비된 사람은 주님의 명령에 즉각 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베드로 일행을 부르시거나 그물 집고, 던질 때 부르자 그들은 즉시 응했습니다. 마테를 부르실 때도 즉시 응답했습니다. 도중하차해도 부르심의 효력을 기어코 따르게 하십니다. 이는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준비된 사람은 즐거움으로 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나귀 주인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응한 것은 이미 주님이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쓰임 받기 위해 창세 전부터 준비된 그릇들입니다. 나귀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하실 때 즐거움으로 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건강, 재능, 마음, 물질, 생애, 목숨까지도 다 주님이 쓰시도록 자기를 비워 드려야합니다. 찌꺼기를 드리지 말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은 주님이 쓰시려면 자기를 아낌없이 드리려는 마음으로 날마다 헌신의 제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쓰임 받습니다. 이미,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불충한 종의 실패 원인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몰랐다는데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입성하실 때 군중의 찬송은 어떠했나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평화요 땅에서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탄생 시. 천군 천사의 찬송과는 달랐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는 위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축원이지만, 본문의 찬송은 하나님에게만 영광과 평화가 돌아가는 응답의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서론이라며 후자는 결론입니다. 이런 찬송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무리는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기에 찬송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 찬송을 가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같은 경험의 되어야합니다. 본문에 나온 나귀와 제자들의 쓰임 받는 생애처럼 넓은 사회에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하여 겸손히 주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창세 전에 준비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A person used by the Lord (Luke 19:28-40) 2004.1.21 (Wed)

Who do you think is the happiest person in this world? Before we believe in Jesus, we think about money, fame, status, knowledge, refined personality, etc., but after we believe in Jesus, we think of people with good faith. The term 'good faith' means 'those who are used by the Lord'. The disciples and children who were used by the Lord when He entered Jerusalem. Those who are used like dumb donkeys are the most blessed. Those who are used in the darkness through envy and jealousy. The Pharisees were truly pitiful people. How are you being used? What kind of people does the Lord use? There have been many donkeys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 This was the only donkey that the Lord had prepared to fulfill the prophecy of Zechariah (9:9) that He would testify that He was the Messiah, just as Elijah was sent only to the widow of Zarephath and Elisha was sent only to Naaman the leper. The Lord is the God who personally prepares the donkey to be used in this work, and those who are prepared are expected to immediately respond to the Lord's commands. He responded immediately when he called Matthew. This is because the Lord's call has no regrets and the donkey owner responds willingly. If we respond with joy in our hearts, we are all vessels prepared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to be used by the Lord. When the Lord says, "The Lord will use us," we must respond with joy. , you must empty yourself for the Lord to use, including your mind, substance, life, and even your life. Do not give up your dregs, but give what is most precious to the Lord. Please become a sacrifice of devotion every day with the intention of giving yourself generously for the Lord to use. Because this is the happiest life. Second, we have already seen that the reason for the failure of the unfaithful servant who received one talent was because he did not know the Lord personally. What was the crowd's praise like when the Lord entered? He said, "Peace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glory." At the birth of the Lord. It was different from the hymns of the angelic hosts. "Glory in heaven and peace on earth" is God's blessing from above, but the hymn in the text is a praise of response that gives glory and peace only to God. The former is an introduction, and the latter is a conclusion. These hymns were sung by the Pharisees. Because they did not know that Jesus was the Christ, but the group of disciples knew that he was the Christ, so Paul could not bear to sing this praise. We could regard everything as excrement. This should be the same experience for us, so that we can be used by God in a valuable way, just like the life of the donkey and the disciples in the text. This is because it is a vessel prepared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화평케 하는 마음(눅6:27-36) 2004.1.25

그리스도인의 성공적 삶에 가장 많은 문제는 화평의 마음에 놓여 있습니다. 이 마음을 추구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관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이웃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삶이기에 화목과 화평은 생명이 흐르는 관(pipe)과 같습니다. 사실 이 "화목"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싸우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화목 하십니까? 아니면, 장벽이 있어 다투지 않으십니까? 27-30절에서 말하는 미움, 저주, 모욕. 강탈, 약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 않으니까? 첫째. 화평의 중요성, 화평이 왜 중요합니까? 화평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복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마태의 8복(마5:8:)에도 화평케 하는 복이 수준있는 열매로 7번째에 나옵니다. 누가는 이것을 원수 사랑하는 것으로 여러 형태로 말 하지만, 한마디로 화평케 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하는 4가지 복(심령 가난한 자. 주린 자, 애통 자, 꺾임 받는 자)의 적용에 해당되는 것이 화평케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수성찬 차려놓고 화목치 못하면 가난하면서 화목한 것이 더 낫습니다. 가정의 보는 물질이 아니라 화평입니다. 교회 부흥은 화평을 좇아 주님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난 초대교회의 화평은 유무상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교회는 화목을 추구하는 곳이기에 화목이 무너지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둘째. 화평의 방법. 화평을 무너뜨리는 일은 언제나 일어나는데 그 해결책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복음 자체에 있습니다.(롬1:16-17) 복음은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의 화목으로

나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화목케 하는 능력을
 알고 로마로 가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다음,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
 자신이 복음의 삶을 살때 장벽이 무너집니다. 이것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세상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축복의
 세계를 알때 원수를 사랑할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화목을 막는 원수,
 욕을 이길 힘이 내게는 없고 복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이 욕을 어떻게 제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화평을
 무너뜨리는 여우, 내 속의 욕을 오직 주님이 십자가위에서 다
 처리하셨음을 믿고 붙드는 길뿐입니다. (갈5:24) 이것을 믿고
 받아드립니다. 셋째. 화평의 결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 다. (35절, 마5:9) 그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운 삶을 사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게됩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였듯이 영광의
 영이 충만한 삶(벧전4:15). 세상을 정복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성령이 임하심으로서 일치하는 마음이 되며 화평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A peace-making heart (Luke 6:27-36) 2004.1.25

The biggest problem in a successful Christian life lies in the peace of mind.
 The reason we pursue this heart is because our lives are made up of
 relationships. Harmony and peace are like a pipe through which life flows
 because life is built on a relationship with God above and with neighbors on
 the side. In fact, this “reconciliation” can be said to be “salvation.” Are you at

peace with God? Don't you fight? And are you at peace with Christians? Or, do you have barriers that prevent you from fighting? Hatred, cursing, and insults mentioned in verses 27-30. Aren't robberies and plunder ruling your hearts? first. The importance of peace, why is peace important? This is because peace is the completion of all blessings mentioned in the Bible. In Matthew's 8 blessings (Matthew 5:8:), the blessing of peace appears in the 7th place as a quality fruit. Luke speaks of this in many ways as loving one's enemies, but in a word, it refers to a person who makes peace. It can be sai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four blessings mentioned above (the poor in spirit, the hungry, those who mourn, and those who endure persecution) is what makes peace. How important is it? If you cannot reconcile while preparing a sumptuous feast, it is better to be poor and reconcile. The essence of home is peace, not material things. Church revival is nothing else than pursuing peace and serving the Lord. So, the peace of the early church where revival occurred was expressed in terms of both good and free. The church is a place that pursues harmony, so if harmony is broken, no one can see the Lord. second. Way of peace. Things that destroy peace always happen, but where is the solution? It lies only in the gospel itself. (Romans 1:16-17) The gospel is reconciliation with God. This is because we are supposed to go out in harmony with our neighbors. Paul learned of the reconciliation power of the gospel and desired to go to Rome. Next, when I myself live the life of the gospel before others, barriers are broken down. Because this is on a different level. The world cannot understand the cross of the Lord. When you know the world of blessings, the power to love your enemies comes from there. This is because I do not have the power to overcome the flesh and the enemy that blocks reconciliation, but it comes from the gospel. Therefore, our interest

depends on how to subdue this flesh. The only way is to hold on to the fox that destroys peace, the flesh within me, by believing that the Lord has dealt with it all on the cross. (Galatians 5:24) Let us believe and accept this. third. The result of peace. The peacemaker is called the son of God. (Verse 35, Matthew 5:9) This does not mean that you become the son of God, but evidence of living a life as a child of God appears. You will live a lif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 life filled with the spirit of glory, as Jesus set an example (1 Peter 4:15). It is to live the life of one who has conquered the world. I pray that through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your hearts will become united and you will live a life filled with peace.

하나님 인도를 따르는 방법(수1:1-9) 2004.2.4.

오늘부터 강해하는 여호수아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래 40년이 지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정착까지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이것은 한낱 이야기 거리로 주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안에서 받은 가나안 복의 실상인 성령 충만한 은혜를 어떻게
얻는가를 보여주는 영적 지침서입니다. 그 첫 시간. 모세대 신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으로 오늘날 우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
는가를 생각하려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강한 마음(strong heart)을 가지게
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 대신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먼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명하셨습니다. (6.7.9)
왜 담력 있는 마음이 중요합니까? 이것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믿고 나가 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에게 담력을 가지라고 한다해서 저절로 가 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두려움의 장벽을 뛰어 넘습니까? 하나님이 함
께하시는 약속 때문입니다. (5.9)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리라는
임마누엘의 약속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자는 진정 복된 자입니다.

(마28:20) 또한 하나님은 율법에 온전한 순종(complete obedience)을 통해
인도하 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되 기록된 말씀, 율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을 순종하면 형통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78)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라""이 율법을 네 입에...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록의 권위를 믿으신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커를 좇아 내실 때, 원 수를 응수하실 때, 십자가
지실 때,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실 때도 기록된 말씀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순종을 얼마나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기이한 복을 원한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충만의 은혜는 기록된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엡5:18) 이것은 지금도 복음 안에서 그대로 주어진 약속입니다. 일평생. 그리 스도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자, 제자라는 말을 듣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율법을 묵상(meditation)케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순종 안하려고 나의 마음 에 버티는 강한 세력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꺾기 전에는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알고 자기를 가리켜 곤고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까지도 이겨주셨습니다. 성령의 법이 나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롬8:1) 이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구원의 확신이 없 다할 때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가야합니다. 요일5: 11-12에 머물러 마음을 거기에 둘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알게되고 마음이 열려 내게 적용하게되고 그 것을 순종하여 형통을 맛보고 누리게됩니다. 성경의 주장을 나의 주장으로 삼 을 수 있는 묵상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런 말씀묵상으로 영적 승리 고지를 점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How to follow God's guidance (Joshua 1:1-9) 2004.2.4.

The Book of Joshua, which is being discussed starting today, records the history of Israel 40 years after leaving Egypt, defeating Canaan's enemies and settling Canaan. This is not given as a one-day story, but a spiritual guide that

shows how to obtain the grace of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which is the reality of the blessings of Canaan received in Christ. That first hour. I would like to think about how we today receive God's guidance through the command given to Joshua, the founder of Moses' generation. first. God guides us by giving us a strong heart. In verses 1-2, God appointed Joshua instead of Moses and first commanded him to have a strong and courageous heart. (6.7.9) Why is a courageous heart important? Because this is faith. Even if I don't see anything with my eyes, I believe in it because it is God's command and go forward. However, telling a fearful person to have courage does not mean that he or she will gain courage automatically. How do you overcome this barrier of fear? It is because of the promise that God makes with us. (5.9) Those who live as those who have received the promise of Emmanuel to always be with them wherever they go are truly blessed. (Matthew 28:20) Also, God guides through complete obedience to the law. God has always spoken, but through the written word, the law. If you obey this law, you will prosper. (78) "Observe all the law that was commanded to Moses." He said, "You shall keep this law in your mouth... and do according to all that is written in it." It is our Lord who believes in the authority of records. When chasing down a marker, responding to an enemy, carrying the cross, and giving courage to a discouraged person, He used the written word. We don't know how much obedience the Lord requires of us today. If you want wonderful blessings, please obey. If you obey, miracles will happen. The grace of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occurs when we faithfully obey the written Word. (Ephesians 5:18) This is a promise still given in the gospel. A lifetime. I hope you live your life hearing that you are an obedient and disciple who follows Christ and His words. Lastly, God guides us by allowing us to meditate on the law. But

we feel the difficulty of obedience. I discovered a strong force in my heart that kept me from obeying. Until this is broken, obedience will not occur. Paul also knew this and called himself a wretched man. But the Lord overcame even this. The law of the Holy Spirit freed me from the law of death. (Romans 8:1) Please believe this and be thankful. For example, when we have no assurance of salvation, we must go to the written Word. Day 5: When we stop at 11-12 and set our mind there. We learn its meaning, open our hearts, apply it to ourselves, and obey it to taste and enjoy prosperity. By meditating on the Bible's claims as my own, I can enjoy God's victory as my own. I pray that you will occupy the heights of spiritual victory through this kind of meditation on the Word.

여호수아의 영권 (수1:10-18) 2004.2.11.

사명 받은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명을 내릴 때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그러 했듯이 그의 영권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17) 이것은 그를 통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난 증거입니다. 우리의 여호수아인 예수님이 내린 명령에 순종하는 가정, 사회, 교회가 되는 것이 영적 권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무너져 가는 시대에 어떻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집니 까? 먼저. 어디서 영권이 생기는지 알아봅시다. 영권이란 "영적 영향력", "지도력"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영 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생깁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고(10-11) 르우벤, 갓, 므나셋 반 지파의 모든 용사들이 가족과 가축을 요단 동편에 두고 요 단을 건너 가나안의 기업을 차지하기까지 싸우라고 했습니다.(12-13) 이 것은 여호수아 자신이 만들어낸 계획이 아니고 모세에게 명한 것을 그대로 따른 것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영권입니다. 오늘날 영적권위가 무너지는 제일 큰 요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는 일하지 않고 말만 하려 하면 권위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행하고 가르쳤기에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행1:1) 70인 전도대들에게 귀신이 도망간 것보다 구원받은 사실을 더 기뻐하라고 한 주님의 설명은 진정한 영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매일 매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경건의 삶을 힘쓸 때 영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본문에 영권이 나타난 증거가 어디있습니까? 여호수아의 명령 을 순종한 그들의 반응에 그 증거가 보입니다. 첫째 증거는 말씀을 그대로 따름으로

나타났습니다.(16) 순종은 말한대로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 도 안되고
 덜해도 안됩니다. 에누리하던 사울 왕의 순종은 영권을 무너 뜨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교회에는 이런 순종이 나타나야합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이 영권을 세우는 길입니다. 둘 째
 증거는 범사에 순종함으로 나타났습니다. (17) 모든 일에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형편이 좋을 때만 한 것이 아니고 나쁠 때에도 그대로 한 것
 입니다. 이것은 영권이 계속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 영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의식이 있을 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은
 십자가를 붙들 때만 이루어집니다. 셋째증거는 전심으로 하는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18) 영권의 표현은 하나님 말씀을 범사에 그대로 하되
 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
 는 것은 목숨을 내 섬김이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없 이
 영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
 에서 예수 믿는 자의 영권을 갖기 위해 왕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Joshua's spiritual realm (Joshua 1:10-18) 2004.2.11.

When Joshua gave his first command, Israel completely obeyed his authority,
 just as they did Moses. (17) This is evidence of God's authority through him.
 Spiritual authority is revealed when a family, society, or church obeys the
 commands given by Jesus, our Joshua. How does true recovery take place in
 an age where this is increasingly falling apart? first. Let's find out where the
 Yeonggwon comes from. Spiritual authority refers to the manifestation of

God's authority through "spiritual influence" and "leadership." In short, spiritual authority comes when you follow God's commands. Joshua told the people's leaders to prepare food to cross the Jordan River within 3 days (10-11) Reuben, Gad. All the warriors of the half-tribe of Manasseh were told to leave their families and livestock on the east side of the Jordan and fight until they crossed the Jordan and took possession of Canaan's inheritance. (12-13) This was not a plan that Joshua himself came up with, but was something he commanded Moses. I just followed it as is. Israel obeyed. Obedience is spiritual authority. The biggest factor in the collapse of spiritual authority today is ourselves. If he tries to talk without doing anything, he loses authority. Jesus had authority because of what he did and what he taught. (Acts 1:1) The Lord's explanation to the 70-member missionary team that they should rejoice more in being saved than in having the devil run away teaches us what the true spiritual realm is. The spiritual realm appears when you obey the word of the Lord every day and strive to live a godly life. Then, where is the evidence of the spiritual realm in the text? The proof can be seen in their response to Joshua's command. The first evidence was found by following the words exactly. (16) Obedience means doing as you say. You can't go over it, and you can't do less. The obedience of King Saul, who had been lenient, became the cause of the collapse of Yeongwon. This kind of obedience must appear in the church. The way to establish spiritual authority is to follow the words of Christ, the head. The second evidence was shown by obedience in everything. (17) It means that he was obedient in everything. I didn't just do it when things were good, I did it even when things were bad. This is what Yeongwon continues to look like. This spiritual realm comes when there is an Emmanuel consciousness with God. And this Emmanuel is only achieved when we hold

on to the cross. The third evidence was wholehearted obedience. (18) The expression of spiritual authority is to do God's word in all things with all your heart. It is to prepare for death and follow it. Believing in the Lord means serving one's life, not doing it in moderation. Without this, the spiritual sphere will not appear. Like Joshua, at home and at church. Please strive to live a life that walks with Christ, the King, in order to have the spiritual rights of a believer in Jesus in society. This is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라합이 받은 복음(수2:1-14) 2004.2.18.(수)

복음은 신약시대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에도 나타났습니다. 바로 라합이란 한 여인의 믿음에 나타납니다. 기생 신분으로 복음을 받은 그는 새 사람으로 변하여 행함있는 믿음을 가진 신앙의 선조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 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위대한 능력을 가진 이 복음이 라합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하나님에 관한 소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리고에 살고있었지만 40 년 전, 애굽의 홍해사건이라든가. 이스라엘 승리의 사건을 소문을 통해 잘 알 고 있었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그 사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관해 알게 되었는데 그가 만난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10) 그는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의 하나님에 관해 잘 알았습니다. (9) 두 정탐꾼을 숨기는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는 그의 확신은 여리고성이 곧 이스라엘에 의해 정복될 것을 믿은 증 거입니다. 일찍이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면 주시기로 한 가나안이 이 제 이스라엘에게 돌아갈 것을 알고 그 언약을 믿은 것입니다.또한 그는 홍해 를 마르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해 알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너 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들은 것을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40년간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신 모든 사건에 대해 그는 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혼과 옥과의 싸움에서 친히 용사로서 일하신 하 나님을 알았습니다. 40년 전에 일어난 일뿐 아니라 최근에 일어난 이방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싸우셨는지를 잘 안 것입니다. 이런 일을 종합해 볼 때 여호와와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안다고 하여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소식을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지만 "그들은 간담이 녹고 심히 두려워할 뿐이지 진정
 회개하고 믿은 사람은 라합 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에 관해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믿고 체험적으로 알게된 것입니다. 가나안 칠 족속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유일한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용단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을 알고 믿은 것입니다. 다음에는
 하나님나라 왕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합이 받은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도록 되어있습니다.
 라합이 받은 복음은 왕명을 거역하는 용기를 갖게 했습니다. 여리고성
 의 왕명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왕명에 의해 움직였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을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지혜로서 위기를 모면 할 수 있었습니다. (6)
 이스라엘편이 된 그의 헌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만을 섬기는 뜨거운
 헌신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한 사랑으로 응답한 것이 복음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이 들은 복음은 온 집안의 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렇게 라합이 받은 복음이 하나님을 알고 그를 섬기게
 할 뿐 아니라 식구들 에게까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이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한 간수의 질문에 관한 바울의 답변과 같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16:31)
 라합이 진실한 표를 얻어 그와 그 집안이 모두 구원을 받은 것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보입니다. 이 능력의 복음을 따라
 살아갑시다.

전심으로 주께 돌아가자!(을2:12-19) 2003.2.20 전화령목사

요엘은 이스라엘의 재난과 황폐함을 바라보고 주께로 돌이키면 부흥이 일어 나리라고 외친 선지자입니다. 종교적, 도덕적으로 병든 사회를 치료하는 방법은 오직 주께 돌이키는 길뿐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주께 돌아가면 주님의 중심이 뜨거워 놀라운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부흥성회에 주님 이 친히 일하시는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까? 본문은 부흥이 필요한 사실들을 보여 줍니다. 메뚜기 재앙을 보니까 부흥이 필요합니다. 팻종이, 메뚜기, 듯, 황충이가 먹어(4) 황폐하게 된 것이 부흥의 필수요건입니다. 부흥이 없으면 엘리야 시대 와 같은 불황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전의 기쁨이 끊어짐 을 볼 때 부흥이 필요합니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서 끊어졌고 기쁨과 즐거움 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나이까?"(16) 제사장들, 장로들로 하여금 굶은 베를 입고 회개 하러 모이라고 합니다. 또한 교회생활에 재미가 없다면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술에 취하여 있음을 볼 때 부흥이 필요 합니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 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5-7) 성령에 취하여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 리고 일꾼들이 피곤한 것을 보니까 부흥이 필요합니다. (8-12) 주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올라가도록 되어있는데 사람들은 피곤하여 벗어날 줄을 모릅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하여 부흥은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현상들은 모두 마음에서 나옵니다. 굳은 마음이 변하여 부드러운 마음 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흥이 절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사막이 에덴 동산으로 바꾸려는 소원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 보이신 부흥의 환상을 마음에 새기고 사막에 꽃이 피는 에덴 동산의 회복을 간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흥이 일어납니까? 부흥은 주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의 얼굴을 구하여야 합니다. 이 부흥을 원한다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라 말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13) 은혜가 풍성하며 자비와 사랑이 많으시며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부으실 풍성한 것이 준비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안식을 원하십니까? 진정 자유를 원하십니까? 진정 능력을 원하십니까? 주님에게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금식 기도하고 오락을 중단하고 마음을 찢으라 하십니다. 지금 전심으로 주께 돌아가 주님의 사랑을 흠뻑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배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됩니다. 무엇 보다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진정한 부흥의 모습은 개인 마음의 변화에 있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예언대로 사막이 에덴 동산으로 변하는 역사가 회개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The Gospel Rahab Received (Joshua 2:1-14) 2004.2.18 (Wed)

The gospel was not only given in the New Testament era, but also appeared in the Old Testament era. This is reflected in the faith of a woman named Rahab. Having received the gospel as a gisaeng, she was transformed into a new person and became an ancestor of faith with works of faith and an ancestor of

Christ. How did this gospel, which has great power both then and now, appear to Rahab? first. It appeared as news about God. I was living in Jericho, but 40 years ago, there was the Egyptian uprising. I was well aware of the events of Israel's victory through rumors. Above all, he learned about God working in that event. Who is the God he met? (10) He knew well about the God of grace who gave Canaan to Israel. (9) In the process of hiding the two spies, his assurance that “I know that the Lord has given you this land” is evidence of his belief that Jericho would soon be conquered by Israel. He believed in the covenant because he knew that Canaan, which he had promised to give once the Amorites' sins had become widespread, would now return to Israel. He also knew about the Almighty God who dried up the Red Sea. When we hear, “How he dried up the waters of the Red Sea before you when they came out of Egypt.” He knew very well about the guidance of the pillar of cloud and the pillar of fire, and all the incidents of giving manna and quail for 40 years. And he knew God, who personally served as a warrior in the battle against Sihon and Og. We know well not only what happened 40 years ago, but also how God fought in the recent battle against the Gentiles. Considering all these things, we ha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Jehovah is the only God of heaven and earth. Just because you know the news about God doesn't mean you believe it all. All the people of Jericho heard this news, but their hearts melted and they were very afraid. It seems that Rahab was the only one who truly repented and believed. The knowledge about God was gained experientially by believing in God. The seven tribes of Canaan The courageous decision that Rahab received by abandoning idols and worshipping Jehovah as her only God came about through knowing and believing in God, the king of the kingdom of God. The gospel that Rahab received gave her the

courage to disobey the king's command, because in the past she was moved by the king's command, but now the situation is different. Therefore, he was able to escape the crisis with his wisdom from the people who came to find the two spies. (6) His devotion to being on the side of Israel showed his fear of God and his passionate devotion to serving Him. It was because of the gospel that Rahab responded with love with all her heart, mind, and soul. The gospel she received was not only the salvation of her entire family, but also enabled them to know God and serve him. This is similar to Paul's answer to the jailer's question in Acts 16: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16:31). The fact that he and his family were saved by receiving this true mark shows the amazing power that is given to those who believe in the gospel. Let us live according to the gospel of this power.

집에 모인 구약교회(수 2:15-24) 2004.3.3 (수)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행7:38)는 스테반의 설 교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교회로 보는 사도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래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구약 교회이며 그 안에는 라합과 그 가족이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교회가 가질 참된 조건을 보여줍니다. 첫째 조건은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합니다. 라합이 모은 자기 식 구들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이 두려움이 없었다면 여리고 성의 멸망소식을 듣고 왕명을 거역하는 용단을 내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라 함이 어디 출신인지, 가족과 친척은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지만 그들은 주 님의 교회였습니다. 여리고성의 매국노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어린양의 피가 발린 집에 모여 하나님의 진노를 두 려워하는 그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피가 발린 집을 떠나지 않고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지체이며 그 모임이 진정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오신 오늘날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즉시 구원을 받고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그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조건은 한가지 약속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합니다. 어떤 분은 "붉은 줄"을 가리켜 붉다는 이유로 십자가의 보혈을 가리킨다고 말하나 붉은 줄은 단 순히

그들이 있는 곳을 알리는 표시이지, 붉은 것이 십자가의 피(죽음)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만 모든 것을 걸고 그 집안에 모인 것입니다. 오늘 날 구원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죽음의 공로로만 되는 것을 말합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위에 흘린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부어진 곳입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셋째 조건은 신실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진정한 두려움이 있는 모임이요, 주님의 약속에 목숨을 건 사람들의 모임이요, 그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라합과 두 정탐꾼간 계약에 분명히 순종할 것이 있었습니다. 집에 유하고, 밖에 나가지 말고, 그 안에서 죽음 당하면 정탐꾼에게 책임이 돌아갈 정도로 확실한 것이었는데 그들의 할 일은 오직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계약에 절대 순종해야만 됩니다. 이 순종이 없다면 결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교회는 신실한 순종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라합의 집에 모인 교회처럼 두려움으로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진정한 영권을 가진 신자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Let us return to the Lord with all our hearts! (Joel 2:12-19) 20032.20 Pastor Jeon Jeon-ryeong

Joel was a prophet who looked at the disaster and desolation of Israel and shouted that if people turn to the Lord, revival will occur. Religious. They say that the only way to cure a morally sick society is to turn to the Lord. If you return to the Lord now, His heart will warm and He will give you amazing

recovery. Our church wants to experience the amazing revival of the Lord Himself at this revival crusade. Why do we need revival? This text shows the facts that require revival. Looking at the locust plague, we need revival. It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revival that the paper was eaten by locusts, locusts, and locusts (4) and became desolate. It is said that if there is no revival, there will be a recession like the era of Elijah. Next, revival is needed when we see that the joy of God's temple has been cut off. "Has not food been cut off from before our eyes, and joy and gladness from the house of our God?" (16) The priests and elders are told to put on sackcloth and gather to repent. Also, if church life is boring, revival must occur. Also, when you see that you are drunk, you need revival. "Awake and weep, you who drink wine; wail, you who drink wine, for sweet wine has been taken away from your mouth" (5-7). We need to be intoxicated with the Holy Spirit, but we need revival because we cannot escape it. And seeing that the workers are tired, revival is needed. (8-12) Those who worship the Lord are supposed to soar like eagles, but people are tired and do not know how to escape. Revival is absolutely necessary to escape from this. These phenomena all come from the mind. Revival is absolutely necessary because hard hearts cannot change and become soft hearts. In short, the wish to change the desert into the Garden of Eden must come true. This is revival. Please keep in mind the vision of revival shown through the prophet Joel and pray for the restoration of the Garden of Eden, where flowers bloom in the desert. So how does revival happen? Because revival comes from the Lord, we must seek His face. If you want this revival, I say go back to God. What kind of Lord is this to whom we must return? (13) He is a God of righteousness, rich in grace, full of mercy and love. Because the Lord is prepared to pour out abundant things. Do you

truly want rest? Do you truly want freedom? Do you want calming powers? Please return to the Lord too. We must return wholeheartedly. He tells us to fast and pray, stop entertainment, and break our hearts. I hope you now return to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receive His love. When that happens, worship will be restored, the country will be restored, and the economy will be restored. Above all,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comes. The true manifestation of revival lies in a change of individual heart.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occurs. May the grace poured out on the day of Pentecost be with you. I pray that the transformation of the desert into the Garden of Eden will take place through repentance, prayer, and the Word, as Isaiah prophesied.

영광의 관을 쓰신 고난의 주님(히2:5-11) 2004.3.8(주)

우리 시대는 점점 간편한 것을 좋아하여 "고난 없는 영광". "고생 없는 진실". "수고 없는 상급"을 기대합니다. 공공연히 주일성수에도 그 문제가 드러남을 볼 때 교훈에 있어서도 "악하고 음란 한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 영광의 관을 쓰신 주를 바로 본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분은 과연 누구십니까? 본래, 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1:3)는 증거를 보았습니다. 천사와 같은 분, 혹은, 못 한 분으로의 취급은 모두 그분을 알지못한 일입니다. 그분을 바로 모른다는 것은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되지만 그분을 바로 알면 뿔나무같은 문제. 산 같은 문제가 즉각 해결될 수 있습니다. 5-8절에는 그를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만유의 주"라고 했습니다. 시편 8편을 인용한 그는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조금 못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에게 절대권위가 주어진 "주중 주"요 "왕중 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본래 영광 속에 거하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습니까? 그분을 바로 볼 때 •아버지의 영광을 알게되고 은혜와 진리를 체험하게되고 거기서 모든 것이 흘러나는 것을 알게될 것입니다. 이 영광의 주님과 교통 없이 행하는 인간의 어떤 선행, 구제, 전도. 예배 행위도 진정한 목적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 고난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오 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이미 그 영광의 아들이 어떻게 낮아지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상을 입고 사람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그의 존귀함을 보지 못합니다. 고난을 무시한 영광이 과연 진리의 길입니까? 고난을 벗어나려고 하다보니까 편리주의로 나가 게 되어 마침내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많은 아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영광 속 에 계신 아들, 이 땅에 오셔서 고난으로 영광의 관을 쓰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사도의 복음입니다. 그가 이런 고난을 당하심은 자기 백성인 우리를 자기 영광으로 이끄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11) 사람들이 진정한 구 주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를 믿는 우리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와 있고 그의 영광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영광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환 히 뜨여지기 바랍니다. 그 영광의 빛 아래서 우리는 나의 빛을 보며 세 상의 빛을 보며 문제 많은 세상에서 사슴의 발처럼 높은 곳을 뛰어다니 는 은혜가 내 것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The Lord of suffering, crowned with glory (Hebrews 2:5-11) 2004.3.8 (Week)

Our age increasingly prefers things that are simple, “glory without suffering.” “The painless truth.” We look forward to “reward without effort.” When I see that the problem is openly revealed even during Sunday observance, I think that it is an “evil and obscene era” even in terms of teaching. Many problems can be solved if people in this age see the Lord who has been crowned with glory through suffering. Who is the person who solves the problem? By nature, He is the glorious Son of God. Already we have been told that he is the Son of God, “who is the radiance of the glory of God, and the exact express representation of his being, who sustains all things by his powerful word, who purifies sins, and who sits at the right hand of the majesty on high” (1:3)) I have seen evidence that treating Him as someone like an angel or as someone who is not good at it is a result of not knowing Him properly, which is the clue to all problems, but if you know Him properly, you are like a mulberry tree. In verses 5-8, he quotes Psalm 8 as “the Lord of all things, to whom all things must obey,” and crowns Christ with “glory and honor, little lower than the angels.” What does this mean? He is the “Lord of Lords” and the “King of Kings” given absolute authority. You call the Lord, who dwelt in His original glory, my Lord. Have you accepted me as my God? When you see Him directly, you will know the glory of the Father, experience grace and truth, and know that everything flows from there. Any good deeds, almsgiving, or evangelism done by humans without communication with the Lord of this glory. Even acts of worship will not reach their true purpose. But He suffered for a little while. Now the writer of Hebrews is arguing why the Lord suffered. Look at verse 9. “But we saw him who was made lower than the angels for a little while, Jesus, crowned with glory and honor because of his suffering of death.” Philippians chapter 2 already shows us how the Son of glory was

humbled. “He was in the form of God...but he took on the image of a servant, became man, and became obedient to the point of death, dying on a cross.” Those who do not understand the suffering of the cross cannot see its majesty. Is glory that ignores suffering really the path of truth? As we try to escape suffering, we become more expedient and end up walking our own path instead of walking the path of Christ. Finally, he caused many sons to enter into glory. The apostolic gospel is to know Jesus, the Son in glory, who came to this earth and was crowned with glory through suffering. The purpose of his suffering like this was to lead us, his people, to his glory. (11) How many people are lost because they do not know the true Savior? We who believe in him are already in his rest and in his glory. Dear friends, I hope that your eyes will be brightly opened to see Christ in glory. Under the light of that glory, we see my light and the light of the world, and claim that the grace to leap high like a deer's feet in a troubled world is mine.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수3:1-17) 2004.3.17 (수)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기이한 현상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홍해를 마른땅처럼 통과함은 세례를 받은 것이고, 반석을 쳐 생수를 마심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가리키며, 40년간 광야에 내린 만나나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심을 보여주듯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첫째, 왜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는 사건을 일으키셨나요? 본문은 두 가지 이유를 밝힙니다. (1)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우시는데 있었습니다.

"여호와 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7)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전해진 말대로 되게하셨습니다. 무엇이 있다고 자화 자찬 할 수 없습니다.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권위를 높여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기도함으로 겸손히 이루려고 해야합니다. (2) 이스라엘의 미래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앞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을 모두 이길 수 있음을 보증하셨습니다.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가운데 계시사 ... 너희 앞에서 정녕히 쫓아 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10)고 하셨습니다. 요단강과 같이 넘실대는 가나안 칠족의 큰 세력을 하나님이 친히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가나안 칠족, 즉 최악의 부패성인 욱을 가리킵니다. 마커, 사망, 죄를 홍해라면 요단강은 최악의 생산공장인 욱을 가리키는데 십자가로 이 모두는 정되었습니다. (갈 5:24) 둘째,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졌는가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에 세 가지 요소를 보입니다. (1) 이스라엘의 성결을 통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일에 동참할 이스라엘로 "스스로 성결하라"고 지시합니다.(5) 반드시 거룩한 그릇, 정결한 그릇을 통해 일하시지 더러운 그릇을 쓰지 않으십니다. 죄를 그냥 두시고 마음의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 법케를 2000규빗(약 1Km) 정도 떨어져 따르라는 것도 성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무턱대고 덤비는 일은 위험합니다. (2) 그리고 이스라엘이 말씀 순종할 때 갈라졌습니다. 법케를 멘 제사장의 순종처럼(3,11,14,15,17) 기적을 원한다면 성경으로 돌아가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제사장뿐 아니라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하나되어(3,14,17) 그대로 하는 순종이 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우리의 여호수아, 주님은 이미 우리로 요단강을 모두 건너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도록 마귀를 없이 하시고 모든 방해요인인 정과 욕심을 십자가로 정리하셨습니다. 이제 무수한 작은 요단강에 믿음의 발을 들여놓을 때 갈라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기적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Miracle of the Jordan River splitting (Joshua 3:1-17) 2004.3.17 (Wed)

Miracles in the Bible are more than strange phenomena. Passing through the Red Sea as if it were dry land means being baptized, and hitting the rock and drinking living water indicates salvation gained through faith in Christ. Just as the manna that fell in the wilderness for 40 years and the five loaves and two fish that fed 5,000 people show that Christ is the food of life, the crossing of

the Jordan River shows salvation from sin. First, why did God cause the splitting of the Jordan River? The text reveals two reasons. (1) It was to establish Joshua's authority. "The LORD said to Joshua, "Starting today, I will make you great in the sight of all Israel, so that they will know that I am with you, just as I was with Moses." (7) God made it happen just as the words passed down through Joshua's mouth. is. You can't praise yourself for having something. Neither the one who plants nor the one who waters is anything. Only God, who makes us grow, increases our authority. Therefore, he must humbly seek to accomplish all things through prayer. (2) He guaranteed Israel's future victory. God guaranteed that he could defeat all seven Canaanite tribes in front of him. He said, "By this you will know that the living God is among you... and that He will surely pursue Him before you" (10). This means that God will personally drive out the great power of the seven Canaanite tribes, which are flowing like the Jordan River, and give them their land. The Jordan River refers to the seven tribes of Canaan, that is, the flesh, the worst corruption. If we are talking about marker, death, and sin, the Jordan River refers to the worst production factory, flesh, and all of this is determined by the cross. (Galatians 5:24) Second, how did the Jordan River split? There are three elements to the parting of the Jordan River. (1) Through the sanctification of Israel. God instructs Joshua to "sanctify himself" as the Israelites participate in this work.(5) He must work through holy and clean vessels and not use dirty vessels. We cannot leave sin alone and expect a miracle of the Jordan River in our hearts being split apart. Also, the meaning of holiness is to follow the Dharma Ke from a distance of about 2,000 cubits (about 1 km). It is dangerous to recklessly attack the work of God. (2) And when Israel obeyed the Word, they were divided. Like the obedience of the

priest carrying the robe (3, 11, 14, 15, 17), if you want a miracle, go back to the Bible and apply the words given to you. And a miracle occurred not only through the ancestral rites but also through the obedience of the people. When the church became one and obeyed (3,14,17), the Jordan River split. Our Joshua, the Lord has already helped us all cross the Jordan River. He got rid of the devil so that we could enjoy the blessings of Abraham, and eliminated all hindrances, affection and greed, through the cross. Now, when faith steps into the countless small Jordan River, it is destined to split. I hope you enjoy that miracle with faith.

절대승리의 기념비 (주4:1-24) 2004.3.24 (수)

요단강 도하의 기적은 예비적인 것으로 아직 그들 앞에는 더 강한 무장을 해야 할 많은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길갈에 요 단강 속의 돌들로 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심으로 그 후손에게 승리의 비결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역시 단번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완성하기까지 무수한 싸움을 치러야 하는 것이 우리 구원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념비의 기억" 과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심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홍해를 건너 40년의 메마른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매일 만나가 내려 구름기둥, 불기둥을 좇았고, 법케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은 하나님의 인도를 가르치는데 있습니다. 요단강 저편 너머 서있는 기념비를 보는 사람마다 요단강에 길을 내 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홍해 건넘이 "죄로부터의 구원 이라면, 요단강 건넘은 구원받은 성도가 자라나는 "성화" 곧, 구원에로의 성장을 가리킵니다. 가나안을 얻으려면 요 단강을 건너야하는 것처럼 바른 신앙성장을 하려면 반드시 세례의 의미를 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할 때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아부인과 십자가 지는 것을 가르치는 목표를 향해 인도하심을 알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만을 의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함을 배워야 합니다. (잠3:5-6) 다음에는 여호와와 능하신 손길을 믿게하기 위함입니다. 기념비를 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것이 둘째 목적입니다. 물이 갈라 지고 닫히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18) 그들은 다만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의 자손들이 물어볼 때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하고 현실의 요단강도 하나님이 친히 할 수 있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념비를 세운 목적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은 법케의 움직임에 따라 되었 듯이 말씀을 중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하는 그 순간이 기적의 분기 점임을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발이 물에 잠기고 발이 땅에 닿자마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현실 문제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부르짖는 그 순간에 주님은 일하십니다. 끝으로. 영원토록 여호와만을 경외하려는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의 전능하심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성장이 더 중요합니다. 기념비를 세움으로 경외 신앙만이 생명이고 영원 함을 배우게 하려는데 있었습니다. (24) 일시적인 믿음, 기적적 믿음, 역사적 믿음과 달리 구원하는 믿음만이 영원합니다. 모든 기념비중 기념비 인 십자가를 중심에 둘 때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 살아나신 그리스도안에 서산 소망을 갖게되는 것입니다. 이 기념비를 생각할 때마다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는 자로 살게 됩니다. 절대승리를 보장하는 은혜 주셨음을 믿고 현실적 생각의 패턴을 바꾸 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Monument to Absolute Victory (Note 4:1-24) 2004.3.24 (Wed)

The miracle of crossing the Jordan River was preliminary, and many wars still awaited them, requiring stronger armament. Therefore, God taught his descendants the secret of victory by building a monument at Gilgal using

stones from the Jordan River. We, too, must always wear the full armor of God because our salvation does not end with being recognized as righteous all at once, but requires countless battles to complete it. This is exactly the nature of “memory of monuments.” Why did you build a monument? It is to teach that God Himself guides us. God allowed them to cross the Red Sea, go through 40 years of dry wilderness, have manna fall every day to follow the pillar of cloud and fire, and cross the Jordan River following the Beopke to teach God's guidance. Everyone who looks at the monument standing beyond the Jordan River had to learn that it was God who "made a way through the Jordan River." If crossing the Red Sea was "salvation from sin," crossing the Jordan River was "sanctification" through which saved saints grow, that is, salvation. refers to the growth of Just as you must cross the Jordan River to obtain Canaan, you must apply the meaning of baptism to your life in order to grow properly in your faith. When we remember the death of Christ, we must acknowledge that Christ is alive in us after we die. We must know that He is leading us toward the goal that teaches self-denial and cross-bearing, and we must not rely on our own understanding, but trust only in the Lord and acknowledge Him in all things. (Prov. 3:5-6) Next, the second purpose is to believe that the mighty hand of Jehovah was done by Almighty God. (18) They simply obeyed, so that when their descendants asked, they would remember that God had done it and believe that God himself was able to do the miracle of the dividing of the Jordan River. As it has been said, miracles happen when you focus on the Word, and the moment you obey is the turning point of miracles. As soon as your feet are immersed in the water and your feet touch the ground, miracles occur. The moment we cry out, the Lord works. Lastly, it is important to know God's guidance and His omnipotence,

but it is more important to build a monument to fear God. (24) Unlike temporary faith, miraculous faith, and historical faith, only saving faith is eternal when the cross, the monument of all monuments, is placed at the center. Every time you think of this monument, you will live as a person who serves God with reverence, believing that God has given you the grace that guarantees absolute victory, and change your pattern of realistic thinking. Because you have won everything.

거룩으로 이기는 싸움 (수5:1-15) 2004.3.31(수)

하나님 편은 언제나 준비되었으나 우리편이 항상 문제라는 사실은 신앙 생활에서 쉽게 발견하는 사실입니다. 우리편의 문제는 언제나 "거룩을 유지 함에 놓여있습니다. 히브리어 "카도쉬"란 말인 거룩은 " :...에서 구별되다" 는 뜻입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말과 태도와 일에서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거룩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건넌 다음에도 할례 를 명하심으로서 거룩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비롯한 가나안 7 족속의 왕들을 이기는 힘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을 지키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생소한 말이 아니라 언제나 요구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요셉의 복이 엄청나게 큰 것(신33:32-33)도 거룩한 신앙의 그릇 위에 임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풍성한 은혜는 거룩해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요? 처음 맺은 언약관계를 지킴으로 거룩하게됩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식입니다. 이것이 없는 자는 끊쳐지게 되는 것을 보면 생사를 가늠하는 언약의 표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광 야에서 태어난 2세에게 할례를 베풀므로 이 관계를 기억함이 거룩을 지키 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세례로 완성되었습니다. 9절에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길갈)라는 말이 세례입니다. 한 죄인이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으면 죄에 대해 죽은 자란 뜻이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다는 뜻이고,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롬6:1-4) 거룩은 새로운 무엇을 덧붙이는데 있지 않고 주를 믿음으로 받은 본래의 구원관계를 신실

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기 신분과 자기 특권을 확인하고
 수시로 인정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다음, 영전으로
 얻은 승리 열매를 먹음으로 거룩해집니다. 이스라엘이 40년간 먹은
 만나는 가나안 소산을 먹자마자 즉시 그쳤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
 자기 힘으로 무수한 전쟁의 승리로 얻은 양식을 먹음으로
 거룩해지듯이(10-12) 우리는 매일 매일 작은 영적 싸움의 승리를 통해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 임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이것
 을 묵상하고 주장함으로 우리는 조금 조금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의 군대장관을 따름으로 거룩해집니다. 여호수아 앞에
 서있는 군대장관은 누구인가요? 여호수아가 그에게 하는 것을 보니
 그는 특이한 천사, 곧, 성육신하기 전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여호수아에
 게 먼저 신발을 벗어라 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싸움은 거룩한 전쟁
 이란 말입니다. 모세에게도 가시떨기 불꽃가운데 임하신 주님이 그렇게
 지시한 것과 같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그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입니
 다. 오늘날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의 무리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
 문에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힘씀으로서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
 리는 철저한 회개와 믿음으로 말씀을 먹고 기도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거룩을 힘씀으로서 능력있게 살아갑니다.

The fight to win through holiness (Joshua 5:1-15) 2004.3.31 (Wed)

The fact that God's side is always prepared, but our side is always the problem,
 is a fact we easily discover in our religious lives. The problem on our part

always lies in maintaining holiness. The Hebrew word "kadosh" means "to be set apart from..." Holiness is to be set apart from worldly thoughts, words, attitudes, and works. God, who required holiness even before crossing the Jordan River, prepared for holiness by commanding circumcision even after crossing. The strength to overcome the kings of Jericho and the seven tribes of Canaan depends on how well Israel maintains holiness as God's people. This is because this is not an unfamiliar phrase, but is a law of God that always demands. Just as Joseph's great blessings (Deuteronomy 33:32-33) came upon a vessel of holy faith, the absolute abundant grace of Christ can only be enjoyed by those who are holy. How do we become holy? Circumcision is a sign that Abraham and his descendants are God's people, and it is a sign of the covenant that determines life and death. Therefore, by circumcising the second generation born in the wilderness, we remember this relationship so that the Lord can work today, which is accomplished through baptism. The word "let me go" is baptism. When a sinner believes in Jesus and is baptized, it means that he has died to sin, that he has crucified his affections and desires, and that he has moved to life so that he can live in new life. (Romans 6:1-4) Holiness does not mean adding something new, but faithfully maintaining the original salvation relationship received through faith in the Lord and acknowledging it at all times. Next, it refers to a life lived with devotion. Israel became holy by eating the fruit of victory, which they had eaten for 40 years. After entering Canaan, they won countless wars. Just as we become holy by eating the food we have earned (10-12), we must gain new strength by winning small spiritual battles every day. Waging spiritual warfare is the secret to maintaining a holy life. The full armor of God has already been promised to us. By meditating and insisting on this, we are moving a little

closer to a holy place. We must overcome the constant spiritual war with faith. Lastly, we become holy by following our military commander. Who is the military commander standing in front of Joshua? From what Joshua says to him, we see that he is an unusual angel, the pre-incarnate Christ. He told Joshua to take off his shoes first. The fight that takes place in the future is a holy war. It is the same as the Lord who came to Moses in the midst of a flame of thorns and instructed him to do so. Because if you are not holy, you cannot follow him. Today, because we have entered the group of holiness by believing in Jesus, we become holy by striving to live a life in Jesus. Therefore, we must eat the Word and live a prayer life with thorough repentance and faith. Let us live powerfully by striving for holiness.

나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자(수6:1-21) 2004.4.7(수)

여리고성 전쟁은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 선 최초의 싸움으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전쟁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우리의 영적 전쟁에 계속 적용되어야 할 원리들입니다. 첫째 원리는 하나님의 승리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절대조건은 하나님 이 친히 그들을 붙이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200만이란 구성인원일지라도 무기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오합지졸입니다. 전법도 방어형이 아니고 공격형이기 때문에 취약점이 많았습니다. 성을 한번 돌고 마지막 날에 일곱 번 돌면서 소리치는 것뿐이었기에 도저히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 사람을 모두 죽인 승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 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라는 약속은 손 하나 대지 않고 무너진 것입니다.(20)

여리고성의 전쟁은 우리의 영전을 가리킵니다. 어떤 전쟁이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손에 붙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아무리 원수가 강할지라도 우리의 군대장관,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원리는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에는 거의 다 조건이 따릅니다. 붙이겠다는 약속이 있어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말씀대로 하는 순종행위가 있어야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성 주위를 매일 한번씩 6일간 돌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 돌아 외치면 무너져 내리리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했을 때 그 성은 무너졌습니다(6-19)

"그대로의 순종"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치신 원리였습니다. (수1: 8) 양각 나팔을 제사장이 앞서 불고 나가고 그 뒤를 따르는 언약케를 따라 도는 것입니다. 전법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반격이라도 받으면 어떡합니까? 매우 어리석어 보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 돌고 소리칩니다. 침묵만을 지키고 돌다가 지금은 일곱 번 돌고 나팔소리와 함께 외치라 하면 모두 외치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 "주여!" "그 성은 우리 것이다"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믿음의 언어였을 것입니다. 이런 순종이 있을 때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셋째 원리는 신실되어 끝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끝까지 해야만 합니다.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 돌고 이제 무너진 그 성에 들어가 해야될 일이 있었습니다. (17-19) 라합을 구출하고. 남녀노 유를 다 죽이고, 은금 동철은 하나님의 공간에 들어야합니다. 만약 바쳐진 것을 훔치면 이것은 죽음입니다. 영적 전쟁은 끝까지 신실해야합니다. 일차 승리한 후에 주저 앓고 흠어지면 안됩니다. 승리 후, 축복 후, 은혜 받은 후가 더 중요합니다. 아침에 승리했다면 점심때. 오후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 끝까지 하는 일에 실패하느냐? 완전 승리는 오직 가나안 정복까지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세의 실패의 원인은 영적 비존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영적 전쟁에 이 원리를 적용하십 시오. 승리는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Let's destroy my Jericho wall (Joshua 6:1-21) 2004.4.7 (Wed)

The Battle of Jericho had a very important meaning for the Israelites who crossed the Jordan River. This is because this is the first battle in Canaan and applies to all future wars. In fact, these are principles that must continue to apply to our spiritual warfare. The first principle is to completely trust in God's promise of victory. Israel's enemy. The absolute condition for Israel's victory in the Battle of Jericho is because God Himself promised to support them. Even though they only have 2 million members, they are a ragtag group without even a single proper weapon. Because the strategy was offensive rather than defensive, it had many vulnerabilities. All we had to do was circle the castle once and then seven times on the last day, shouting, so we had no chance of winning. But where did the victory that destroyed the castle and killed all the people of Jericho come from? It was because of God's promise. Looking at verse 2? "The Lord said to Joshua, 'Behold, I have given Jericho into your hand, along with its king and its mighty men.'" The promise was broken without a single hand being lifted.(20) The battle of Jericho will mark our glory. Turn it on. It is true that God has placed it in our hands so that we can win any war without fail. No matter how strong the enemy is, the Lord, our commander in chief, has won. The second principle is to believe in and obey promises. Almost all of the Lord's promises come with conditions. Even if there was a promise to stick to it, Israel still had to show obedience by following the word. In verse 3, God said that God would circle around the city once a day for six days, and on the seventh day, he would circle around it seven times and shout, and it would collapse. When that was done, the city fell (6-19) "Obedience as it is" was the principle taught to Joshua. (Joshua 1: 8) The priest blows the two-horned trumpet ahead of him and goes out, followed by the Covenanters. The tactic seems foolish. But the Lord wanted

this. And what if you get a counterattack? It looks very foolish. On the seventh day, circle seven times and shout. They used to keep silence and go around, but now when I tell them to go around seven times and shout with the sound of a trumpet, they all shout. This cry is "Lord!" I don't know if he said, "The city is ours," but it must have been a language of faith. When there was this kind of obedience, God destroyed Jericho. The third principle is to be faithful and go to the end. The destruction of Jericho must be done until the end. On the seventh day, after circling seven times, there was work to be done by entering the now fallen city. (17-19) Rescue Rahab. All men, women and children must be killed, and silver, gold, copper and iron must be taken into God's treasury. If one steals what has been offered, this is death. Spiritual warfare requires faithfulness until the end. You must not sit down and disperse after winning the first round. What is more important is after victory, after blessing, and after receiving grace. If you win in the morning, at lunch. You may fail in the afternoon. Why do you fail to finish your work? This is because they have forgotten that complete victory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the conquest of Canaan. The reason for the failure of the first generation was that their spiritual vision was clouded. Apply this principle to your current spiritual warfare. Because victory is yours.

여리고성을 다시 쌓지 말자 (수 6:22-27) 2004.4.14(수)

무너진 여리고 성에 이스라엘이 들어가 약속대로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리는 일(22-23). 성안 모든 금은 동철 기구들을 하나님 집 창고에 두는 일(24). 그리고 이 성을 다시 쌓는 자에 대한 여호수아의 경고(26-27)가

본문에 나옵니다. 정말 그 이후. 이스라엘 북 왕국 아합 왕때, 히엘이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다가 장자와 말째가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왕상16: 34) 먼저 알 것은 이 여리고 성이 가리키는 뜻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 나안에 들어가는 길의 첫 성. 여리고의 지리적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 적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길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 모든 이론, 모든 환경, 모든 단체. 모든 나라 등은 다 여리고
 성입니다.(고후10:4-5) 그 중 우리가 진정 싸워야 할 여리고 성은 셋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입니다. 세 상의 죄악된 문화, 문명은 모두 여리고
 성입니다. 자연에 인간의 지혜와 수 고가 들어가 만들어진 문화는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사명이었습니 다. (창1:26-28) 죄가 들어온 후 이
 문화는 세속적이 되어 하나님을 대항 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문화를 거부하고 떠나는 것은 성경 의 가르침이 아니지만 이
 세상을 우리의 본으로 삼는 것은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롬12:1-3) 이것을 이기는 길은 오직 기도와 말씀중심생활을
 통하는 길뿐입니다. 둘째는 마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 너뜨리기
 위하여 우는 사자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와 세상의 모든 공작 을
 만드는 마커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우리의 여리고 성입니다. 매일 들
 러오는 그 속삭임을 물리쳐야합니다. (히3:13) 셋째 여리고 성은
 욕입니다. 세상. 마귀도 우리가 싸울 대상이지만 가장 강한 여리고 성은
 우리 속의 욕입니다. 이것 을 "자아". "욕망". ", "탐욕", "인간의
 부패성"이라 부릅니다. 이 원수는 언제 어디서나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욕과의 싸 움을 중요하게 다루어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리고 성을 쌓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본 문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라처럼 구원받아 구별된 길을 가는 것 입니다. 여리고 성의 라함과 그의 친족들이 두 정탐꾼에게 행한 믿음의 섬김으로 구원을 받듯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을 때 우리는 세상. 마 커, 육에서 구원을 받아 구별된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 길을 계속 가십시오.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집에 바쳐진 삶을 살아야합니다. 헌신입니다.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듯 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의 모두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50가지 목적을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는 여리고 성을 재건 하려는 온갖 유혹에서 넉넉히 구원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걸핏하면 찾아오는 육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늘 구원의 확신 속에 살 아가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성경으로 돌아가 부활생명을 맛보고 속에서 솟아나는 여리고 성 재건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Let's not rebuild the walls of Jericho (Joshua 6:22-27) 2004.4.14 (Wed)

Israel enters the collapsed city of Jericho and saves Rahab and her family as promised (22-23). Putting all the gold, silver, copper and iron utensils in the city into the storehouse of God's house (24). And Joshua's warning to those who rebuild this city (26-27) appears in the text. Really since then. During the reign of King Ahab of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Hiel was rebuilding the old city of Jericho when his eldest and youngest son died. (1 Kings 16: 34) The first thing to know is what this city of Jericho refers to. The first castle on the way to Naan after crossing the Jordan River. More important than

Jericho's geographical location is its spiritual significance. This refers to the way of God's people, that is, everything that opposes God. If you think about it, all thoughts that are against God. Every theory, every environment, every organization. Every nation, etc. is a city of Jericho. (2 Corinthians 10:4-5) Among them, there are three cities of Jericho that we must truly fight against. First is the world. All sinful cultures and civilizations in the world are like Jericho. Culture, created by combining nature with human wisdom and labor, was originally the first mission given to humans. (Genesis 1:26-28) After sin entered this culture, it became secular and became a tool to oppose God. However, rejecting and leaving the culture is not a teaching in the Bible, but taking this world as our example is like rebuilding the walls of Jericho. (Romans 12:1-3) The only way to overcome this is through prayer and a life centered on the Word. . Second is the marker. It is a marker that comes like a roaring lion or an angel of light to destroy our faith and creates all the actions in the world. This is another of our cities of Jericho. We must reject those whispers we hear every day. (Hebrews 3:13) The third city of Jericho is six. world. The devil is also something we fight against, but the strongest city of Jericho is the flesh within us. This is called "ego". "craving". ", "greed," and "human depravity." This enemy follows us anytime and anywhere. Therefore, everyone must take the fight against their own flesh seriously. So how can we escape the temptation of building the walls of Jericho? Text Two things are mentioned: One is to be saved like Ra and to walk a separate path. Just as Rahab and her relatives in the city of Jericho were saved through the service of faith they did to the two spies, when we believe in Christ as our Lord, we are saved from the world. . Mark, we were saved from the flesh and made to walk a separate path. Continue on that path. This is the way to overcome

temptation. The other must live a life devoted to the house of God. It's dedication. Just as everything in Jericho belongs to God, all of us who have been saved by believing in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the Lord belong to God. It also means that Christ, who died for 50 purposes for us, generously saved us from all temptations to rebuild the walls of Jericho. In order to escape the temptations of the flesh that come to us from time to time, we must always live with the assurance of salvation. Like the two disciples on the way to Emmaus, let us return to the Bible, taste the resurrection life, and live a life that overcomes the temptation to rebuild Jericho that arises within us.

아이성의 패배원인 (수7:1-15) 2004.4.21 (수)

성공 원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를 막고, 또 회복하는 원리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기 때문입 니다. 3천명만이 작은 아이성을 치러 갔는데 36명이 죽고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여호수아는 실패의 원인을 알게되었습니다. 왜 여호수 아는 실패했는가요? 첫째, 작은 일에 불충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성을 치러갈 때 방심한 것입 니다. 삼시간에 여리고 성을 멸한 여호수아는 승리에 사로잡혀 문제에 대해 점검하지 않았습니 다. 정탐꾼을 보내어 얻은 정보를 토대로 작전을 세운 것입 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는데 공격 명령을 내린 것(1-2)은 둔한 영적 상 태임을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얼마나 걸맞지 않은 순서입니까? 범죄가 먼저인데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 다. 그는 작은 일이라 하여 하나님 앞에 적극적 태도를 갖지 못하여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5절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고 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실패했는가요? 작은 일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 둘째, 바친 물건에 대해 그른 태도 때문입 니다. 언제나 백전백승 하리라 는 보장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왜 이런 참패를 당했는가요? 그가 지도 자가 된 후, 그런 실패는 처음이었습니다. 바친 물건에 대해 바른 태도를 취하였기 때문입 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에 대해서 범죄 하였으니,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간이란 사람이 시날 산 외투 한 벌, 은

이백 세겔, 금 오십 세겔을 훔치고 자기장막에 두었음을 뵙니다. "물건을 바친 것은 자기 자신도 바친 것이 되니까 하나님의 것" (12)이라 했습니다. 13절에는 이것을 멸하기 전에는 다시 대적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미 주님의 것으로 바쳤습니다. 먹으나 마시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실패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요? 여호수아처럼 하나 님 앞에 물어보아야 합니다.(6) 옷을 찢고 여호와와 케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었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렵니까?"라는 질문에 바친 것을 제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15) 실패한 자리에 있다면 지금 돌이킬 수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살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Cause of Ai's defeat (Joshua 7:1-15) 2004.4.21 (Wed)

Learning the principles of success is important, but it is more important to learn the principles of preventing and recovering from failure. This is because our lives have more failures than successes. Only 3,000 men went to attack the small city of Ai, but they failed and 36 people died. Joshua, who bowed down before God, learned the cause of his failure. Why did Joshua fail? first. Because I was disloyal in small things. I let my guard down when I was going to attack Ai Castle. Joshua, who destroyed Jericho in an instant, was so caught up in victory that he did not check on the problem. The plan was based on information obtained by sending spies. The fact that God was angry and gave the order to attack (1-2) shows that he was in a dull spiritual state. There is no mention of him praying before God. How inappropriate is this order? Crime comes first, but Joshua did not know that. He failed to take a positive attitude toward God because it was a small matter, which led to disastrous results. He says in verse 5, "The hearts of the people melted and became like water."

Why did Joshua fail? Because he ignored the little things. • Second, it is because of the wrong attitude toward the offered items. Why did Joshua suffer such a crushing defeat despite his assurance that he would always win every battle? It was the first such failure since he became leader. Because he had the right attitude toward the offered item. Verse 1 says, "The children of Israel have sinned against the accursed things. Verse 11 says, "Israel has sinned and has not broken my covenant, which I commanded them. They have taken the accursed things, and stolen and defrauded them, and placed them among their own vessels." We see that a man named Achan stole a coat from Shinar, two hundred shekels of silver, and fifty shekels of gold, and placed them in his tent, saying, "When you give something, you give it yourself, so it belongs to

God” (12). Verse 13 says that we cannot overcome the enemy again until we destroy it. We have already dedicated our bodies to the Lord, whether we eat or drink them. We must be proactive in our lives. Then, how can we escape from this failure? We must ask God like Joshua. (6) We tore our clothes and bowed down on the ground with dust on our heads and prayed until evening. When asked, "What will you do for the sake of your great name?", it is said that if you do not take away what you have dedicated, you will never win again. (15) If you are in a position of failure, you can turn around now. Please examine before God where you have fallen. The Lord takes care of everything. Please look at the cross.

승리회복의 은총 (수8:1-29) (The Grace of Recovery) 2004.4.28 (수)

아이성의 첫 번 실패로 의기소침한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아간의 무서운 죄를 아골 골짜기에서 처단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의 진노가 풀리고 회복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두려워말고 놀라지 말라 군사를 거느리고 다 일어나 아이로 돌아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 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네 손에

주었노니"(1)라는 약속대로 12000명의 아이성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아이 왕을 매달리고 그 성은 다 불 타버렸으며 모든 소유물은

이스라엘의 것이 되었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 졌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최선의 작전으로 이겼습니다. 아이성을 치는 전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2) 매복작전, 유인작전,

협공작전으로 무찌른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 성에 비하면 작은 성이지만 지형지물로 싸우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30000명 군사를 먼저 서 쪽에 매복시키고 북쪽 골짜기에 5000명을 숨겨놓고 여호수아는 아이 앞에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다가 숨었습니다.

이것을 본 아이 왕이 성문을 열고 달려왔고 여호수아는 광야로 도망가는 척했습니다. 이때 매복한 군사들이 성에 들어가 불을 질렀습니다.

불타는 성을 돌아 본 아이군사들이 돌아 올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매복조가 나아와 협공작전으로 모두 죽였습니다. 아 . 이 왕은

사로잡히고 군사들은 멸절당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을 그린 그림이라는 말씀을 드렸 습니다. 영적 전쟁 양상은

다양합니다. 여리고를 이기는 법과 아이를 이기 는 법이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은 하나님이 이기도록 약속했을지라도 그의 뜻에 맞는

전법을 가져야하는 것입니다. 전번에는 여리고성을 도는 것으로 했지만
 여기서는 유인작전으로 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영전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것의 승리이나 이것을 삶에 적용하는 지혜는 우
 리에게 절대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 의 뜻에 맞춘 계획을 세우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영전은 하나님이 친 히
 세우시는 권위를 높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이성이 멸하기까지 단창
 으로 아이 성을 가리키게 함은 단창에 무슨 힘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
 직 여호수아를 통해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이고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우 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리키는 지팡이로 바다가 갈라진
 것과 같 고 법케를 멘 사람이 요단강에 들어설 때 갈라진 것과 같습니다.
 모두 다 지도자의 권위를 세우심으로 일하셨습니다. 교회는 아이성을
 멸하고 승리 하는 곳이 되어야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되 영권을
 세우심으로 이 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셋째. 원수를
 철저히 죽이는 싸움이었습니다. 여리고 성도 그러했지만 아이 성 주민은
 모두 죽임을 당했고 짐승들은 그들의 몫이었고 아이 왕은 성밖에
 매달렸습니다. 영전의 원수는 반드시 죽음으로 넘겨야합니다. 자기
 자랑, 자기 탐욕, 자기 교만이 모두 깨어지기 전에는 결코 승리가 회
 복되지 못합니다. 정과 욕심은 반드시 죽어야합니다. 이것이 죽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다 죽이신 사건입니다.

The Grace of Recovery (Wednesday, April 28, 2004)

Israel, discouraged by its first failure at Ai, was given another opportunity. Only after Achan's terrible sin was punished at the Valley of Achor was God's wrath appeased and the grace of restoration given. "Do not be afraid, do not be dismayed. Take all your soldiers with you, and get up and return to Ai. Behold, I have given into your hand the king of Ai, his people, his city, and his land." (1) As promised, 12,000 people from Ai were killed. The king of Ai was hanged, the city was burned down, and all its possessions belonged to Israel. How was the grace of restoration given? first. We won with the best strategy according to God's will. The strategy for attacking Ai is wisdom given by God. (2) This is because we see that they were defeated through ambush operations, decoy operations, and coordinated attacks. Although Ai is a smaller castle than Jericho, it is not easy to fight due to the terrain. So, they first ambushed 30,000 soldiers in the west and hid 5,000 in the northern valley. Joshua appeared to run away before Ai and then hid. When the king of Ai saw this, he opened the city gate and ran, and Joshua pretended to run away into the wilderness. At this time, the ambushed soldiers entered the castle and set it on fire. By the time the soldiers returned from looking at the burning castle, it was already too late. An ambush team came forward and killed them all in a coordinated attack. ah . This king was captured and his soldiers destroyed. We have already told you that this is a picture of our spiritual warfare. There are many different aspects of spiritual warfare. The way to defeat Jericho and the way to defeat Ai are different. However, what they have in common is that even if God has promised to win, we must have a strategy that fits his will. Last time, we decided to go around Jericho, but here we kill them using a decoy operation. In spirituality, the cross and resurrection are the victory over everything, but the wisdom to apply this to life is absolutely necessary for us.

It doesn't happen automatically. Please do your best to make a plan and obey God's will. Second, he worked through the authority established by God. Glory is achieved by exalting the authority established by God Himself. Pointing to Ai with a single spear until Ai is destroyed does not mean that the single spear has any power. It is only through Joshua that the Lord shows that He is working and establishes Joshua's authority. Just as the sea was split when Moses pointed his staff toward the Red Sea, and it was split when the man carrying the robe entered the Jordan River. Everyone worked by establishing leadership authority. The church must become a place where Ai is destroyed and victorious. However, he will definitely win, but he will achieve it by establishing spiritual authority. This is God's law. third. It was a fight to thoroughly kill the enemy. The same was true of Jericho, but all the inhabitants of Ai were killed, the animals were theirs, and the king of Ai was hung outside the city. Yeongjeon's enemies must be put to death. Be proud of yourself. Victory will never be restored until all his self-greed and pride are broken. Affect and greed must die. If this doesn't die, there is no hope. Christ's crucifixion was an event in which he killed all our enemies.

에발산에 쌓은 제단 (수8:30-34) 2004.5.5 (수)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멸한 후, 여호수아가 즉시 에발 산에 제단을 쌓는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모세가 지시한 그 대로 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신27:4-6)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1세들 에게 시내 산에서 가르친 대로 철기를 대지 않고 토단으로 단을 쌓는 것입니다. (출20: 24-25) 3080 피트 높이의 식물이 거의 없는 돌산인 에벨 산의 제 단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최초의 언약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백성과 법은 있고 땅은 없었지만 요단강을 건너 지금은 땅이 주어졌기 때문에 신정통치를 가르치는 의식이 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발 제단은 하나님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계시의 그림인 것입니다 첫째 이것은 제단중심의 삶을 가르칩니다. 에발산에서 한 일은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30-31절을 읽어보면 "토단을 그대로 쌓고 철기를 대지 말라"고 한 것을 통해 주님이 요구하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외식된 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진실한 모습, 세리처럼, 탕자처럼 주님에게 오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로 예배할 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또 번제는 헌신이고 화목제는 감사제입니다. 하나님은 모두 바쳐진 제물을 원하십니다. 일부분이라도 남겨둔다면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스라엘의 승패, 복화, 생사가 "제단"에서의 성공여부에 따라 좌우된 것처럼 우리는 에발 제단의 헌신을 배워야합니다. 다음에 이것은 말씀중심의 삶을 가리킵니다. 에발산 제단을 세운 후에 무엇을 하게했습니까? 32절에 "율법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산에

돌비를 세워 석회를 칠하고 그 위에 613개의 율법을 모두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제단에 임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 앙의 특이한 점입니다. 법케를 중 심하여 에발산. 그리심산에 각각 서게 하여 축복과 저주의 명령에 아멘하라고 하셨음을 보면 기록된 성경을 중 심한 삶이 얼마나 귀한가를 보여줍니다. 특히 33절에 법케를 중 심하여 좌우로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에 서게 한 장면은 법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 씀을 중 심한 것이 사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안의 승리는 오직 성경 중 심한 생활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에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순종중심의 삶을 가리킵니다. 에발 제단과 법케를 중 심하여 양쪽으로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반응 하느냐가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시금석이입니다. 34-35절에 보면, 기록된 말 씀은 전파되어야하고 설명되어야하고 읽어야하고 들려져야만 했습니다. 모세를 인도하던 방식. 여호수아를 인도하던 방식.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방식.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인도하는 방식은 모두 다 같은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순종 만이 우리의 갈 길입니다. 순종에는 기적이 일어나지만 불순종하면 저 주가 따릅니다. 이것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그렇고 정복한 후에도 그러했 습니다. 역시 그리스도인에게도 절대 법칙입니다. 그리스도는 에발산 제단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를 중 심한다는 것은 그를 예배하고 그의 말 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발 제단이 그려 주는 삶의 방식을 배우는 지혜자로 살아갑시다.

Altar built on Mount Ebal (Joshua 8:30-34) 2004.5.5 (Wed)

It was not unexpected that Joshua immediately built an altar on Mount Ebal after destroying the cities of Jericho and Ai. This is because they simply did as Moses instructed just before crossing the Jordan River. (Deuteronomy 27:4-6) As taught on Mt. Sinai to the first generation of Israel who came out of Egypt, the altar is to be built with earthen altars without using iron. (Exodus 20: 24-25)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e altar on Mount Ebal, a rocky mountain 3,080 feet high with little vegetation? In short, this confirms the first covenant God made with Israel. Before, there were people and laws and no land, but now that the Jordan River was crossed, land was given, so it was a ceremony to teach theocratic rule. Therefore, this Ebal Altar is a picture of revelation that specifically shows the Christian life as God's people. First, it teaches an altar-centered life. The work done on Mount Ebal was "building an altar." If you read verses 30-31, you will learn what kind of worship the Lord requires by saying, "Build the earthen foundation as is, and do not use iron tools." He considers hypocrisy an abomination and wants us to come to the Lord in truth, like a tax collector or a prodigal son. He is the one who receives when we worship with the truth. And they offered burnt offerings and peace offerings. Also, the burnt offering is a dedication and the peace offering is a thanksgiving offering. God wants all sacrifices made. If you leave even part of it, they will not accept it. And Israel's victory and defeat. Ventriloquy. Just as life and death depend on success at the "altar," we must learn the devotion of the Ebal Altar. Next, this refers to a life centered on the Word. What were they asked to do after the altar on Mount Ebal was built? Verse 32 says, "Write the law." So, he told them to build a stone monument on a stone mountain, cover it with lime, and write all 613 laws on it. The God who comes to the altar is a

God who speaks. This is what is unique about our faith. Mount Ebal centered around Beopheke. The fact that God had each person stand on Mount Gerizim and say Amen to the commands of blessing and cursing shows how precious a life centered on the written Bible is. In particular, the scene in verse 33 where the people stand half on Mount Gerizim and half on Mount Ebal on either side of the Dharma, shows that the way to live is to center on the word of God, which the Dharma symbolizes. Because victory in Christ is a life centered solely on the Bible, we must give weight to what the Bible says. Lastly, this refers to an obedience-centered life. How you respond to the word of God that fell to Israel standing on either side of the Ebal Altar and the Bekke is the touchstone that determines life, death, misfortune, and misfortune. In verses 34-35, the written word had to be preached, explained, read, and heard. The way Moses was guided. The way Joshua was led. The way Israel was led. And the method of leading Christians is all the same: obedience. Therefore, obedience is our only path. Miracles happen with obedience, but curses follow with disobedience. This was the case during and after the conquest of Canaan. This is also an absolute rule for Christians. Christ is the completion of the altar on Mount Ebal. Centering on Christ means worshiping Him and living a life that obeys His Word. Let us live as wise people who learn the way of life depicted by the Ebal Altar.

기브온 족속의 겸손 (수9:1-27) 2004.5.12 (수)

에발산에서 언약 확인하는 일을 마친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중심부를 향해 진군하게 되었습니다. 기적도 맛보고 실패도 맛보고 회복의 은혜도 맛 보는 등, 승리를 위해 만반의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왕들은 방어태세만을 취하다가 공격태세로 바뀌어졌습니다. 그중 기브온 족속은 자기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교묘한 방법으로 이스라엘과 화 친하게 된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자리 에서도 복음에 바른 반응을 보일 때, 새로운 소망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심판의 두려움이 있어야합니다. 복음에는 구원의 약속만이 아닌 심판의 경고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기브온은 심판의 경고를 듣고 덤덤하지 아니하고 낮은 마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살기 위해 겸손하게 나아갔습니다. "두려움"이란 하나님의 은혜로서 자기를 살피 회개하게되고 더 나아가 자기의 무력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모든 가나안 거민 을 멸하리라(24)"는 소문을 들은 기브온은 두려워하여 지혜로운 방법(?) 으로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잔인하리 만치 남녀노소를 죽인 소문을 들은 기브온은 많은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죽을 힘 다해 싸우는 것 보다 하나님 편으로 무조건 나가게 된. 것입니다. 라합처럼 하나님께 회개한 것입니다. 복음에 들어있는 심판 메시지를 두려워해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에발산의 저주처럼, 요한복음 3:16절의 멸망의 경고를 잘 들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요나의 심판 경고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성처럼, 베드로 설교를 들

은 유대인이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절규를 한 것처럼 주를 향해 마음 문을 활짝 열어 놓아야 소망이 생깁니다. 둘째. 하나님께 완전히 복해야 합니다. 기브온과 약조한 후, 3일만에 거짓이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살기 위해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항복한 것입니다. 죽이든 살리든 그 처분을 하나님에게 맡긴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물고 나무 패는 것으로 만족하고 손을 든 것입니다. 항복하는 마음에는 3가지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 모든 것을 위탁하는 헌신의 마음, 종으로 섬기는 마음이 그것입니다. 영 원히 하나님의 집에 물고 나무 패는 종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부스 러기 은혜라도 좋다는 심정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는 항복을 잘 하면서 주님에게 항복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을 모두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 이 되어야 합니다. 한나처럼 그가 당한 운명 같은 고통에서 하나님께 모 든 것을 위탁하고 부르짖을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브온이 두려움을 갖고 항복하여 위기에서 살아난 것 처럼 복음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에 대한 두려 움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대한 항복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고 자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살리라는 영적원리를 확신합시다,

Humility of the Gibeonites (Joshua 9:1-27) 2004.5.12 (Wed)

After confirming the covenant at Mount Ebal, Israel now marched toward the center of Canaan. Taste miracles, taste failure, taste the grace of recovery, etc. We are fully prepared for victory. When the Canaanite kings heard this news, they changed from a defensive posture to an offensive posture. Among them,

the text states that the Gibeonites used a cunning method to make peace with Israel in order to save their lives. Here, when we respond correctly to the gospel, no matter how hopeless the situation is. You can learn that new hopes begin. How does that happen? First, there must be a fear of judgment. The gospel contains not only the promise of salvation but also a warning of judgment. Gibeon listened to the judge's warning and responded with a humble heart instead of being indifferent. He went out humbly to live. "Fear" is God's grace that causes us to examine ourselves and repent, further acknowledging our own powerlessness and relying only on God. Gibeon, who heard the rumor that "all the inhabitants of Canaan will be destroyed (24)," was afraid and obtained Joshua's permission through a wise method. Gibeon must have been very conflicted after hearing the rumor that they had brutally killed men, women, and children in Jericho and Ai. However, because of the fear of judgment, rather than fighting with all my might, I decided to take God's side unconditionally. It will. Like Rahab, she repented to God. There is hope only when we fear the judgment message contained in the gospel. Like the curse of Mount Ebal, there is hope when we listen carefully to the warning of destruction in John 3:16. Just like the city of Nineveh repented after hearing Jonah's warning of judgment, and like the Jews who heard Peter's sermon and cried out, "What shall we do?" we must open our hearts wide to the Lord to have hope. second. We must completely bless God. After making a pact with Gibeon, it was revealed that it was a lie just three days later. I gave up all my pride and surrendered in order to survive. Whether to kill or save, the decision is left to God. He was satisfied with eating and chopping wood in the house of the Lord and raised his hand. Surrendering involves three elements: A humble heart. It is the heart of devotion that entrusts everything,

the heart of serving as a servant. I wanted to be a servant in God's house and chopper for eternity. I feel like even a crumb of grace is good. The problem is that we are good at surrendering to other things but not surrendering to the Lord. You must become a person who entrusts everything from small to large to the Lord and prays. This is because, like Hannah, a new history begins when she entrusts everything to God and cries out to Him in the fateful pain she suffered. Today, we must have the right attitude toward the gospel, just as Gibeon survived the crisis by surrendering with fear. We need to learn to fear judgment and surrender to God. Let us be convinced of the spiritual principle that he who seeks to save his life will lose it, but he who gives his life for the Lord will live.

한번의 죄를 두려워하는 가정(행6:3-12) 2004.5.16 (주)

본문은 바른 교훈(복음)을 어지럽히고 가시와 엉킴을 내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지적하면서, 가장 복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1-12절에는 이것을 부지런하여 소망의 풍성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 속을 기업으로 받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한번의 선택, 한 번의 행동. 한번의 말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한번"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한번의 죄악이 왜 그렇게 심각한 것인가요? 첫째, 회개할 수 없는 자리에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6절에는 한 번의 범죄로 복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음을 여러 각도로 보여줍니다. 한번의 성령의 비. 한번의 은사를 맛봄. 한번의 성령에 참여함(고전12:13). 한번 선한 말씀을 맛, 그리고 한번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 롭게 할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타락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다른 하나는 진정한 회개는 내게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받은 구원을 감사하시고 그 구원을 잃지 않으려는 자세를 가지 시며 한번 넘어 짐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죄를 두려 워하는 성도가 되어야합니다. 둘째, 불심판에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타락이 불심판의 비참한 자리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한가지 작은 죄를 두려워하고 온전한 자리에 나가기 위해 흠족한 은혜의 단비를 사모해야 합니다. 7-8절에 보면 이 문제를 열매맺는 나무로 비유합니다. 자주 내리는 비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며, 토양은 믿는 자의 마음이며, 합당한 태도란 삶을 가리키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요15:1-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한번의 악한 생각을 두려워하며, 한번의 실족한 행동을 두려워해야 하며, 한번의 죄된 결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가롯유다는 한 여인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섬김을 보고 비난하다가 그 꼴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자기를 위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한번의 결정적 실수가 있었어도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셋째. 상급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의 타락. 한가지 죄악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회개하지 못하면 불 심판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의 죄로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철저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구제. 금식, 기도는 모두 인간본위였기 때문에 "자기 상"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9-12절에 사도의 소원을 보여줍니다. 히브리교인들에게 구원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완성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행위. 사랑, 섬김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고 합니다(6:10). 그러면서 부지런하고, 소망에 풍성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가정에 한번의 중요성이 무시되기 쉽습니다. 한번의 타락이 불회개. 불심판. 무상급을 가져오는 것을 기억하고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 한 가지 죄를 두려워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Families who are afraid of one sin (Acts 6:3-12) 2004.5.16 (Note)

The text points out how miserable it is to live a religious life that disturbs the correct doctrine (gospel) and produces thorns and thistles. It shows the most blessed life of faith. Verses 11-12 say that this is a life that inherits the promise through diligence, abundance of hope, faith, and patience. This is all one choice, one action. Since it starts with one word, you have to pay attention to “one” and “once.” Why is one sin so serious? first. This is because you may end up in a position where you cannot repent. Verses 3-6 show from several angles that one sin can result in the loss of all blessings. One rain of the Holy Spirit. Taste the gift once. Participating in the Holy Spirit once (1 Corinthians 12:13). This is because we firmly say that those who have once tasted the good word and once tasted the power of the next life can never be renewed again. This asks us to do two things. One is the fear of corruption, and the other is the fact that true repentance is not within me, but only through the grace of God. You must be thankful for the salvation you have received, have an attitude of not wanting to lose that salvation, and become saints who are afraid of sin with a sense of urgency that one fall can ruin you. Second, because you can go to trial by fire. We must be afraid of a single sin because one fall can lead us to the miserable place of judgment by fire. We must be afraid of one small sin and long for the sweet rain of grace to come to a perfect place. In verses 7-8, this problem is likened to a tree bearing fruit. The frequent rain indicates the grace of God, and the soil is the heart of the believer. It is said that a proper attitude refers to a life that produces thorns and thistles, and the end result is burning. Therefore, we must be afraid of being fruitless and afraid of not having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John 15:1-5)) Dear friends, you must be afraid of one evil thought, one wrong action,

and one wrong action. We must beware of sinful decisions. Judas Iscariot was like that when he criticized the service of breaking a woman's alabaster jar of ointment. It seemed like it was for her son's sake, but in reality, it was for his own benefit. However, even though Peter made one critical mistake, he became a useful person. third. Because you may lose your reward. One fall. The reason we need to be afraid of one sin is because if we do not repent, we may face judgment by fire. The Bible warns us thoroughly because one sin can cause us to forget our eternal reward. Salvation of the Pharisees. Since fasting and prayer were all human-based, they had already received their "reward." So verses 9-12 show the apostle's wish. It tells the Hebrews that salvation is near. It means that it is moving toward completion. Act. It is said that God does not forget love and service (6:10). And at the same time, be diligent. It tells us to be rich in hope, to inherit faith, patience, and promise. It's easy to ignore the importance of a once-in-a-lifetime home. One fall is unrepentance. Fire trial. I pray that you will become a family that remembers to bring free wages and is afraid of one sin in order to enter the place of complete salvation.

태양이 머무는 기적(수10:1-14) 2004.5.26 (수)

하나님의 공화를 받은 기브온 족속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은 정말 복된 일이지만 그 땅을 뺏긴 아모리 왕들의 공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모리 5개 연합군의 공격의 위협을 알아차린 기브온은 여호수아의 도움을 구하여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영전의 성격과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었나요? 본문에는 세 부류의 승리를 보입니다. 첫째, 여호수아를 통해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8-10절에 보면 밤새도록 적진을 향해 올라간 그들은 연합군의 공격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붙이셨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기신 것처럼 신자는 모든 싸움에 이기기로 약속되었습니다. 둘째, 여호와께서 우박을 보내어 도륙하여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큰 우박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칼로 죽인 수보다 더 많은 수가 죽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만이 친히 싸우신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인 것입니다. (11절) 예수님의 치료하신 기적은 복음 증거를 위해 필요 적절한 역사였듯이 사도들처럼 우리들의 섬김에도 이런 기적을 약속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 태양을 머물게 함으로 이긴 모습입니다. 12-13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명령으로 바꾸어졌습니다. 뽀아 웅에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원수를 멸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때 주님은 친히 일하십니다. 홍해도하, 요단강 도하. 여리고성 점령은 모두 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고 이긴 사건이었습니다. 왜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영적 권위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쟁에 친히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수종드는 일을 통해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영전 치르는 여러 양상을 잘 알고 그것에 응답하는 지혜자가 되기 바랍니다.

개인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길 수 있었나요? 본문에 보이는 두 가지는, 첫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을 존중했습니다. 비록 기브온이 부족하였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을 하나님 백성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자기 손에 붙이시는 약속을 믿고 나간 것입니다. 최소한 말씀이라도 믿고 나가면 주님은 반드시 이기게하십니다. 둘째. 기도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먼저 간 구하다가 해와 달을 향하여 명령하기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 말과 아울러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 자연법칙을 멈추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합니다. 그리스도안에 풍성한 것을 받은 우리들은 믿음의 기도로서 쾡나무와 산 같은 문제(눅17:6, 마17:20)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Miracle of the sun remaining (Joshua 10:1-14) 2004.5.26 (Wed)

It was truly a blessing for the Gibeonites, who received God's mercy, to enter the ranks of salvation, but they could not avoid the attacks of the Amorite kings who took over their land. Recognizing the threat of an attack by the five allied armies of the Amorites, Gibeon sought Joshua's help and achieved a great victory. Here we can learn the character and method of overcoming evil with good. What kind of fight was it? The text shows three types of victory. First, it shows victory through Joshua. In verses 8-10, they go up against the

enemy camp all night and overcome the allied attack. We won because God gave us. Believers are promised to win every battle, just as God won through Joshua. second. This is the image of Jehovah winning by sending hail and slaughtering the people. It was God who sent the large hail, and by causing more people to die than the number killed with the sword, this showed the supernatural work that only God personally fought. (Verse 11) Just as Jesus' miracle of healing was a necessary and appropriate work for the testimony of the gospel, we must believe that, like the apostles, He promised such miracles for our service as well. third. It looks like they won by letting the sun stay. In verses 12-13, Joshua's plea to God was transformed into a command to stop the sun and moon. He helped us destroy all our enemies from Beth-aven to Azekah. When we believe and obey the words of the Lord, the Lord Himself works. Hong Haedoha, crossing the Jordan River. The capture of Jericho was an event that God personally fought and won when everyone walked out in faith. Why did you use these different methods to win? This is because God himself wanted to establish spiritual authority. Although it is God who personally fights all wars, he allows us to enjoy the glory of victory through the work of serving him. I hope that you will become a wise person who knows the various aspects of the battle and responds to them. May we arm ourselves with the full armor of God every day to protect our personal faith. And how did you win? Two things are visible in the text: first. I was able to win when I believed in the Word and went forward. He respected God's permission. Even though Gibeon was lacking, Joshua recognized them as members of God's people and believed in the promise to hand them over to him and went out. If you at least believe in the Word and go forward, the Lord will definitely give you victory. second. We won through the power of prayer.

After first praying, he commanded the sun and the moon to “stop.” With those words, an unprecedented event occurred in which the sun and the moon stopped. • God’s love for saving his people even stopping the laws of nature. We who have received the abundance in Christ can solve problems like the sycamore tree and the mountain (Luke 17:6, Matthew 17:20) through prayer of faith.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수10:28-43) 2004.6.2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으로서(30.32) 가나안땅을 단 번에 취할 수 있었던 것은(42) 우리 대신 고난 당하여 죄와 사망을 멸 하시고 참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의 그림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대속의 죽음임을 믿는 자는 어떤 승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첫째. 원수 마커가 멸하였기에 영적 평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자세히 보면 5개 연합군의 왕들을 먼저 죽이는 사건이 일 어납니다. 우두머리를 먼저 멸절시킨 후에 다른 일을 서서히 정리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할 일입니다. 다섯 왕은 어떻게 죽음을 당했습니까? 살기위해 막게다 굴에 피신한 것이 죽는 길이었습니 다. 그들이 제 껍에 넘어갔듯이 그리스도는 사망 으로 사망을 없이 하셨습니다. 막게다 굴에서 끌어내 군장들로 그들의 목을 밟게 함으로서 절대승리의 확신을 안겨주었습니다. 주님의 승천하심으로서 마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철저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창세기 3:15절의 예언대로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롬16:20)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승리가 우리 것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것을 산 것처럼 취급하고 인정하면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자리를 내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과거의 문제, 현재의 죄 책감, 현재의 정은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 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로 알고, 간주하고, 헌신할 때 그 승리가 실제로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몰려오는 제일 큰 유혹인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적 평안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둘째. 남은 모든 원수들을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5왕을 죽인 후, 즉시 진군하여 남은 원수들을 모두 진멸시켰습니다. 가테스바네아에서 가사, 고센에서 기브온까지, 립니. 라 기스, 호람, 에글론, 헤브론, 드빌성을 모두 점령했습니다. 어떻게 남은 원수들을 이겼습니까? (1) 남은 전쟁도 쉽게 생각지 않고 여 호수아가 친히 앞장섰습니다. (2) 모두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이 끝 날 때까지 온 이스라엘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3) 모두 진멸시켰습니 다. 어느 하나라도 세속적인 것은 철저히 파했습니다. (4) 단번에 취 했습니다. 나에게 남은 원수인 악독, 노함. 분노. 떠드는 것, 훼방. 악의, 더러운 말(엡4:29-32)이 발견될 때마다 즉시 죽음으로 넘겨야 합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정복을 했다면 참 여호수아이신 우리 주님은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게 하셔서 참된 평안을 주셨고. 그를 영원히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God who fights on your behalf (Joshua 10:28-43) 2004.6.2

The fact that Israel was able to take the land of Canaan at once because God fought on their behalf (30.32) (42) shows the picture of Christ who suffered on our behalf, destroyed sin and death, and gave us true freedom. What victory can we expect from those who believe in the Lord's atoning death for us? first. Now that the enemy marker has been destroyed, he can expect spiritual peace. If you look closely at the text, an incident occurs in which the kings of the five allied powers are killed first. Exterminating the leader first and then gradually settling other matters is something that must be addressed in spiritual warfare as well. How did the five kings die? Taking refuge in a cave to survive was the way to die. Just as they were deceived by their own

devices, Christ abolished death through death. By dragging them out of their caves and having military commanders step on their necks, he was assured of absolute victory. With the Lord's ascension into heaven, the marker suffered a thorough death through Christ's death on the cross. As prophesied in Genesis 3:15, we can be confident that "the God of peace will soon crush Satan under your feet" (Romans 16:20). We must claim that all victory is ours through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Christ. However, if you treat and acknowledge something that is already dead as if it is alive, you end up giving it its place as if it is truly alive. Past problems, present guilt, and present emotions must all be believed to have died with Christ. Therefore, we know and regard ourselves as resurrected in Christ. When you commit, that victory can actually be yours. Thank you for putting to death on the cross our affections and greed, the greatest temptations that come before us. When that happens, spiritual peace will follow.

second. We can believe and praise that we can overcome all remaining enemies. After Joshua killed the five kings, he immediately marched out and destroyed all of his remaining enemies. From Kadeshbarnea to Gaza, from Goshen to Gibeon, to Libni. Lachish, Horem, Eglon, Hebron, and Debir were all captured. How did you overcome the remaining enemies?

(1) Without thinking that the remaining war would be easy, Joshua personally took the lead. (2) Everyone went to war. All Israel walked together until the war ended. (3) They were all completely destroyed. Every single thing that is worldly has been completely destroyed. (4) I got drunk right away. My remaining enemies are spite and anger. anger. Talking, slandering. Whenever malice or foul language (Ephesians 4:29-32) is discovered, it must be immediately put to death. If Joshua also believed in God and conquered

Canaan, our Lord, who is the true Joshua, gave us true peace by enabling us to overcome anything. He gave him praise forever. Hallelujah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수11:12-23) 2004.69 (수)

계속되는 가나안전쟁의 모든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안겨졌습니다. 요단동쪽 연합군 시혼과 옥, 여리고와 아이성. 요단서쪽 북부와 남부 연합군. 총 31왕을 죽였고. 기업지가 지파 별로 분배되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명을 받은 우리는 또다시 귀한 영적 교훈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전은 정말 치열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1장만 보더 라도 바다 모래같이 많은 연합군이 진치는 메롬 물가를 습격하여 말발 목 힘줄을 끊고, 한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인 것을 보면. 얼마나 치열한 전쟁인지 알 수 있습니다.(8) 호흡이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 하였고(12), 하솔왕, 야빈을 불사르고 가나안 족을 다 죽인 것을 보면 (12-13) 얼마나 치열한 전쟁임을 짐작합니다. 6.25 한국동란이나 1. 2차 세계대전(5600만 이상이 죽음). 월남전, 이라크 전처럼 정말 참혹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비참한 전쟁을 허락하셨는가요? 그 이유는 하나 님의 의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쉬운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행위이기에 최대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탄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은 이보다 더 치열한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 중에 가장 치열한 싸움은 "자기와 의 싸움"입니다. "영이나 육이나"."자기나 하나님이나"의 싸움은 모든 싸움의 최고 최대의 싸움이기 때문에 바울처럼 영전의식가운데 살아가야만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지역에 효과적인 선교의 문이 열렸다 할지라도 방심하지 않았습니 다. 그를 대적하는 심각한 원수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전16:9)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최상의 승리방법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

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아라"고 할 정도로 생사화복 을
가능하는 전쟁의식 속에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는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을 배웁니다. 이 치열한 싸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셨습니다. "너희 손에 붙이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전 승리도 단지 그리스도께서
함께함으로 되는 것이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 제나 이깁니다.(고전15:57. 롬8:37) 우리를
대적하고 정죄하고 송 사할 자가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건은 "임마누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것 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순간순 간 영전을 이김으로 얻는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 양합시다. 할렐루야!

“The war ceased in the land” (Joshua 11:12-23) 2004.69 (Wed)

All victories in the ongoing Canaan War were given to Israel. Sihon, Og, Jericho, and Ai allied forces east of Yordan. Northern and southern Union forces west of Jordan. A total of 31 kings were killed. Enterprise land was distributed by tribe. We who have been commanded to fight the good fight of faith can once again be assured of valuable spiritual lessons. You can see that our battle for glory is truly fierce. If you look at Chapter 11, you can see that the Allied forces, as numerous as the sand of the sea, attacked the shores of Merom where they were encamped, cut off the tendons in the horses' ankles,

and killed every single one of them. We can see how fierce the war was. (8) Not a soul alive was left behind (12), and when we look at the fact that King Hazor and Jabin were burned and all the Canaanites were killed (12-13), we can guess how fierce the war was. . 6.25 Korean War or 1. World War II (more than 56 million people died). It was really harsh, like the Vietnam War and the Iraq War. Why did God allow this miserable war? The reason was to establish God's righteousness. Therefore, this is not an unfortunate judgment, but an act that goes against the will of God, so it is the greatest judgment. Fight against Satan. Fight against the world. The Bible teaches that the fight against oneself is more fierce than this. The fiercest battle among them is the "fight with oneself." The battle between "spirit or flesh" or "self or God" is the greatest battle of all battles, so like Paul, we must live in a spiritual consciousness. Paul did not let down his guard even though the door to effective missions had opened in the Ephesus area. Because he knew that there were serious enemies opposing him. (1 Corinthians 16:9) Because he knew that his best way to victory was to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They lived in a sense of war, weighing life and death and misfortune to the extent of saying, "Cursed be anyone who does not love the Lord." And we learn that victory belongs only to the Lord. In this fierce battle, God fought on behalf of Israel. God's promise to "deliver it into your hands" has been fulfilled. Our eternal victory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Christ being with us, there is no other way. We always win because Christ gives us the victory. (1 Corinthians 15:57; Romans 8:37) The reason there is no one to oppose, condemn, or accuse us is because no one can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in Christ. Please believe this and praise it. Therefore, our key is to be conscious of "Immanuel." This is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It is putting on the full armor of God. Let us praise

God for allowing us to enjoy the freedom and rest that comes from winning the battle moment by moment. Hallelujah!

그리스도안에 있는 나의 기업(수12:1-24) 2004.6.16(수)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땅을 분배한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중보의 역할을 감당한 인물로서 그리스도를 생각해 합니다.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신 것은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룬 구원과 그로 인해 주어진 죄 사함과 장차 받을 하늘 상급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안의 기업이란 무엇이며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심을 알아야합니다. 6-7절에. "그 땅을... 기업으로" 준 것을 보면, 기업이란 그들의 생존 터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에는 흠어진 땅을 모두 제 자리로 돌려 놓아야하며 무슨 일이 생겨도 결코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나봇은 조상의 기업인 포도원을 포기하지 않다가 아합의 손에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복음시대에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안에 있는 덕분에 풍성한 기업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기업을 가리켜 풍성한 영광이며(엡1:18).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이 마음에 보내어졌다고 했으며(엡1:14). 또, 하늘에 준비된 장래 기업(행26: 18)을 말씀과 믿음으로(행20:32) 받을 뿐 아니라 현재에도 그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롬8:17)고 확신했습니다. 요약하면 우리에게 미래의 상급을 기업으로 약속하시고 현재의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심인데 바로 삼위 하나님이 기업의 중심이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영원한 나의 기업이 하나님 자신이란 사실에 얼마나 실 감하십니까? 미래적인 것이지만 현재에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성령충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고 하면서 그 은혜가운데 가정과

직장생활을 하라고 권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미래의 기업을 인정하며 현재의 성령 충만을 힘씀으로 기업을 누리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안에 거하기를 힘씀으로서만 이 기업을 누릴 수 있 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은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동편의 두 왕과 서편의 31왕을 모두 죽이고 차지한 기업지로서 준 것은 현재 주어진 땅을 잘 관리함으로 그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안에 거하는 삶이 일종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보입니다. 주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자체가 영적 싸움이란 것이지요. (요15:5 그것이 기업을 누리는 것입니다. 3가지를 힘써야합니다. 첫째,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해야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 로 받은 영생을 누리는 생활, 그리스도를 아는 생활을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밝아지고, 희생과 고생이 되어도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한 것은 고로운 생활이 아니라 도리어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증거입니다. 둘째, 받은 은사를 활용해야합니다. 은사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기에 그것으로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합니 다. 내게 주어진 은사가 가르치는 일, 기도하는 일, 섬기는 일, 위로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힘쓸 때 기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 의 의를 세워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의가 기둥이어야 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이 많은 오늘날, 우리는 자기 이념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뜻을 꺾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기업의 소망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My inheritance in Christ (Joshua 12:1-24) 2004.6.16 (Wed)

Moses and Joshua, who conquered the land of Canaan and distributed the land, remind us of Christ as figures who played the role of mediator connecting Israel and God. The giving of the land as their inheritance refers to the salvation achieved once and for all by Christ, the forgiveness of sins given through it, and the heavenly reward they will receive in the future. What actually is our inheritance in Christ and how can we enjoy its blessings? First, we must know that God is our inheritance. In verses 6-7. Considering that “the land... was given as a company,” we can say that the company is their base for survival. So, during the Jubilee, all the land that had been lost had to be returned to its original place, and no matter what happened, it could never be handed over to someone else. Naboth refused to give up his ancestor's vineyard and was even killed by Ahab. We who live in the gospel age have received a rich inheritance by virtue of being in Christ. Paul refers to this inheritance as rich glory (Ephesians 1:18). He said that the Holy Spirit was sent into the heart as a pledge of the inheritance (Ephesians 1:14). Also, I was convinced that I had become an heir of God (Rom. 8:17), not only receiving the future inheritance prepared in heaven (Acts 26:18) through word and faith (Acts 20:32), but also enjoying it in the present. In summary, God promises us a future reward as an inheritance and sends the Holy Spirit into our hearts as a present guarantee, and the Trinity is the center of the inheritance. How much do you realize now that your eternal inheritance is God Himself? Although it is future, the inheritance can be enjoyed in the present, and this refers to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So, Paul advises,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to live your home and work life in the midst of that grace. This is the life of enjoying your inheritance. By recognizing this amazing future inheritance

and making an effort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n the present, you can live your life enjoying your inheritance. Please live, and the fact is that you can enjoy this inheritance only by striving to live in Christ. The land of Canaan was taken from the enemies and given to you as an inheritance. This shows that living in Christ and living in His love is a kind of spiritual battle. (John 15:5 That is enjoying the inheritance. You must strive for three things. First. You must reign in life. Strive to live a life of enjoying eternal life received through faith in Christ and a life of knowing Christ. At that time, Second, the fact that Paul said, "I die every day" is not a noble life, but rather a proof of reigning in life. Second, we must use the gifts we have received. Since it is given to everyone, we must please our master with it. If the gift given to us is teaching, praying, serving, or comforting, then we can enjoy our inheritance by doing our best in it. The church is the house of God, and righteousness must be the pillar. In today's world where there are many teachings of demons, we are not people who use the church to achieve our own ideology. This is a person who overcomes and sacrifices himself to fulfill the will of the Lord. This is where the hope and joy of the company are overflowing.

갈렙의 신앙(수14:1-15) 2004.6.30 (수)

갈렙이란 인물을 생각할때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신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배웁니다. 본문 은 엘르아살, 여호수아, 지파 족장들이 9.5지파에게 서쪽기업을 분배함 (1-5)과 모세가 2.5지파에게 동편 기업을 제비뽑아 나누어준 것(6-15)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다지파의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요청하고 정복 한 사실이 기록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실한 인물, 갈렙을 만나면서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신실함을 생각하게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렙의 신앙은 어떠한하였습니까? 첫째, 그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45년 전에 가나안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 성실한 보고를 한 일

있던(민13:6,16,30.14:6-9) 갈렙은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변함없이 성실한 태도를 지켰습니다. 7절에 보면 "내 마음에 성실한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my conviction)라는 그때의 상황처럼 여전히 주님을 향한 헌신이 변함이 없는 그를 봅니다. 이것은 현실 에다 믿음을 더한 보고였습니다. 다들 죽는다고 불평하는데도 그는 "하나 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 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의 신실함을 하나님은 "온전히 좇는 믿음"이란 말로 표현했습니다. 8-9절에 "온전히 좇았으므로"란 말은 wholeheartedly 란 말인데 모든 마음을 동원하여 좇았다는 말입니다.(롬12:1-2 산제물)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전심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 신실한 믿음입니다. 왜 신실한 믿음이 귀한가요? 그것만이 약속을 받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있다면

결코 기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틈이 없는 연합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신실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며 그와 연합된
 표현입니다. 선한양심, 거짓없는 믿음, 깨끗한 마음의 연합이기 때
 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생명의 삶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신실한 믿음입니다. 둘째.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데스 바 네아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은 45년이 지난 후에도 기억하고 주장하는 갈렙 을 봅니다.
 "네가 밟는 곳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9)는 한 마디의 약속에 목숨을
 걸고 45년간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였지만 갈렙 은
 평범한 사람으로 조용히 주님을 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준비했
 습니다. 자기의 믿음, 자기의 건강도 이 때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또 그는
 그것을 강청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낙의 높은 고지를
 구한 것입니다. 약속은 믿고 주장하는 자의 것입니다. 민23: 19처럼
 하나님은 식 언치 앓으시고 후회치 앓으시는 분이심을 믿고 강청하는
 기도올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째. 그는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 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여호수아에게 와 서 요청했고 축복을 받으면서
 나갔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백을 남겨
 두었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 하 나님을 모신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함이 오래가며 영원합니 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거기에 성령충만함이 계속될
 것입니다. 신실한 자로 살아갑시다

유다지파가 받은 기업 (수15:1-63) 2004.7.7(수)

여호수아 15장은 유다 지파가 제비뽑아 얻은 땅의 동서남북 경선을 보여줍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 큰 땅을 받았음도 불구하고 여부스민족을 쫓아내지 못하여 훗날의 영적 타락의 울무가 되기도 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남 왕국의 주축을 이룬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진 지파로서 그리스도가 오신 조상이기에 우리의 주목을 니다. 그 지파의 기업 확장에 갈렙과 그의 가정이 쓰임받은 것은 그리스도인 승리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고원리 와 간청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이론이 아니고 실용이며, 추상이 아니라 실제적 적용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수고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어느 날인가 한국교계에 담임목사세습제를 반대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나쁘게 보면 배가 아파서 그럴 수 있고, 좋게 보면 쉽게 얻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뺀 불공평 때문에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반드시 진실한 땀과 힘과 피가 들어가야한 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자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유다 지파가 기업을 크게 얻은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수 고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싸웠고 더 좋은 기업을 얻기위해 피 흘리는 전 쟁을 치르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나온 바울의 동역자들은 모두 다 수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모데 는 한 뜻을 가지고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연단을 받아 주의 일을 위하여 전심으로 수고한 사람입니다. 디도는 "나의 형제". "군사".. "돕는 자"로서 자기 가 병든 것이 교인들에게 알려질까봐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부모의 심정으로 노심초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리는 바울을 위해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으려 했습니다. 이런 수고의 원리를 통해 그 리스도안의 기업이 현실에서 누려지기에 절실한 것입니다. 둘째. 간청의 원리입니다. 제비 뽑아 자기 기업을 차지했어도 그 안에서 간청하는 사람에게 기업이 주어졌습니다. 간청이란 사모심의 표현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려는 순수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만족하려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강청의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벧됨을 인하여서는 들어주지 않지만 강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좋고 그 분이 주시는 은혜가 좋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갈렙의 딸, 악사가 출가할 때 자기에게 돌아올 기업을 구했습니다. 욕심의 동기라기보다 자기도 그 기업지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모심의 발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이 그에게 주어졌는가요? 아버지의 신앙이 전수된 것입니다. 갈렙이 45년간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신실히 섬긴 것을 보고 자란 것이 지금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는 간청으로 남방 윗 샘과 아랫 샘을 얻었습니다. (18-19) 더욱이 웃니엘은 기랴세벨을 차지하여 악사를 아내로 맞고 초대 사사로 하나님 나라에 기여했습니다. 그리스도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기업을 내게 달라고 간청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녀, 경제를 기도로 일구는 사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은 대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Inheritance received by the Tribe of Judah (Joshua 15:1-63) 2004.7.7 (Wed)

Joshua 15 shows the north, south, east and west boundaries of the land that the tribe of Judah received by lot. Although they were given a large amount of land compared to other tribes, they were unable to drive out the Jebusites, which became a trap for future spiritual corruption. The tribe of Judah receives our attention because it is a legitimate tribe of Israel that formed the main axis of the southern kingdom and is the ancestor from whom Christ came. From the fact that Caleb and his family were used in the expansion of the tribe's enterprise, we can learn two principles of a Christian life of victory. This is the principle of toil and petition. This is because faith is not theoretical but practical, not abstract but practical application. first. The principle of hard work is needed. One day, opposition to the hereditary succession system for senior pastors arose in the Korean church community. On the bad side, it can be because of a stomach ache, and on the good side, it can be because they don't like to get things easily. It is not beautiful because it is unfair and excludes the truth. Serving the Lord must require sincere sweat, strength, and blood. Because only those who deny themselves and take up their cross can follow the Lord. The fact that the tribe of Judah gained great company did not happen by itself, but because they put in more effort. They fought and had to go through bloody wars to get a better company. All of Paul's co-workers mentioned in Philippians were people of hard work. Timothy was a single-minded, sincere thinker, a disciplined man who worked wholeheartedly for the Lord's work. Dido is "my brother". "Military". . As a "helper," he was very afraid that his church members would find out that he was sick. And Paul himself was a man who was anxious and worried, just like his parents. Priscilla and Aquili were even willing to sacrifice their necks for Paul. This principle of hard work is desperately needed for the company in Christ to be

enjoyed in reality. second. This is the principle of supplication. Even if the inheritance was given by lot, it was given to the one who asked for it. Petition is an expression of longing and an expression of pure faith that seeks to be satisfied with what God has given. It refers to the heart that seeks to be satisfied with what comes from God. That's why the Lord likes "prayer of the lectern." Because they are friends, they will not listen to you, but because you insist, they will give you what you need. God, Jesus. Because the Holy Spirit is good and the grace He gives is good. Caleb's daughter in the text. When the musician became a monk, he sought an inheritance that would return to him. Rather than being motivated by greed, it can be seen as an act of love that makes oneself want to join and work for that company. How was this faith given to him? My father's faith was passed down to me. The growth of seeing Caleb serve God and His promises faithfully for 45 years is now bearing fruit. By his supplication he obtained the upper and lower springs of the south. (18-19) Moreover, Othniel took possession of Sepher, took Achsa as his wife, and contributed to the kingdom of God as the first judge. May you have the faith to ask me to give you the inheritance promised to us in Christ. Become a child who prays, a person who cultivates the economy through prayer, and a person who prays for workers to be sent for the harvest. Please open your mouth wide. The Lord fills us. This is faith. You will meet the Lord who works as you believe.

기업을 개척하라(수16:1-17:18) 2004.7.14 (수)

여호수아 16, 17장은 요셉자손의 기업(16:14,17:14-18) 즉, 에브라임 지파(6:510)와 낫새지파(17:1-13)의 기업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들은 어마어마한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 "스스로 삼림을 개척하는 임무(17)"를 감당해야만했습니다. 요셉지파에게 일어난 특이한 두 사건은 우리는 복음 안에서의 빈궁과 풍부가 모두 복으로 전환될 수 있는 확신을 갖게합니다. 하나는 슬로보핫 딸들이 받은 기업을 통해 그것을 배웁니다. 므낫새지파 중, "슬로보온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기 때문에"(17:3) 여손들이 기업을 얻습니다.(6) 아들만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딸들이 차지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위고하, 남녀신분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가 얻는 은혜의 원리를 돋보입니다. 한나의 경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들을 원하였기에 사무엘을 얻을 수 있었고, 악사도 남편 웃니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기업을 달라고 간청할 때 얻었습니다. 신약의 수로보니게 여인도 특이한 간청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여자야 네 믿음 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는 칭찬을 받게했습니다. 이것은 영적권위가 여자에게 주어지게 하는 것을 보편화시킨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로우심과 그의 주권적역사의 기이함을 배웁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삼림을 개척하여 기업을 얻게하신 것을 보고 배웁니다.(1) 여기 나온 에브라임 산지는 르바임이란

거인이 사는 곳으로 수확이 많아 땅이라, 벤엘과 실로가 주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병 거를 가진 원주민이 있는 곳을
 개척하는 것은 정말 힘겨운 일이지 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안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있다고 합니다.(빌4:13) 그러나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
 개척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와 수고는 같이 움직이는
 신앙수례의 양 바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엿 것을
 열심히 찾아야합니다.(골 3:1) 성령은 개척의 영이십니다.(행1:8)
 로마에까지 나가는 꿈을 가지고 오래 기도하며 기다리며 준비한 바울은
 마침내 그 일을 성취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무 리 불리한 조건에서도 복음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삼림을 개척하는 꿈을 꾸는 성도가 되십시오.

Pioneer a company (Joshua 16:1-17.18) 2004.7.14 (Wed)

Joshua 16 and 17 specifically show the inheritance of Joseph's descendants
 (16:14, 17:14-18), that is, the inheritance of the tribe of Ephraim (6:5-10) and
 the tribe of Manasseh (17:1-13). As God had promised Joseph earlier, they
 received an enormous inheritance. However, to obtain it, they had to
 undertake the "mission of pioneering the forest on their own (17)." Two
 unusual events that happened to the tribe of Joseph give us confidence that
 both poverty and abundance can be converted into blessings in the gospel.
 One learns it through the inheritance received by the daughters of Zelophehad.

Among the new tribe of Manath, “Zelovos has no sons, but only daughters” (17:3), so female descendants receive the inheritance. (6) It is a special event that daughters can receive the inheritance that only sons can receive. This does not mean that something is obtained at random, ignoring God's established order, but it highlights the principle of grace that anyone who desires it, regardless of status or gender, can obtain it. In the case of Hannah, she was able to obtain Samuel because she wanted a son for the kingdom of God, and Achah also got it when she asked for her inheritance without relying on her husband Othniel. In the New Testament, the woman of Syrophoenix touched the Lord's heart through her unique request and received praise, saying, "Woman, your faith is great; it will be done for you as you wish." This does not make it common for spiritual authority to be given to women. On the contrary, we learn the freedom of God's grace and the wonders of his sovereign work. We have no choice but to be humble and serve God with gratitude. Next, we learn by looking at how God acquired the inheritance by pioneering the forest. (1) The mountainous area of Ephraim mentioned here is where a giant named Rephaim lives, and it is a land with many harvests, and Bethel and Shiloh are located around it. However, it was really difficult to pioneer a place where there were natives with iron chariots, but with God being with them, they took it. The Bible says that everything is prepared in Christ (Philippians 4:13). However, in order to make it ours, we must move forward with the will to pioneer. This is because grace and hard work are like the two wheels of the chariot of faith that move together. Therefore, we must diligently seek the things above (Colossians 3:1). The Holy Spirit is the spirit of pioneering (Acts 1:8). Paul, who had a dream of going to Rome, prayed, waited, and prepared for a long time, but he finally achieved it. Yes. The path

was opened through his sacrifice and hard work. No matter how unfavorable the conditions, the power of the gospel is incredible. Let us become believers who dream of pioneering forests.

짐짓 죄의 위험을 경계하자 (히 10:26-31) 2004.7.18 (주)

하나님 영광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모든 것이 죄라는 성경적 주장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마음 속의 죄를 주님께 계속 자 백하지 않는 한 마음 속의 악한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한 죠지 물러의 주장을 인정하게 될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짐짓 죄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아야합니다. 절정에 해당되는 은혜를 다루면서 동시에 심각한 짐짓 죄를 다루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했고 예수님은 "성령 훼방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게 범한 모든 죄는 용서받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바로 이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 심각성을 좀더 자세히 설명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1) 정죄 받은 자로서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망에 이르는 공포입니다. 사형언도 받은 사람 처럼 선고의 두려움이 생깁니다. (2) 맹렬한 불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의의 손길을 표현한 것이다. 무서운 진노에 빠지고 정조없는 아내를 향하여 발하는 의분의 시기처럼 시기의 불 이 임합니다. (3) 무엇보다 현재는 용서받은 자가 받는 참 자유와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대적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 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것이며, 언약의 피를 욕되게 하는 것이며, 성령의 역사를 막는 것입니다. 양심의 자가 진 단을 통해 스스로 돌이켜 지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짐짓 죄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요? 짐 짓 죄의 위험성을 느낄 때, 다음 4가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1) 죄를 구체적으로 시인하십시오. 죄에 대한 바른 태도와 습관이 고쳐져야 합니다. 철저한 자백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요일1:9)

(2) 그리스도의 공로가 마음에 와 닿기까지 생각 하고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 공로의

보배로움에 관한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드려야 합니다. (3)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셨음을 주장하십시오. 성령충만함을

받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죄의 권세인 가나안

7족속과의 싸움이 일어나야합니다. (4) 성령의 능력을 받아 작은 일부터

행동으 로 옮기시고 복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낙고지와 같은 복

음의 불모지와 같은 영적삼림을 개척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Let us beware of the danger of false sin (Hebrews 10:26-31) 2004.7.18 (Note)

“If you believe the Biblical claim that everything that falls short of God’s glory is sin, there is absolutely no way for anyone to overcome the evil thoughts in their hearts unless they continue to confess their sins to the Lord,” said George Muller. First of all, we must understand how dangerous willful sin is, and the book to the Hebrews that deals with both the culmination of grace and the seriousness of willful sin is what John calls “the sin that leads to death.” He said that all sins committed against the Son of Man are forgiven, but the seriousness of this is explained in more detail. (1) What are the consequences for those who are condemned? It is a fear of death, like a person who has been sentenced to death. (2) It is an expression of the fierce wrath of God and his chastity. The fire of envy comes like a time of righteous indignation. (3) Above all, it is impossible to receive God’s love because this is a sin against the blood of Christ. No, it is trampling on the Son of God, it is dishonoring the blood of the covenant, and it is blocking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en, how can we escape from the danger of sin through self-examination of our conscience? When you feel the risk of committing a sin, please consider the following four things: (1) You must change your attitude and habits toward the sin in detail. (1 John 1:9) (2) We must think about the merits of Christ and be thankful for what the Lord has accomplished. We must accept the Bible's evaluation and God's evaluation of the preciousness of the Lord's merits. (3) Claim that you have given your all to God. You must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There must be a fight against the seven tribes of Canaan, who are still the living power of sin. (4) Receive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take action starting from small things to serve the gospel. Please actively engage in pioneering spiritual forests that are like barren areas of the gospel such as Anakgoji.

주님교회의 특성(히10:1925) 2004.7.11 (주)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약속은 우리 주님이 품으신 최대의 꿈이었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교회라하여 "공회", "교회", "공동체"라는 말로 사용되었고 신약에는 "우리", "너희"라는 복수명사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19-22절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가 예배하는 공동체의 그림이 보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강조점을 보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합니다. 19절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담력이란 용기, 확신(confidence), 평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 공로가 하나님 마음에 충분한 만족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가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공로를 내 것으로 인정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철면피 같지만 이것만이 소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22) 교회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나간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서 절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의 영으로 충만한 곳이 교회입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개인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하고 24 장로처럼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에 계신 분에게 던져야 합니다. 둘째, 소망으로 넘치는 모습입니다. 교회의 둘째 특징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꿈이 넘치는 모임이란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소망은 "산 소망"(벧전 1:3)이라 했고 바울은 "한난 중에 이루는 소망"(롬5:5)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10:23절에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난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가진 복음이 안겨준
 소망입니다. 교회는 소망과 소원과 꿈과 비전이 넘치도록 되어
 있습니다.(행2:17)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기 때문입니다.(빌2:13)
 어떤 꿈입니까? 먼저, 완전한 구원의 꿈입니다. 무엇에든지 참, 옳고, 깨끗하고,
 경건하고, 사랑할만하고, 칭찬할 만한 꿈입니다.(빌4:8)
 다음에는 주님께께 쓰임 받는 꿈입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
 쓰임받기를 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열심히 모이는 모습입니다. 예배와
 소망의 그림뿐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의 모습이 이 모든 그림을
 종합합니다. 2425절에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습니다. 모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마11:2829)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다. 왜 모입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목적으로 모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사랑을
 배워야하고 선행을 배워야합니다. 우리 모두 순종하는 교회의 그림을
 이루기 위하여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는 열심을 가 집시다.

Characteristics of the Lord's Church (Hebrews 10:1925) 2004.7.11 (Note)

The promise to "build my church" was our Lord's greatest dream. In the Old Testament, Israel is referred to as the church, and the words "public council," "church," and "community" are used. In the New Testament, it is also used as a plural noun, "us" and "you." How does it appear in today's text? First, it is a form of worship before God. In verses 19-22, we see a picture of a community coming before God and worshipping Him through the blood of Christ. There are two points of emphasis here. One emphasizes the blood of

Christ. This is because verse 19 says, “Through the blood of Christ we have confidence to enter the sanctuary.” Courage refers to courage, confidence, and peace. The only reason we can confidently approach God is because the blood work of Christ has provided sufficient satisfaction to God’s heart. So how does it actually work to go forward by the blood of Jesus? I acknowledge and claim that credit as my own. It may seem like a bloodbath, but this is the only way of hope. (22) The church must have the appearance of people who have believed in the death of Christ and “bowed in the house of the living God.” A church is a place filled with the spirit of worship. Like the Sycharic woman, the individual must be a worshiper in spirit and truth, and like her 24 elders, she must cast her crown upon Him on her throne. Second, it is overflowing with hope. The second characteristic of the church is that it is a gathering full of unwavering hopes and dreams. Peter called this hope “a living hope” (1 Peter 1:3), and Paul called it “a hope fulfilled in suffering” (Romans 5:5), and Hebrews 10:23 calls it “the hope of our faith.” This is the hope given by the gospel, which is more effective than angels, Moses, Aaron, and Joshua, and has immediate and eternal effect. (Acts 2:17) This is done by God Himself. (Philippians 2:13) What kind of dream is it? First of all, it is a dream of complete salvation. It is a dream that is true, right, pure, lovable, and praiseworthy. (Philippians 4:8)) Next is my dream of being used by the Lord. Third, it is a picture of a church gathering diligently, as well as a picture of worship and hope. Verse 2425 says, “Let us do this more as we see the day approaching.” What is the reason for the gathering? (Matthew 11:2829) Why do we gather together? The church gathers for the purpose of encouraging good deeds and must learn to love and do good deeds.

기업의 꿈을 그려라 (수18:1-28) 2004.8.4 (수)

가나안 정복을 위한 싸움과 분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때, 이미 5지파가 기업을 받고 남은 7지파가 받지 못한 때 여호수아는 특이한 방법으로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그것은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자기 지파에 맞는 기업을 책에 그려 실로의 하나님 앞에 나아와 제비를 뽑음으로 나누어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은사에 대한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깊이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은사에 대한 꿈을 꾸며 사모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지파에 맞는 땅을 갖기 위하여 찾는 수고를 한 것처럼 우리는 은사에 대한 사모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시지만 우리자신에게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를 알아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같이 돈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려는 꿈이 아니고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 꿈입니다. 이런 꿈을 가진 자는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그것을 내게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81:10-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나서도 불신앙으로 그것을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마음은 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을 믿고 겸손히 나의 은사에 대한 꿈을 가질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십니다. 다음에는 그 꿈을 마음의 캔버스 위에 구체적으로 그려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꿈을 사모하되 그 꿈이 나의 마음에 구체적이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헌신의 목표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물어보아도 바디매오처럼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예술가들이 자기의 작품세계를 만드어 내듯이 자기만이 가진 은사를 구체적이게 하여 그것을 개발시켜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꿈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간구해야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에 나오게 했고 거기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것은 두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말씀 앞에서 자기의 꿈을 정돈하고 구체적이게 하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기도를 통하여 이 꿈을 더 분명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교회의 사명선언과 같이 말씀에 풍성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명에 불타는 마음으로 어디서나 종의 삶을 살아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교회는 존재합니다. 당신의 기업과 은사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개발하여 존귀하게 쓰임 받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Draw your corporate dream (Joshua 18:1-28) 2004.8.4 (Wed)

When the fight to conquer Canaan and the distribution took place simultaneously, when the 5 tribes had already received their inheritance and the remaining 7 tribes had not, Joshua distributed the inheritance in an unusual way. This was because the method was to travel throughout the land, draw in a book of horoscopes appropriate for each tribe, then come before the God of Shiloh and distribute them by casting lots. Here we can dream about the right gift in Christ and learn deeply what we must do to make that dream come true. First, you must dream about the gift and have a desire for it. Just as we worked hard to find land suitable for our tribe, we must be diligent about receiving gifts. Although God Himself provides it, we must know what is most appropriate and necessary for ourselves and seek it. Like Simeon, it is not a dream to buy the gift of the Holy Spirit with money, but a dream that

comes from a pure and sincere heart. He who has a dream like this should open his mouth to let it in. This means that you have to ask for it to be given to me. In Psalm 81:10-14, it is said that even after Israel occupied Canaan, God abandoned them when they did not seek it due to unbelief. As a result, my heart became strong and I was unable to see the grace of God. God pours out His grace when I humbly dream of my gifts and believe that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Next, you need to draw that dream specifically on the canvas of your mind. It is very important to long for the dream given by the Holy Spirit, but to make that dream concrete in your heart. Because you can clearly see the goal of your devotion. No matter who asks you, you must be able to give a specific answer like Bartimaeus. Just as artists create their own world of work, they must be specific about their unique talents and develop them. Lastly, you must present your dream before God and ask for it. Following Joshua's command, the ark of God was brought to Shiloh and a lot was drawn there. This has two meanings. One is to organize and make your dreams concrete in front of the Word, and the other is to make these dreams clearer through prayer. As our church's mission statement states, we are rich in the Word,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with a burning heart for mission, living the life of servants everywhere and revealing the image of God on this earth. For this purpose, our church exists. What is your dream for your company and gift? I hope you develop that gift and live as someone who is used with honor.

실로를 중심한 삶 (수19:1-51) 2004.8.11 (수)

일곱지파에게 맞는 땅을 제비뽑아 나눠 주는 일이 모두 마쳐진 사건을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50-51) 로 기록합니다. 40여년간의 방황 끝에 가나안 땅을 자기 기업으로 받은 사실은 복음의 빛 아래서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느 누구도 기업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제작기 자기 기업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30절과 요한복음 3:16절에 개별적으로 자기가 믿어 구원과 영생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구체적으로 제 기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하여 주신 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이 우리의 관건이 되어야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은사는 이 웃의 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중심해 살아가야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선택한 목적인 자기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의와 공도"를 세 우려는 것처럼 (창18:19, 대상18:14)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 자기 기업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안식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실로에서 그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중심이 가나안을 누리는 길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 하느냐 않느냐가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창세기 49:10절에 "유일한 실로 (안식처)"는 유다지파의 지도자, 그리스도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안식처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제는 언제나 주안에서 제단 쌓을 때 일어나며 그

안식 역시 예수 안에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나라의 쉼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나라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나라임을 보입니다. 각지 과가 땅을 얻기까지
무수한 세월,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신 그 나라는 애굽에서의 민족형성, 시내 산에서
율법 받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함으로 이루어지는 긴 점진적인
여정이었습니다. 거듭남으로 시작된 그리스도는 그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루 아침에 성장된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됨까지는 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연단과정에는 정말 필요한 것은 오래 참는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담력과 인내는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실로이신 그리스도를 중심한
자만이 인내할 수있기 때문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시는
경험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갈 2:20) 이런 은혜가 같이하시
기를 축원합니다.

Life centered on Shiloh (Joshua 19:1-51) 2004.8.11 (Wed)

The incident in which the distribution of land to the seven tribes by lot was completed is recorded as “This is the inheritance divided by lot in Shiloh before the Lord at the entrance to the Tent of Meeting” (50-51). The fact that he received the land of Canaan as his inheritance after 40 years of wandering has three meanings under the light of the Gospel. First, it is true that Christians have received their own inheritance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just as no one in Israel has received an inheritance. Just as in Acts 16:30 and John 3:16, an individual receives salvation and eternal life by believing, any

Christian has specifically obtained his inheritance. We call this a gift. Our key is to discover the gifts given to us, develop them, and please the heart of the One who gave us them. No matter what spiritual gift you have received, you must live centered on God's will because the gift is for the benefit of your neighbors. Just as Abraham and David were chosen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righteousness and righteousness" rather than their own salvation (Genesis 18:19, 1 Chronicles 18:14), Christians must cultivate their businesses well in order to reveal the image of God. . Second, he shows the peace and rest of the kingdom of God. What happened in Shiloh emphasizes God's sovereignty and shows that the center of fellowship with God is the way to enjoy Canaan. Whether or not we acknowledge God's ownership is a matter of life and death. Genesis 49:10 states that "the only Shiloh (resting place)" is Christ, the leader of the tribe of Judah. Christ is the only true resting place. Therefore, true fellowship always occurs when an altar is built in the Lord, and that rest is also achieved only in Jesus. Let us live with the rest of God's kingdom in Jesus. Lastly, it shows that the kingdom of God is a kingdom that is built gradually. How many years, how many trials and refinements did it take for each sect to acquire land? The kingdom promised from the time Abraham was called was a long, gradual journey that took place through the formation of a nation in Egypt, the reception of the law on Mount Sinai, and the occupation of the land of Canaan. Christ, who began through rebirth, did not grow overnight until he took on that image. It takes a long process to receive instantaneous righteousness and become like the Son of God. What is really needed in this refinement process is long-suffering patience. Therefore, the courage of faith and perseverance move together. Because only those who center on Christ, who is Shiloh, can persevere, I must

die and have the experience of only Christ living. (Galatians 2:20) I hope that this kind of grace will be with you.

사방에서 오는 안식(수21:1-45) 2004.8.25(수)

본문은 레위지파의 3개 자손들의 거주지를 보이는데, 그핫 자손은 유다, 시므온, 베냐민에게서 13성읍과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지파에게서 10성읍을 얻게 하였고, 게르손 자손은 잇사갈, 아셀, 납달리, 납새 반지파에게서 13성읍을, 므라리 자손은 르우벤, 갓, 스불론지파에게서 12성읍을 얻어, 모두 48성읍을 차지했다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난 후 "사방에서 오는 안식을 얻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나라의 두드러진 안식을 보이는데 그리스도안의 안식을 그림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누릴까요? 첫째, 하나님 나라 왕이 임할 때 안식을 누립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것이 모두라면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의 땅 정복에 불과한 것이 될 것입니다. 다윗 통치 40년을 부강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죽고 솔로몬이 대신 왕이 되었지만 그 나라 역시 세상에서는 굴곡이 많았습니다. 마침내 그 나라는 바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나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9:6에는 그 나라의 특징을 1) 의와 평강의 나라 2)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나라 3)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한 보편성을 가진 나라 4) 그리고 영원한 나라란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진 나라란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의 맛을 누리면서 삽니다. 성신이 보이신 것.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지고 성신으로만 맛볼 수 있는 나라란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 중심되는 곳에 이런 안식이 누려집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안식은 만사형통의 은혜입니다. 사방에서 안식을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런 절대 안식이 어떻게 주어졌는가요? 하 나님 친히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위하여 일어난 싸움의 모든 승리는 오직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싸움도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이깁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버지가 말씀하 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만이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착한 일을 하시러 오신분이십니다. 복음은 착한 것이 고 복음을 적용하시는 성령은 착한 영이십니다. 그분이 일하시면 만사형통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의 여호수아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안겨준 안식은 모든 방면의 안식 이고 형통입니다. 그의 멍에를 메고 겸손히 순종할 때, 그 안에 약속된 놀라운 안식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Rest from all directions (Joshua 21:1-45) 2004.8.25 (Wednesday)

The text shows the residences of the three descendants of the tribe of Levi. God gave the Kohathites 13 cities from Judah, Simeon, and Benjamin and 10 cities from the half-tribes of Ephraim, Dan, and Manasseh, and the Gershonites from Issachar, Asher, and Naphtali. , It is recorded that the descendants of Merari took 13 cities from the half-Nissai tribe, and the descendants of Merari took 12 cities from the tribes of Reuben, Jad, and Zebulun, for a total of 48 cities. Afterwards, God's assessment was that "we received rest from all directions." This shows the outstanding rest of the kingdom of God and is a picture of the rest in Christ. How can we enjoy this?

First, we enjoy rest when the King of God's kingdom comes. If all we did was conquer the land promised to Abraham and Moses, it would be no more than the conquest of the land of Genghis Khan or Alexander. David lived a prosperous and honorable life for 40 years, then died and Solomon became king in his stead, but that country also had many ups and downs in the world. Finally, the kingdom was completed as the kingdom of God through the coming of Christ. In Isaiah 9:6, the characteristics of the kingdom are 1) a kingdom of righteousness and peace, 2) a kingdom established by the power of God, 3) a kingdom with universality targeting all nations, and 4) an eternal kingdom. This was accomplished with the coming of Christ. It is a nation that has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through repentance and faith. We are people who have already entered that country. For those of us who live under the rule of that country, we live while enjoying the taste of true rest. The sight of the Holy Ghost. It is a country created by God's hands and can only be tasted through the Holy Spirit. This kind of rest is enjoyed in a place centered on Christ, the King of the kingdom. Second, the rest of God's kingdom is the grace of prosperity in all things. It is a wonderful promise to give rest on all sides. How is this absolute rest given? Because God Himself delivered the enemy into their hands. All victories in the fight to occupy the land were won solely by God. Our fight today is also won only when God is with us. A Christian cannot give it up because his Father told him to. Because all good things were done only by God. Christ came to do good deeds. The gospel is good, and the Holy Spirit who applies the gospel is a good spirit. If he works, he will receive the grace of prosperity in all things. The rest given to us by Christ, our Joshua, is rest and prosperity in all aspects.

When we take on his yoke and humbly obey him, the wonderful rest promised in it becomes ours.

여호와 경외신앙의 공동체 (수22:1-24) 2004.9.1.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중요한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데 있었습니다. 일찍이 2.5지파인 갓, 르우벤, 자, 므낫새 반지파가, 요단동편에서 기업을 얻고 거기에 안주하려 할 때, 다른 지파가 기업을 받기까지 앞장서서 싸우리는 명령을 끝까지 순종한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하고, "성결과수"를 권고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언덕위에 한 제단을 세움으로 이스라엘정국은 온통 긴장 속에 빠지지만 자녀들의 교육목적인 것이 드러나자 무장을 풀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 이스라엘인 교회가 언제나 지킬 신앙의 특성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첫째 특성은 말씀에 대한 신실한 순종입니다. 2-3절에 보면 "명령을 그대로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진행하고 말씀으로 마치는 공동체임을 계속 보여줍니다. 복과 저주도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달려고, 성공실패의 문제도 말씀의 순종여부에 달렸음을 보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돌려보낼 때에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첫 계명에 대한 순종을 보이면서 장래를 결정하는 기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구약 교회의 특성이 신약 교회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벧전 1:22-23, 요15:5) 성경에 대한 신실한 순종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란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은 거하시고, 복을 명하시고, 역사를 일으켜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세워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히 13:7-8) 엘리가

연약했지만 그의 예언을 권위있게 여기고 믿은 한나는 그날 밤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둘째 특성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2.5지파들은 축복 기도를 받은 후, 자기 기업지로
 돌아갔습니다. 가다가 요단강 언덕에 옛이 란 높은 단을 쌓았습니다. 그
 단은 그들의 자녀들이 여호와 경외신앙을 떠 나지 않도록 자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장래의 영적 연합이 깨트려지지
 않도록 한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22-24) 교회는 성경을 가르침으로
 처음 받은 복음의 변질을 막아야합니다. 말씀이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골2:7) 그러므로 교회는 전도와 아울러 양육이 성실하게
 이루어져야합니다. (마28:19-20, 딤후2:2) 바울은 데살로니가성도들을
 대할 때 유모가 자기 자녀를 대하듯이 양육하였고 갈라디아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셋째
 특성은 거룩한 연합을 위해 영적긴장을 가져야합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는 공동체의 성결에 예민한 반응을 발견합니다. 단을 쌓은 소식 은
 타락의 시작임을 알고, 전 이스라엘이 싸울 준비를 합니다. 아간이나
 발람의 죄처럼 인정하고 일종의 영적 긴장감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결을
 과수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경외의 공동체인
 교회 가 말씀위에 서서 거룩을 지키기 위한 긴장을 가진다면 불가능이
 없는 것 입니다. 놀라운 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Community of Faith in the Fear of Jehovah (Joshua 22:1-24) 2004.9.1.

The important reason why God chose Israel and gave them Canaan as their
 inheritance was to form a community of faith that feared Jehovah. When the
 2.5 tribes, Reuben the swordsman, and the half-tribe of Nassae, obtained an

inheritance on the east side of the Jordan and attempted to settle down there, Joshua, who obeyed the order to take the lead in fighting until the other tribes received the inheritance, blessed them. , recommended “Holiness Watch” and sent it back. However, by building an altar on the hillside of the Jordan River, the entire state of Israel was thrown into tension, but when it was revealed that it was for the purpose of educating their children, they disarmed and gave praise to God, according to the text. Here we discov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ith that the Church, the New Israel, will always maintain. What is it? The first characteristic is faithful obedience to the Word. In verses 2-3, it says, “I followed the command.” Israel continues to show that it is a community that always begins with the Word, proceeds with the Word, and ends with the Word. It shows that blessings and curses depend on whether or not the word is kept, and the issue of success or failure also depends on whether the word is obeyed. In verse 5, even when Joshua sent them away, he showed obedience to the first commandment of loving only God absolutely and showed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their future.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Old Testament church were directly transferred to the New Testament church. The path of a Christian is to be born again through the Word and to live in the Word. (1 Peter 1:22-23, John 15:5) The church is a community of faithful obedience to the Bible. God dwells here, commands blessings, and creates history. However, the fact is that God works by raising up weak people. (Hebrews 13:7-8) Even though Eli was weak, Hannah believed his prophecy as authoritative and received an answer to her prayer that night. The second characteristic is teaching the Word to our children. After receiving the blessing prayer, the 2.5 tribes returned to their sites. As he went, he built a high altar called Et on the hillside of the Jordan River. The altar was intended

to teach the word to their children so that they would not leave their faith in the fear of Jehovah. It was a wise thing to do to prevent future spiritual unity from being broken. (22-24) The church must prevent the corruption of the gospel it first received by teaching the Bible. Because the Word is the foundation of the church. (Colossians 2:7) Therefore, the church must faithfully carry out evangelism and nurturing. (Matthew 28:19-20, 2 Timothy 2:2) When Paul treated the Thessalonian believers, he raised them like a nurse would her own children, and took the trouble to give birth to the church in Galatia until they revealed the image of God. The third characteristic is that we must have spiritual tension for holy unity. As we read the text, we discover a keen response to the holiness of the community. Knowing that the news of building the altar was the beginning of corruption, all of Israel prepared to fight. Like the sins of Achan and Balaam, they were acknowledged and a kind of spiritual tension arose. Because their purpose is to protect holiness. If the church, a community of the fear of Jehovah, stands on the Word and has the tension to maintain holiness, nothing is impossible. It can create amazing things.

섬길 자를 택하라(수24:1-18) 2004.9.15(수)

을 강조하는 여호수아를 24장에서 봅니다. 거기는 우리하여
호와이스라엘에서 입대하신 기요 없이요 라 늘 13 회 이상 나오는데
주님이 친히 하심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순종이나
노력이나 기술이나 전력이나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 나님이
친히 이루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는 어떤 발견이 있었기에 여호와 만을
섬기라고 주장하며 또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요? 본문에서 두 가지 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상하신 사랑의 손길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과거를 돌아볼 때 많은 것, 곧,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을 배웁 니다. 그러나 정확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야고보는 성경을 가리켜 "거울 이라고 했습니다.(약1:25-26)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과거의 성공과 실패, 위험과 구원받은 일들을
비출때 그 의 미를 알게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나 성공에
안주하기보다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의 흔적을 발견하는 일이 배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본래 우상숭배의 가문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이룬 것을 회상 하면서 그 큰
사랑을 인해 놀라워하 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랑이 나오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상장사인 그를 불러 주신 것을 보면 조건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선택적 사랑입니다. 선택받은 그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창12:3) 인도하시는 사랑입니다. 목적을 이루시는데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 곱도 죽고
요셉도 죽었고 모세와 주고 여호수아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어코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보호의 사랑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보호하시고, 원수의 손아래서 친히 건지신 사랑입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인정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만이 쓰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발자취를 자세히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일을 이루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약한 인간을 통해 그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하였지만 얼마나 약한 사람입니까? 사람을 죽인 전적을 가졌고, 입이 둔하고,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신경질나면 그 자리에서 끝장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도 인간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아 이성 실패의 사건도 큰 오점이었습니다. 그는 늙고 이제 모든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기력이 쇠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를 쓰셨습니다. 그들의 공통분모는 전적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모두 던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나 자신부터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내가 우선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헌신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는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우리가 정부터 모본을 보이는 것이 순서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이 하나님에게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Choose whom you will serve (Joshua 24:1-18) 2004.9.15 (Wed)

We see Joshua emphasizing this in chapter 24. There is no mention of our enlistment in Howaisra, and it always appears more than 13 times, emphasizing that the Lord Himself did it. This means that it was not due to

Israel's obedience, effort, technology, power, or environment, but was accomplished only by God Himself. What discovery did he have that enabled him to live and claim to serve only Jehovah? Two things can be found in the text. Firstly, it is because we can see God's loving hand. When humans look back on the past, they learn many things: their outlook on life, their worldview, and their values. However, because the exact answer is revealed in the Word of God, James refers to the Bible as a "mirror" (James 1:25-26). The mirror of this Word. When our past successes, failures, dangers, and salvation are reflected in front of us. That is why it is important to discover the traces of God's love shown in them rather than being complacent about past failures or successes, because when we do so, our hearts are naturally inclined toward God. He was from an idolatrous family, but as he recalls being called by God's grace and becoming God's people, he is amazed at the great love that God gave him. If you look at it, it is a selective love that gives grace freely to the chosen one (Genesis 12:3). It is a love that guides Abraham and Isaac. Even though Jacob died, Joseph died, and Joshua and Joshua had only a few days left to die, God was able to protect them when they were in trouble and were under the hand of their enemies. Second, if you look closely at the steps taken by God, it means that only those who are completely devoted to God have been used. Almighty God accomplished this through weak humans, but he was a weak man with a history of killing people. He was the kind of person who would end things on the spot. Nevertheless, Joshua was also a human being, and the incident of failing to reason was a big blemish on him. He used Joshua in this weak position. Their common denominator was total dedication. He threw himself all over God. We must first go to a place where we dedicate ourselves to God. I come first. I have to commit myself first. "My father's

house serves the Lord alone.” The order is to set an example from our own families. I hope that your whole life will be used by God.

질투하시는 하나님 (수24:19-33) 2004.9.22(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정복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강조 한 여호수아는 그의 유언적 설교를 경고(warning)로 마칩니다. 이것은 하나님 께 받은 은혜를 만대에 전수하려는 목적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미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보여준 사랑의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생각함으로서 정복이후의 삶과 구원 이 후의 삶 곧,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원리를 배우고자합니다. 첫째, 은혜생활을 계속하려면 질투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합니다. 성경 은 한번 은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더 욱 더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후6:1)고 했고, 은혜 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히12:15)를 늘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생활을 계속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질투하기까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질투" 란 죄의 한 표현인데 하나님이 죄를 범하신다는 말인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 니다. 제 2계명에도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이라고(출2:3) 약4:5에 도 세상을 사랑하는 신자 안에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성령" 이라고 합니 다. 이것은 모두 우리를 향한 그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일 뿐입니다. 이런 진한 사랑의 하나님께 진한 사랑의 응답을 할 때 은혜생활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한 번 은혜를 받은 것이 중요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고 사랑으로 무르익는

알곡신자가 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다음, 은혜생활을 계속하려면 첫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또 은혜 생활을 하려면 여전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과의 관계가 신실해야 합니다, 언약을 구두(verbal)로(23-24), 기록(written)으로(25) 기념비(memorial sign) (25) 삼중으로 세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촉구하였더니 예라 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래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 과 야곱에게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를 들을 때, 성경 을 대할 때, 언제나 절대 순종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성도들 이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거나, 베뢰아 교인들이 성경을 상고하는 자세나, 2년 동안 날마다 성경을 공부한 두란노 서원의 모습은 바로 성경에 대한 신실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성경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심을 가지실 때 은혜생활이 계속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생활을 계속하려면 경건의 본들을 따라야 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정말 이 약속을 지킴으로 40여 년간 가나안의 평강을 누렸 1 던 것으로 전해옵니다. 그중에 중요한 역할은 바로 장로들의 경건의 본 때문이 었습니다.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만은 그들이 타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31) 은혜 받은 증인이 중요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교회에 본을 주심으로 서 자기의 일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생활을 하기위해 질투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의말 씬을 신실히 믿고 경건의 본들을 따라갑시다. 이것으로 받은 은혜의 풍성함을 계속 누리는 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God is jealous (Joshua 24:19-33) 2004.9.22 (Wed)

Joshua, who emphasized that the crossing of the Jordan River and the conquest of the land of Canaan was entirely by the grace of God, ends his testamentary sermon with a warning. This was a purposeful way to pass on the grace received from God to all generations. In other words, it teaches you how to maintain the grace you have already received. By thinking about another aspect of God's love shown by Joshua, we want to learn the principles of maintaining grace in life after conquest and salvation. First, in order to continue living a life of grace, we must love God even to the point of jealousy. The Bible says that receiving grace once is important, but continuing to receive grace is even more important. Therefore, he said not to receive grace in vain (2 Corinthians 6:1) and to always be afraid that some may fall short of grace (Hebrews 12:15). So it is necessary for us to know how to continue living a life of grace. One of the ways is to love God until we become jealous. What does the phrase "jealous God" mean in verse 19? "Jealousy" is an expression of sin, but does it mean that God commits sin? That is not what it means. It is just another expression of love. Jealousy of Israel In the second commandment, "Jehovah is a jealous God" (Exodus 2:3), and in James 4:5, it is said that in believers who love the world, "the Holy Spirit is jealous." It is all just an expression of His passionate love for us. It is important that we continue to receive grace once when we respond with deep love to the God of such deep love, but we also grow with God's love and become ripe with love every day. Next, to continue living a life of grace, you must faithfully keep the first covenant. In order to live a life of grace, you must still have a faithful relationship with the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Joshua (23-24), written (25), memorial sign (25) triple-built, urged Israel to obey, and they

answered yes, and this was no different from the original Adam, Abraham, and Isaac. This applies to Jacob today. When listening to a sermon or reading the Bible, the Thessalonians should always take the words of God as the word of God, or the Berean believers should take the Bible. The attitude of studying the Bible every day for two years at the Tyrannical Academy shows a faithful attitude toward the Bible. Finally, a life of grace continues. In order to continue, we must follow the example of godliness. It is said that the Israelites during the time of Joshua enjoyed peace in Canaan for 40 years because of the example of the elders. It is said that they did not fall as long as they were alive. (31) Witnesses who received grace are important. This is because, both past and present, God accomplishes his work by giving examples to his church. In order to live a life of grace, let us become people who love God even to the point of jealousy, faithfully believe in His words, and follow His examples of godliness. I pray that you will live as a blessed person who continues to enjoy the abundance of grace you have received through this.

여호수아가 죽은 후 (삿 1:1:2) 2004.9.29

복종과 승리를 보여주는 여호수아서에 비해 사사기는 불순종과 패배를 보여줍니다. 350년 동안 죄와 노예와 간구와 구원과 침묵이 7회에 걸친 사이클로 반복 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3사사들 중, 웃니엘, 기드온, 드보라, 삼손, 입다, 에훗, 여섯 사사는 그 시대의 구원자로 쓰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지도자가 죽은 후에 다른 지도자를 찾지 않고 여호와께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서 누가 먼저 싸울 것"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나가 승리한 것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인도자요 주권자임을 믿은 증거가 나타났습니다.(1) 그리고 하나님이 원수를 자기들의 손에 붙이시면 승리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시면 실패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2,4) 다시 말하면 유다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영적전쟁의 주관자란 말라 확신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19) 바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인도하신 주님은 현재도 인도하시고 장래를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생각해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절대주권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예수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히13:8) 2. 하나님은 간구와 순종과 헌신의 통로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1) 먼저 나가는 것도 그들의 전략이나 의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오직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시를 따라 유다가 먼저 올라가 싸울 때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이 정복되었습니다. 바로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였습니다. (4-5) 무엇보다 갈렙 같은 헌신의 사람, 웃니엘과 악사같이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자들의 헌신을 통해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주님께 무슨 간구를 드립니까? 당신은 지금 주님과 그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와 무엇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간구, 우리의 순종, 우리의 헌신을 통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합시다. 나의 가정문제를 풀어주시고 장래문제를 인도하시며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주님에게 담대히 나아갑시다.

After Joshua's death (Judges 1:1:2) 2004.9.29

Compared to the Book of Joshua, which shows obedience and victory, the Book of Judges shows disobedience and defeat. This is because sin, slavery, supplication, salvation, and silence appear repeatedly in seven cycles over a period of 350 years. Of the 13 judges, Othniel, Gideon, Deborah, Samson, Jephthah, and Ehud, the six judges are used as saviors of that era. They were God's people. What happened to the history of Israel after the death of spiritual leader Joshua? 1. It was still God who guided Israel. After the death of their leader, Israel did not look for another leader, but went to the Lord. They asked who would fight first and went out according to God's instructions and won, which is evidence that they believed that only Jehovah God was their guide and sovereign. (1) And they knew very well that if God gives the enemy into their hands, they will win, but if he does not, they will fail. (2,4)

In other words, God who is with Judah will lead all spiritual wars. (19) Think about who the God who guided us in the past is and who guides us in the future. Think deeply about God, the God of righteousness, the God of absolute sovereignty, the God of Immanuel. This is a God-centered life. Because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we are people who live under His guidance. Hebrews 13:8) 2. It is important to ask God first through prayer, obedience, and devotion. (1) Going first does not come from their strategies or discussions. He waited for God's instructions through prayer, and when Judah went up first to fight, obedience was the channel of God's power (4-5). How are you obeying the Lord and His words now through the devotion of those who long for the blessings of heaven? Who and what are we dedicating ourselves to? Let us fully obey God, who creates history through our prayers, our obedience, and our devotion. Let us come boldly to the Lord who solves my family problems, guides me through future problems, and supports me strongly. let's go.

강성한 신자 (삿 1:11:36) 2004. 10.6.

이스라엘이 강할 때 가나안을 정복한 사건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이 강함으로 죄와 육신과 세상을 이기는 진리를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은혜가 귀하지만 그 은혜를 관리하는 능력은 더 귀합니다. 22-26절에 요 세지파가 뱀엘을 정복하는 일을, 27-36절에는 6지파 (므낏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가 불완전한 정복상태에서 우리는 강한 신앙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어떻게 강한 신자가 될 수 있습니까? 첫째, 임마누엘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후령처럼 따라붙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시니라"(22)는 임마누엘이 강성해지는 길입니다. 수많은 전쟁과 사건 속에 승리의 관건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지니라"(출14:13-14)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회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계 19:14-15)라는 말씀에서 승리의 길은 오직 임마누엘뿐임을 보입니다. "이 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28) 약할 때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27,28,29,30.31,32.33,34) 내 속에 있는 마귀적, 육적, 세상적 가나안을 쫓아내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삶을 힘써야 합니다. 둘째,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혈육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은혜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진정한 강성입니다.(렘17:5-8) 요셉 지파는 전쟁하

러 갈 때 원수의 출입구를 알려준 사랑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는 신실함을 지킨 것입니다. "이에 칼날로 그 성을
찢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 보내며"(25) 은혜를 은혜로 갚는
신자가 되려면 두 가지를 힘써야합니다. 먼저
감사생활입니다.(살전5:16-17) 다음에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엡5:18)
회개, 믿음, 갈구, 순종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합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 새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내 게 성령 충만함을
부으사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옵소서

Strong Believer (Judges 1:11:36) 2004. 10.6.

The incident of the conquest of Canaan when Israel was strong allows us to learn the truth of overcoming sin, the flesh, and the world through the inner strength of Christians. So, although the grace we have already received is precious, the ability to manage that grace is even more precious. In verses 22-26, we see the three tribes' conquest of Bethel, and in verses 27-36, we see the incomplete conquest of the six tribes (Manasseh, Ephraim, Zebulun, Asher, Naphtali, and Dan), and we feel the need for strong faith. How can I become a strong believer? First, we must pursue the life of Emmanuel. "The Lord is with him" (22), which follows Israel like a warning, is the way for Immanuel to become strong. This is because the key to victory in numerous wars and incidents lies only with God. "Moses said to the people, 'Do not be afraid; stand still and see the salvation that the Lord will work for you today... The Lord will fight for you; be still.'" (Exodus 14:13-14) The army that was present followed him on white horses, clothed in linen, white and clean. And out of his mouth came a sharp sword, with which he should smite the nations;

he himself will rule them with a rod of iron, and he himself will tread the winepress of the fierce wrath of the Almighty." (Revelation In the words (19:14-15), it is shown that the only way to victory is Immanuel. "After Israel became strong, they sent the Canaanites to do their work" (28), and when they were weak, "they could not drive them out" (27, 28, 29, 30.31,32.33,34) We must strive to live the life of Immanuel in order to drive out the demonic, fleshly, and worldly Canaan within us. True strength lies in fighting in the way of grace, not in the way of flesh and blood. (Jeremiah 17:5-8) When the tribe of Joseph went to war, they showed grace to the love who showed them the entrance of the enemy and remained faithful to return the favor with grace. "But only let that person and his family go" (25) To become a believer who returns grace with grace, you must strive for two things. First, a life of gratitude. (1 Thessalonians 5:16-17) Next, a lif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Ephesians 5:16-17) 5:18) We must receive grace through repentance, faith, desire, and obedience. Let us be strengthened with power and create new works. Pour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upon me and strengthen my inner self with power.

하나님이 세운 사사 (1) (삿 2:1-10)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결정됨이 없고 가나안 정복사역도 어느 정도 마쳐졌으며 그 후의 가나안 생활 지침에 관해 가르쳐지는 과도기에서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위기적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셔서 백성들을 회개케 하여 산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사기 기자는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사는 날 동안만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다고 평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첫째, 여호와와의 사자를 통해 인도하셨습니다. 본문의 "여호와와의 사자"는 누구입니까?(출14:19, 23:20-23, 33:2, 민20:16, 사63:9) 그는 애굽에서 광야를 통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이시며(1) 길갈에서 보기에 이르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을 영원히 지키는 분이시며(1) 가나안에서의 생활을 친히 가르친 분이십니다.(2) 그는 잘못했을 때 책망하시고 징계하신 분이십니다. (3) 하나님처럼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처럼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처럼 책망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신 분이기에 성육신하기 전,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먼저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받아 풍성한 풀을 먹을 다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감당케 하시는 자상한 인도자이십니다. 요한복음 21:15-17절에 말씀대로 주님은 자기 양을 친히 먹이시고 치시며, 목자장이시기 때문에 자기 양의 모든 것을 책임지셨습니다.(히13:20)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말씀을 내게

적용함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를 드림으로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합니다. 둘째,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와 사자(그리스도)는 영적지도자들인 여호수아(7)와 장로들(7)을 사용하셨습니다. 약한 살마이지만 그들을 세워서 자신의 일을 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 원하시기를 기뻐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본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 이유는 이런 본이 없었기 때 문입니다.(10)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목사들을 세워서 일하십니다.(엡4:11-12) 그들은 본을 보이고 성경을 풀어 먹이는데 주력하라고 세운 사람들입니다.(엡 4:14)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인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바로 알아듣고 그대로 지킴으로서 영적 지도자의 인도를 잘 받아야합니다.(눅16:29-31) 나의 유일한 지도자인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가 세운 영적지도자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도를 따르는 한 마리의 양이 됩시다.

Judge appointed by God (1) (Judges 2:1-10)

Joshua's successor has not been decided, the conquest of Canaan has been completed to some extent, and it was Jehovah God who guided Israel even in the transitional period when the future guidelines for living in Canaan were taught. In a situation that could be creative or critical, God rebuked them and made the people repent and offer a living sacrifice. Despite this, the writer of Judges commented that Joshua and his generation followed God only for as long as they lived. How does God, who guided Israel, guide us in Christ? first. He guided through the Angel of Jehovah. Who is the "Angel of the Lord" in the text? (Exodus 14:19, 23:20-23, 33:2, Numbers 20:16, Isaiah 63:9) He is the one who led the people from Egypt through the wilderness to Canaan. (1)

He is the one who arrived in sight at Gilgal. He is the one who forever keeps the covenant made with Israel (1) and is the one who personally taught life in Canaan. (2) He is the one who rebukes and disciplines people when they do something wrong. (3) He was a leader like God, established a covenant like God, and rebuked like God. Because he was created by God, he can be seen as Christ before his incarnation. We are happy people who receive direct guidance from Christ. As Psalm 23 says, He is a caring guide who first guides us to green pastures so we can eat abundant pasture, and then guides us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As it says in John 21:15-17, the Lord Himself feeds and cares for His sheep, and because He is the chief shepherd, He takes responsibility for everything about His sheep. (Hebrews 13:20) Therefore, we apply His words to ourselves. And we must receive His guidance by offering specific prayers. Second, he guided through spiritual leaders. Jehovah's messenger (Christ) used spiritual leaders Joshua (7) and the elders (7). Even though they are weak, he decided to raise them up and do his work. It was God who was pleased to save us through the foolishness of preaching. Therefore, their example is very important. The reason other generations did not know Jehovah is because they did not have this example. (10) Even in the New Testament, God appoints pastors to work (Ephesians 4:11-12). They are appointed to set an example and focus on explaining and teaching the Bible. It's people. (Ephesians 4:14) Therefore, we must receive the guidance of our spiritual leaders by properly understanding and keeping the words of Moses and the Prophets, which are the Bible. (Luke 16:29-31) Following Christ, our only leader, Let us become one sheep that respects the authority of spiritual leaders and follows their guidance.

하나님이 세운 사사(2) (삿2:11-23) 2004.10.20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겨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로 심한
괴로움 속에 있을 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왜
사사를 세우셨는가요? 첫째,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려고
세우셨습니다.(16,18) 본 문은 사사시대의 특징 5 단계 즉, 타락, 징계,
부르짖음, 구원, 다스림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사의 주 임무는 자기 백성을 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자,
통치자, 제사장일을 했는데, 이것은 메시아의 선지자, 왕, 제사장의
사역을 이행한 것입니다. 여호와와 사자로 나타난 그리스도는 사사들을
통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사역을 그의 죽음, 부활, 승천으로
이루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가나안 7족속이 가리키는 우리의 육체
소욕은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겨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작은 일의 불순종으로 죄를 범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서 영적사망의 맛인 곤고, 불안, 근심, 염려를 당합니다.
깨달은 즉시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주께 부르짖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회복의 은혜를 주 십니다. 이와 같은 육의
세력이 넘어뜨릴 때마다 우리는 사사되신 주님의 공로를 믿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이미 이것까지도 이기셨음을 주장해 야한다는
말입니다. 기억할 것은 주님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모두 제하심보다
그대로 두 셔서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심으로서 조금조금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꾸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의 삶에 철저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일어났는가요? 마리아의 믿음 있는 기도와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난 것입니다. 전
 지전능하신 창조자의 성품이 나타남으로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진정한 믿음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완전히 드러난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말을 그대로 하기만하면 죄인이 의인으로, 어두움이
 빛으로 변합니다. 순간 순간 건지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순종을 배우게 하려고 사사를 세우셨습니다.(22-23) 17절에 보면 사사는
 건지시는 구원자일 뿐 아니라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의 통치를 받지 않는 불신앙으로 또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지속적인 순종의 삶입니다. 이미 가나안 생활에서 승리의
 지숙은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이기 때문에 신명기 6:1-9절에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강론하고, 마음 판에 새기게 했습니다.
 순종은 내 마음의 작은 일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십니다. 어떤 분이 바느질 방에 갑자기 불이 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데 바느질 취미의 우상에 열중하는 것을 지적받은 일이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우연이라고 그냥 넘기지 말고 하나님에게 정말 순종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상을 성기고 있거나 없는지. 많은 자연
 스러운 일일지라도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지적받을 때 즉시
 회개 하여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완전한 사사,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침묵정진,
 순종일관으로 그를 따라갑시다.

Judge appointed by God (2) (Judges 2:11-23) 2004.10.20

When Israel was in great suffering due to God's wrath because they served Baal and Ashtaroth and committed evil, God, who is merciful, appointed judges. Why did you appoint a judge? first. He was established to deliver Israel from the hands of their enemies (16,18). This passage summarizes the five stages of the period of the judges: corruption, discipline, crying, salvation, and governance. First, the judge's main duty was to save his people. They served as saviors, rulers, and priests, carrying out the ministry of the Messiah's prophets, kings, and priests. Christ, who appeared as the messenger of Jehovah, worked through the judges. In the New Testament, Christ fulfilled the ministry of king, prophet, and priest through his death, resurrection, and ascension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Our fleshly desires, as indicated by the 7 Canaanite tribes mentioned here, must be overcome moment by moment with the grace of Christ. For example, when we commit a sin through disobedience in some small matter, our relationship with God is broken, and we suffer suffering, anxiety, worry, and worry, which are the taste of spiritual death. As soon as we realize it, when we cry out to the Lord in repentance and faith and ask for the help of the Holy Spirit, Christ gives us the grace of restoration as promised. Whenever such fleshly forces overthrow us, we must believe, give thanks, and praise the merits of the Lord who judged us. This means that you must claim that you have already won even this. What we must remember is that rather than removing all of our fleshly desires, the Lord leaves us as is and changes us a little by giving us grace each time. Just as the miracle of turning water into wine occurred at the wedding feast in Cana, God requires thorough faith in our lives. How did it happen? Christ's character was revealed through Mary's faithful prayer and the

servants' obedience. The glory is revealed through the revelation of the character of the Almighty Creator. Where glory is revealed, true faith arises. Now we are people who are looking at the glory fully revealed through Christ's death on the cross. If you just do what he says, sinners will become righteous and darkness will become light. Because it is the Lord who delivers us moment by moment. Second, he appointed a judge to help people learn obedience. (22-23) In verse 17, a judge is not only a savior but also a ruler. Israel, who had been saved, went back to disbelief and not under his rule. God's goal is a life of continued obedience. Since the continuation of victory in the life of Canaan is first and second obedience, Deuteronomy 6:1-9 was taught diligently, discussed, and engraved on the tablets of one's heart. Obedience must begin with the small things of my heart. At that time, Christ rules over me. There was an incident where a person was criticized for being engrossed in the idol of his sewing hobby when a fire suddenly broke out in his sewing room and he was praying to God. Faith is obedience to small things from the heart. Rather than just passing everything off as coincidence, we must ask whether we are truly obeying God. Are you holding on to an idol or not? Even though many things are natural, they need to be seriously examined. When you are pointed out, you must immediately repent and have a deeper fellowship with the Lord. Christ, our perfect Judge, completes all things and calls us now. Let us follow him in silence and obedience consistently.

의인의 길을 주장하라 (갈2:11-16) 2004.10.27

인간은 의의 문제가 해결되어야합니다. 왜냐하면 만남의 대상이 의의 하나님이고, 궁극적 만남의 장소가 의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입니다.(계4:3)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라는 문제는 어떻게 의를 얻을까라는 문제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 문에서는 의를 얻는 길에 관한 세 가지 견해를 보여줍니다. 첫째, "자기행위로 의를 얻으려는 이방인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을 떠난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면 하나님만을 생명으로 알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자가 될 터인데,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자기주의자(autonomist)가 되어버렸습니다. 눈을 밝아졌지만 하나님도 자기도 이웃도 자연도 바로 알 수 없이 되었습니다. 마치 동굴 속에 사는 물 고기의 눈처럼 모든 것의 표준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가리켜 이방죄인"(15)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방인 회심자들을 받아드리는 문제를 어떻게 결정했나요? 할례를 받지 말고 특징적 죄악 문화를 금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은 것은 이방인들이 자기힘으로 의롭게 되려는 삶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행15:19-20)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불의와 불 경건으로 진노가 임한다고 했고(롬1:18)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않고 마음이 허망하여졌다고 했으며(1:21-23),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어 온갖 일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1:28-32) 이방인의 자기행위로 의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대인 역시 다른 형태의 자기 힘으로 의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주의자로 치우친 것입니다. 사실인 율법도 믿음으로 의를 얻도록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믿음을 오해하여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행함이 아니고 믿음인 것을 모세도 미리 말했습니다.
 뿔뿔을 쳐다보고 살아나는 사건이나(민21:9, 요3:14-15)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볼 때에 살아난 사건이나(출12:5) 레위기의 제사제도는
 모두 믿음으로 되는 구원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주의
 말씀을 많이 받은 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순종치 않음으로
 율법주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차이를 만들었나요? 율법은
 복음으로 율법주의는 외식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보호색을 띤 죄이기 때문입니다. 특권을 받은 유대인이
 왜 외식주의자가 되었는가요? 그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으면 우상숭배자가
 되든지 율법주의자가 되어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이 되며 의인의 길을 갈수있음을 주장 합니다.
 다메섹에서 받은 복음진리의 계시는 주님의 계시로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두 죄 아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을 때만이 의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자기 힘이나
 의식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를 믿고 의인이 되고 계 속
 믿음으로만 의인으로 살수 있습니다.(함3:17-19) 다시 말하면, 첫째,
 외적인 것 에 표준을 두지 않는 삶입니다. 둘째, 여호와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슴 의 발처럼 높은 곳을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를 얻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만
 하면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실질적인 의인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 분의 지혜와 구속과 거룩과 의가 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믿음으로 의인의 길을 주장하심으로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Claim the path of the righteous (Galatians 2:11-16) 2004.10.27

Humans must have the problem of righteousness solved. This is because the object of meeting is the God of righteousness, and the ultimate meeting place is a place filled with righteousness. (Revelation 4:3) So the question of how to be saved is no different than the question of how to obtain righteousness. This passage presents three views on the way to obtain righteousness. First, "there is a Gentile view of trying to gain righteousness through one's own actions. This is because human nature has become like that after leaving Eden. If one had eaten of the fruit of the tree of life, one would know God alone as life and become one who possesses God's righteousness. By eating the fruit of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I became an autonomist, but I became unable to understand God, myself, my neighbors, or nature, just like the eyes of a fish living in a cave. That is why Paul refers to Gentiles as foreign sinners" (15). How did the early church decide on accepting these converts? The reason it was concluded that circumcision was not performed and the characteristic sinful culture was prohibited was because it proves that the Gentiles live a life of trying to become righteous through their own efforts. (Acts 15:19-20) So, in Romans 1, wrath is brought about due to unrighteousness and ungodliness. He said that it would come (Romans 1:18), but he did not glorify God or give thanks to him, and his heart became vain (1:21-23). He said that he left God to a despotic mind and did all kinds of things (1:28-32). The point is that a Gentile cannot possess righteousness through his own actions. Next, the Jews

also tried to find righteousness through other forms of their own strength. In short, it is biased towards legalists. The law, which is true, also teaches us to obtain righteousness through faith. However, they misunderstood this faith and became legalists. Moses also said in advance that the way to salvation is faith, not works. The incident of coming back to life by looking at the bronze serpent (Numbers 21:9, John 3:14-15), the incident of coming back to life when looking at the blood of the Passover lamb (Exodus 12:5), and the sacrificial system in Leviticus all showed salvation through faith. It will. Therefore, the Jews appear to have received many of the words of the Lord, but in reality, they disobeyed them and fell into legalism. What difference did it make? The law became the gospel, and legalism became hypocrisy. This is more scary than the Gentile sin because it is a sin with a protective color. Why did a privileged Jew become a hypocrite? Because they did not believe in Christ who came. Anyone who does not welcome Christ becomes either an idolater or a legalist. Lastly, Paul asserts that only through faith can one become righteous and walk the path of righteousness. The revelation of gospel truth received in Damascus is not an unfamiliar revelation from the Lord. He saw both Gentiles and Jews under sin. He says that righteousness is obtained only by believing in the merits of Christ. You can become righteous only by believing in the righteousness achieved by Christ, not through your own strength or consciousness, and live as a righteous person only by continuing to believe. (Habakkuk 3:17-19) In other words, first, it is a life that does not set standards on external things. Second, we rejoice only in Jehovah. third. It is like walking on a deer's feet. Have you obtained the righteousness recognized by God? As long as you receive Christ now, you can become righteous and enjoy the life of a righteous person when you step out in faith. It is only Christ

who is your wisdom, redemption, holiness, and righteousness. I hope you experience the grace and peace of heaven by claiming the path of righteousness through faith.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삿3:1-11) 2004.11.3

우리는 혼란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배웁니다. 자기백성을 향해 순종생활을 포기하지 않 으시고 기어코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용의주도한 집념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순종의 마음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일하실 수 있기 때 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 듣는 것이 수양 의 기름보다 낫다"(삼상15:22-23)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순종을 가르치셨습니까? 첫째, 전쟁을 통해 순종을 가르치셨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열방을 남겨두신 이유가 전쟁을 모르는 2세들에게 전쟁을 익히게 하 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블레셋인, 가나안인, 시돈인, 히위인과의 싸움을 통해 순종을 철저히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싸움을 통해 순종할 때 이기고, 불순종할 때 진다는 진리를 체험하게 된 것입 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쟁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전쟁의 쟁취와 같고 그 후의 생활도 전쟁입니다. 마음은 언제나 전쟁이 일어납니다.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전쟁의식이 없다면 죽은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길의 위대함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어라는 것은 말씀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둘째, 시험을 통해 순종을 가르치셨습니다. 1절에도 "시험하게하려하시 며", 4절에도 "시험하사 모세의 계명을 순종하나 아니하나 알고자 하셨다" 고 했습니다. 시험이 하나도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유혹 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시험을 만납니다.(약1:2) 성경에 나오 는 위대한 인물들이 모두 시험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 심지어 우리주님께서도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목적은 순종은 배우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5:8-9) 현재 우리가 당한 어려움은 모두 시험의 범주 속에 다 들어갑니다. 이것은 잘잘못을 따지는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을 배우게 하려는데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계를 통해 순종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에서 메소포 다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악함)이 8년간 억압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7-8)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요? 순종을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징계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억압아래 있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채찍이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옷니엘을 세워 구원하시고 40년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징계를 통해 순종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전쟁과 시험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은 원수를 통해 철저한 순종을 배우게 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 곧, 작은 일 에까지 순종으로 겸손히 나아가게하십니다. 순종이야말로 위대한 기적을 낳는 삶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God demands obedience (Judges 3:1-11) 2004.11.3

We learn about God's persistent love that demands obedience through the chaotic life of Israel during the period of the judges. This means that we can discover God's tenacity to achieve this without giving up on a life of obedience to his people. This is because it is in this heart of obedience that God can sit and work. So Samuel said, "Obedience is better than sacrifice, and hearing the word is better than the fat of rams" (1 Samuel 15:22-23). How did

God teach obedience? First, he taught obedience through war. Verse 2 In the book, it is said that the reason God left the nations in the land of Canaan was to teach the second generation, who did not know war, to fight, so that they would thoroughly learn obedience through battles with the Philistines, Canaanites, Sidonians, and Hivites. Through the battle of Jericho and Ai, Christians have experienced the truth that they win when they obey and lose when they disobey. Believing in Jesus is like winning a war, and life after that is also a war. There is always a battle between the spirit and the flesh. If you do not have a sense of war, your faith is dead. Therefore, learning the greatness of the way of obedience is something other than obeying the Word. No, secondly, he taught obedience through testing, and in verse 4, he said, "He wanted to test us to see whether we would obey the commandments of Moses or not." There was no test. It is not a Christian life. There are temptations and trials. (James 1:2) All the great people in the Bible received grace through trials. He said that the purpose was to help us learn obedience. (5:8-9) All the difficulties we face today fall into the category of testing, not to help us learn obedience. Lastly, it was God's hand to discipline Israel for their sins that caused them to be oppressed by Cushan Rishathaim (evil) of Damia in Mesopo for eight years. (7-8) Why did God do this? Discipline was a sign of love for Israel, urging them to repent. When they repented and cried out, God appointed Othniel to save them and rule them for 40 years. God taught us to obey through discipline. Just as God made us learn obedience through war and tests, and made us learn thorough obedience through our enemies, today too, God allows us to humbly move forward with obedience in everything, even the smallest things. This is because obedience creates a life that produces great miracles.

에훗의 담력 (삿3:12-30) 2004. 11.10

웃니엘 사사 40년 통치로 평안을 누린 이스라엘은 그가 죽자 또다시 우상을 성기고 이방의 유혹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징계 바로 에이였습니다. 신체적 특징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왼손잡이 에훗"이란 별 명이 붙은 인물입니다. 그를 통해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에훗의 사역을 통해 "담력으로"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배웁니다. 첫째, 부르짖는 담력이 있었습니다. 15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는 표현은 고통 속에서 그냥 해보는 외침이 아니고 고통당하는 신자의 자발적인 꿈틀거림입니다. 성도가 가진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성령을 받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밤을 어떻게 지나가는가를 보고서 그가 참신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보면_고난을 당하는 성도의 탄식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걸", "나를 돌아보지 않으실걸...", "나의 생존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나이 까?"라는 절규를 봅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 참 기도를 배우게 되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고난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주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책임지는 담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부르짖을 때 은혜는 회복되는 일은 현실의 문제를 책임졌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말하면서 그 응답으로 에을 세우셨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를 준비 하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기백성의 부르짖음에 풍성한 것으로 응답할 준비를 갖 추고 계심을 봅니다. 에훗은 공물을 드리는 중에 기회를 엿보아 에글론을 죽였습니다. 위험 앞에 혼자서

문제를 책임지는 담력을 봅니다. 어디서 이런 지혜가 생겼는가요?
 어디서 이런 담력이 생겼는가요? 성령이 임함 으로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기록이 없지만 웃니엘이나 다른 사사들에게 하던 것 처럼 동일한
 역사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지혜가 생기고 담
 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셋째, 싸우는 담력이 있었습니다. 책임지고
 부르짖는 담력을 가진 자는 자연히 원수를 향해 싸우는 담력을 갖습니다.
 에글론이 죽었어도 그의 남은 군사들은 싸움 으로 돌아내는 것이지 그냥
 둬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훤은 도 망 나와 나팔로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즉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역
 사였습니다. 아무리 흑암 중에서도 영적권위는 여전히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만명의 역사와 용사를 죽였고 8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창3:15)
 그러므로 그리 스도인은 싸우는 목표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며, 싸우는 대상은 에글론 같은 마귀와 세상과 육이며, 싸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며, 반드시 이기는 보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르짖는 담력, 책임지는 담력, 싸우는
 당력이 절실한 때를 살아갑니다. 이것을 가진 자의 마음에 능력이
 임합니다. 이런 력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hud's courage (Judges 3:12-30) 2004. 11.10

Israel, which had enjoyed peace under the 40-year reign of Judge Othniel, began to worship idols again and commit sins through foreign temptations after his death. The God who loved them was right about discipline. Because of his physical characteristic of being left-handed, he was nicknamed “left-

handed Ehud.” A great work of salvation occurred through him. Through Ehud’s ministry, we learn to accomplish the Lord’s work “with courage.” First, the courage to cry out. In verse 15, the expression “I cried out to the Lord” is not a shout that is just used in the midst of pain, but the voluntary writhing of a suffering believer. This is a very natural expression of a believer. Because his heart is alive by receiving the Holy Spirit. You can tell whether or not a person is a true believer by how he or she goes through the night of suffering. When I read the Psalms, I hear the sighs of saints who are suffering. I see cries of “God will punish me”, “God will not look at me...”, “Where is the God of my survival?” I see that through these hardships, we learn true prayer and become people who keep the word. If you are suffering, please come to the Lord boldly in the name of Jesus. Second, the party had the power to take responsibility. When we boldly cry out to God, grace is restored because we have taken responsibility for the problems of reality. Verse 15 says that because they cried out, God answered, and in response He established a. I don't know when or how He prepares Him, but I see that God is ready to answer the cries of His people with abundance. While Ehod was offering tribute, he saw an opportunity and killed Eglon. I see the courage to take responsibility for problems alone in the face of danger. Where did this wisdom come from? Where did you get this courage? It happened because the Holy Spirit came. Although there is no record of the Holy Spirit coming, we can say that the same work occurred as it did on Othniel and the other judges. This is because when the Holy Spirit comes, wisdom and courage arise. Third, he had the courage to fight. Those who have the courage to take responsibility and cry out naturally have the courage to fight against their enemies. This is because even if Eglon is dead, his remaining soldiers will return to fight, not

just leave. Ehud ran away and called the people together with a trumpet. People gathered immediately. It was God's work. No matter how dark it was, spiritual authority was still alive. He killed ten thousand history and warriors and ruled for eighty years. Christ's death on the cross bruised the serpent's head. (Genesis 3:15) Therefore, the goal of Christians' fight is to reveal the holiness of God, the target they fight against is the devil like Eglon, the world, and the flesh, and the way they fight is to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and victory is guaranteed. no see. We live in a time when we desperately need the courage to cry out, the courage to take responsibility, and the courage to fight. Power comes to the hearts of those who have this. I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you may be filled with this kind of power.

바울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3:28)고 말한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에 따라 요긴하게 쓰임받도록 하심을 오늘 본문의 인물들을 통해 보여줍니다. 드보라와 야엘가 여자이지만 요긴하게 쓰였고 바락은 남자일지라도 믿음이 약하여 근본적인 승리가 한 여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에 쓰임 받는 일꾼이 되려면 어떤 요소를 가져야합니까? 먼저, 우리는 친히 싸우시는 용사로서의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가나 안에 들어오고 이족을 몰아내고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싸움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우시고(4) 하나님이 바락에게 시스라를 붙이시려고 다산으로 이끌어 내시는 것(7)은 모두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은(가정, 직장, 좋은 일, 나쁜 일,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모두 하나님의 싸움과 관련을 갖습니다. 이 모든 일에 싸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홍해 앞에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라고 하신 분은 현실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문제, 교회의 모든 활동에서 친히 싸워주십니다. 단지 우리는 거기에 참여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붙은 그리스도인은 강자의 삶을 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진리로 다스려야합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정말 강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싸움에 쓰임 받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봅시다. 1) 연약한 그릇을 쓰십니다. 한 선지자로, 백성들의 문제를 결정해주는 재판자로 쓰임 받은 사람은 한 여자였습니다. 말은

자들이 자기 일을 하지 못하면 돌들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그릇이라 생각한다면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께 자신을 모두 드리십시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2)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바락은 드보라가 시키는대로 하는 행동대장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중대한 일에 그대로를 믿지 못하여 승리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드보라와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한 대답이 그
 상급을 잃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최고이 지 사람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 불신앙은 노란자위의 승리를 놓치게 했습니다. 신약의
 사가랴는 불신앙 때문에 병어리되는 징계를 받았지만 말씀 그대로
 받아드린 마리아는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3) 은혜의 줄을
 붙든 사람을 쓰십니다. 벨의 아내, 야엘은 이방여인인데도 쓰임
 받았습니다. 군대장관 시스라를 죽임으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은혜의 줄을 잡은 사람입니다. 겸손할 때
 쓰셨습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싸움에 초청받은 우리들은 약한
 것을 자랑 하고 은혜의 줄을 믿음으로 잡아 주께 쓰임 받는 자로
 살아가야합니다.

Judge Deborah (Judges 4:1-24) 2004.11.11

As Paul said, "There is neither Jew nor Greek, there is neither slave nor free,
 there is neither male nor female, for you are all one in Christ." (Galatians
 3:28), God allows each of us to be usefully used according to the gifts we
 have received. This is shown through the characters of Deborah and Jael,
 although they were women, and because Barak was a man, his faith was weak

and the fundamental victory went to a woman. First, we discover God as a warrior who personally fights, and everything he does to drive out the Yi people is God's fight (4). Bringing Sisera to Tasan (7) made it clear that God personally controls everything that happens to us (whether it be in the family, direct affairs, good or bad things, small or big). It is true that the one who fights in all of this is God, who tells us to look at what he is doing for us in front of the Red Sea. We only participate in it. Therefore, Christians who are attached to God must truly control their hearts with the truth. Next, we see that God is looking for someone to use in this fight. 1) A woman was used as a prophet and a judge to decide the people's problems. If you think that it is our God who can create descendants of Abraham even from stones, if those in charge are unable to do their work, then have hope and give yourself to the Lord to lift up the weak and put the strong to shame. 2) He uses people with faith. Barak was the leader who did what Deborah told him to do. Although he was a man of faith, he failed to believe in himself when it came to important matters and lost the glory of his victory. His answer, "I will not go unless you go with Deborah," cost him his reward. If God is with you, you are relying on people, not the best. This disbelief caused us to miss the victory of the yellow owl. In the New Testament, Zacharias was punished and made mute because of his unbelief, but Mary, who accepted her words at her word, became a person of precious use. 3) He uses people who hold on to the cord of grace. Bel's wife, Jael, was used even though she was a foreign woman. He had the opportunity to contribute to the kingdom of God by killing Sisera, the commander of the army. This is the person who holds the cord of grace. He wrote when he was humble. We, who are invited to God's battle that continues

today, must boast of our weaknesses, hold on to the rope of grace with faith,
and live as people used by the Lord.

드보라의 찬양 (삿5:1-31) 2004. 11.24.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성격상, 미리암의 찬양(출15:21), 한나의 기도(삼상2:1-10), 그리고 마리아의 찬양(눅1:46-55)과 같으며, 빌립보 감옥에서 불렀던 바울과 실라의 찬미와 같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기에 이런 감격스러운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까? 첫째, 백성의 즐거운 현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두령과 백성의 즐거운 현신을 본 드보라와 바락은 매우 기뻐하여 이렇게 찬양한 것입니다.(1-2,9) 드보라 자신 뿐 아니라 모든 지파들이 현신함으로 강군을 이겼기 때문입니다.(14-18) 이런 열심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주님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요2:13-22) 이것을 가리켜 "자기를 삼키는 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원의 현신이란 모든 방면에 있어서 산제물입니다. 간절한 마음, 변명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벌하게 하는 마음, 열심 있는 마음, 두려운 마음, 그리고 의분에 사로잡힌 마음은 모두 이런 현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고후7:11) 이것과 달리,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일은 외식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옥함을 깨트린 뜨거운 현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여호와께서 친히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또 그들은 이 큰 싸움에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을 본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일은 항상 아름답고 소망과 생명이 넘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찬양했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소식을 전하는 질서를 보고 찬양한 것입니다.(시19:)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구원의 찬양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고후5:7, 엡2:10)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변화를 맞은 자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는 다불산에서 드보라와 바락은 자기백성을 위해 용사로 싸우시는 위대한 일을 본 것입니다. 가나안의 원수를 꺾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13)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의의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11) 우리 속에 이런 큰 일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꿈꾸며 나아갑시다.

셋째,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헌신이나 친히 싸우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자신들이 쓰임 받는 것을 보고 찬양했습니다. 바락이 나 야엘도 보잘것없이 약하였지만 각자의 은사에 따라 쓰임 받은 것입니다. 나같은 죄인이 쓰임 받았다는 겸손의 마음, 하나님 집의 문지기로 쓰임 받는 것을 발견한 그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를 대적하는 자는 애타게 부르짖는 시스라의 노모의 탄식처럼(28-30) 물거품이 되지만, 주를 사랑하여 자신을 도구로 드린 사람은 힘있게 비취는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31) 자기 면류관을 보좌에 던지며 찬양하는 24장로들처럼 여호와와 임재안에서 즐거움으로 헌신하여 주께 쓰임 받는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Deborah's Praise (Judges 5:1-31) 2004. 11.24.

Deborah and Barak's song is similar in nature to Miriam's praise (Exodus 15:21), Hannah's prayer (1 Samuel 2:1-10), and Mary's praise (Luke 1:46-55),

and is similar in nature to the Philippian prison. It is the same as the hymn sung by Paul and Silas. What did they see that enabled them to give such moving praise? First, because I saw the joyful manifestation of the people. No matter how difficult times are, the Lord prepares His sacrifice for His glory. Deborah and Balak, who saw the joyful dedication of the leaders of Israel and the people, were very happy and praised it like this.(1-2,9) This is because not only Deborah herself but all the tribes defeated the strong army with their dedication.(14- 18) This kind of zeal can be found in the Lord who cleanses the temple. (John 2:13-22) He refers to this as “self-devouring zeal.” The dedication of resources is a living sacrifice in all aspects. An earnest heart. , the heart of excuses, the heart of longing, the heart of punishment, the heart of zeal, the heart of fear, and the heart of righteous indignation, all come from this devotion. (2 Corinthians 7:11) Because the work comes from a hypocritical heart, it is impossible to give true praise to God. Second, they have seen what Jehovah Himself does. I have seen God's work personally in great battles. Whether in the past or present, God's work is always beautiful and full of hope and life, and I praise God's skill in creating something from nothing. , the night praises the order of delivering news to the night. (Psalm 19:) But what is even more amazing is the praise of salvation. The moment you believe in Christ, you become a new creation (2 Corinthians 5:7, Ephesians 2:10).) Those who have tasted the transformation of becoming like God cannot help but praise them. At Mount Tabor, which shows this picture of salvation, Deborah and Barak saw the great work of Canaan's enemies fighting for their people. This is because God Himself came down to destroy us (13) and performed works of righteousness with supernatural power. (11)

Let us move forward, hoping and dreaming of the work of God who has done such great things within us.

Third, he saw God's hand using him. I am thankful for their dedication and fighting personally, but most of all, I praise them for seeing them being used. Both Barak and Jael were weak, but they were used according to their individual gifts. When they discovered that a sinner like me was being used as a doorkeeper in God's house, they couldn't help but praise. Those who oppose the Lord will turn into nothing, like the lamentations of Sisera's old mother who cries out desperately (28-30), but those who love the Lord and offer themselves as instruments will shine like the powerful sun. (31) They will place their crowns on the throne. I pray that, like the 24 elders who throw praises, they will joyfully dedicate themselves in the presence of Jehovah and sing praises that glorify God as instruments used by the Lord.

[The end of Living Stream Book 8 (2004)]

Soli Deo Gloria